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장개방 대응방안

2004. 12

주문배 · 엄선희 · 정갑용 · 정명화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주문 배 : 제1~6장

◆ 연구진

- 엄 선 희 : 제3장, 제6장
- 정 갑 용 : 제2장, 제6장
- 정 명 화 : 제5장, 제6장

머 리 말

최근,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 상품시장의 자유화·개방화 물결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도 세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은 WTO/DDA 협상 결렬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 자국과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지역공동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가 세계 상품시장의 자유화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은 경제 여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거점별·지역별로 연계망을 구축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체결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입장이 어려운 만큼 수산업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수산물 시장개방화 협상에서 상당수준의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완화 또는 제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수산업이 각국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업은 국내적으로는 총생산 중 1% 미만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세계 1위의 수산물 수입국이자 최대 소비국이며, 우리나라도 수산물 생산량과 수입면에서 세계 9위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수산물 생산국으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세계 유수의 수산물 소비국이자 생산국으로서 수산물 공급의 안정적인 차원에서 일정량 이상의 수산물을 국내생산으로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자 간의 수산업 관계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산업 부문에서 한·중·일 간 경쟁관계(경합 및 보완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 개방대책뿐만 아니라 수

산물 수급정책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진들은 수산업을 둘러싸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정부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를 계기로 WTO/DDA 및 FTA 시대에 조화로운 수산정책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이 연구결과가 정책 입안자 및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長 李 廷 旭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5
제2장 한중일의 수산물 시장개방 정책 동향	8
1. 세계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논의 동향	8
1) WTO 시장개방화 논의 동향 / 8	
2)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 11	
2. 한중일의 수산물 시장개방 정책 동향	14
1) 한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 14	
2)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 16	
3)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 17	
제3장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19
1.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방법	19
1) 국제경쟁력의 개념 / 19	
2) 국제경쟁력의 평가방법 / 20	
2.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21
1)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분석 / 21	
2) 한일 수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비교 / 38	
3. 한중일의 수산업 요인별 경쟁력 비교	45

제4장 한중일의 수산업 부문별 구조 분석 ————— 48

1. 세계의 수산물 시장과 한중일의 수산업관계 48
2. 한국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 50
 - 1) 한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 50
 - 2)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구조 / 60
3. 중국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 67
 - 1)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 67
 - 2)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구조 / 79
4. 일본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 87
 - 1) 일본의 수산물 수급구조 / 87
 - 2) 일본의 수산물 수출입구조 / 94
5. 한중일 3국 간 수산업 구조적 특징 비교 100

제5장 한중일의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장벽 ————— 104

1. 한중일의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105
 - 1) 한국의 수산물 관세구조 / 105
 - 2) 중국의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 108
 - 3) 일본의 수산물 관세구조 / 114
2. 한중일의 수산물 비관세 장벽 분석 121
 - 1) 수산물 비관세 조치의 분석개요 / 121
 - 2) 한중일의 세관 및 행정상 수산물 수입절차 / 124
 - 3) 한중일의 수산물 제품 기준 / 126
 - 4) 한중일의 수산물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 / 128
3. 한중일 3국 간 수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의 특징 비교 130

제6장 우리 수산업의 과제와 시장개방 대응방안 ————— 133

- 1. 수산물 시장개방과 우리 수산업의 과제 134
- 2. 우리 수산업의 시장개방 대응방안 138
 - 1) WTO·DDA 협상과 우리 수산업의 대응방안 / 138
 - 2) 한중일 FTA와 우리 수산업의 대응방안 / 140
 - 3) 시장개방 대비 수산물의 합리적 수입관리 및 수출확대방안 / 142

참고문헌 ————— 147

표 목 차

<표 1-1>	선행연구의 유형별 사례	5
<표 2-1>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9
<표 2-2>	관세인하 문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10
<표 2-3>	우리나라의 FTA 추진상황(2004년 11월말 현재)	14
<표 3-1>	국제경쟁력의 평가지수	21
<표 3-2>	수산물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방법	23
<표 3-3>	개별시장에서 국별 수산물 무역결합도 지수(2002년 기준)	23
<표 3-4>	수산물 산업 내 무역지수 분석방법: 그루벨-로이드(GL) 지수	25
<표 3-5>	GL지수를 이용한 산업 내 무역의 상호 보완관계	25
<표 3-6>	품목별 산업 내 무역지수(Grubel-Lloyd Index)	26
<표 3-7>	수산물 수출유사성지수 분석방법	29
<표 3-8>	한중일 수산물 분류 단계별 수출유사성지수(ESI)	29
<표 3-9>	수산물 무역특화지수 분석방법	30
<표 3-10>	국가별·품목별 무역특화지수(2003년 기준)	33
<표 3-11>	수출 및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방법	36
<표 3-12>	RCA지수를 이용한 한중일 수산물 경합 및 보완관계	37
<표 3-13>	국별·품목별 수출·입 RCA지수 추이	37
<표 3-14>	한국의 양식업 경영성과 분석	39
<표 3-15>	일본의 양식업 경영성과 분석	40
<표 3-16>	주요국의 양식 기술수준 비교	41
<표 3-17>	한국 대형선망어업의 경영상황	43
<표 3-18>	일본 대중형선망어업의 경영상황(동중국해 2구, 100200톤급)	44
<표 3-19>	한중일 수산업의 측정지표별 국제경쟁력 비교	46
<표 3-20>	한중일 3국의 수산물 품목별 경쟁관계 비교	47
<표 4-1>	세계의 수산물 생산 현황	49
<표 4-2>	FAO의 2010년 세계 어업생산 예측	49
<표 4-3>	한국의 수산물 공급구조	50
<표 4-4>	한국의 수산물 수요구조	51
<표 4-5>	한국의 어업별 생산량	51
<표 4-6>	한국 연근해 어업 어종별 생산량	52
<표 4-7>	한국의 수산물 류별 생산실태	53

<표 4-8> 한국 해면 양식어업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	54
<표 4-9> 한국 해면 양식어업 생산량 추이	55
<표 4-10> 한국의 어선등록 현황	56
<표 4-11> 한국의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56
<표 4-12> 한국의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57
<표 4-13> 한국의 수산물 계통판매 현황	58
<표 4-14> 한국의 수산물 소비지 도매시장의 취급량(율)	59
<표 4-15> 한국의 연도별 주요 소비자물가지수	60
<표 4-16>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무역수지	62
<표 4-17> 상위 20개국의 연도별 수산물 수입실적 추이	63
<표 4-18> 주요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실적 현황(2002년 기준)	64
<표 4-19>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수산물 점유율	65
<표 4-20> 한국의 대중·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	66
<표 4-21>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68
<표 4-22>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	70
<표 4-23> 중국의 지역별 어업생산량 및 주요 양식 품종(2002년)	70
<표 4-24> 중국의 수산물 류별 생산량 및 비중(2002년)	71
<표 4-25> 중국의 주요 수산품목별 생산량 추이	71
<표 4-26> 중국의 어업인구 현황	72
<표 4-27> 중국 해면어업 류별 생산량 추이	73
<표 4-28> 중국의 연도별 내수면 어업 생산량	74
<표 4-29> 중국의 양식생산량, 면적 및 단위 생산량	75
<표 4-30> 중국의 어선보유 현황	76
<표 4-31> 중국의 1인당 수산품 점유량 및 소비량	76
<표 4-32> 중국의 1인당 주요 부식품 소비량	77
<표 4-33> 중국의 소비지 시장 현황	78
<표 4-34> 중국의 수산물 가격 지수	79
<표 4-35> 중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80
<표 4-36> 중국의 수산물 수출실적: 상위 20개국별 추이(HS 03류기준)	81
<표 4-37>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기준)	83
<표 4-38> 중국의 수산물 수입실적: 상위 20개국 추이(HS 03류 기준)	84
<표 4-39> 중국의 수산물 수입실적: 상위 20개 품목(2002년 기준)	85
<표 4-40>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	86
<표 4-41> 일본의 수산물 수급구조	88

<표 4-42> 일본의 국민경제 중 어업이 차지하는 위치	89
<표 4-43> 일본의 어업 부문별 수산물 생산 추이	90
<표 4-44> 일본의 해면어업 주요 어종별 어획량	91
<표 4-45> 일본의 해면 양식수산물 류별 생산량 추이	91
<표 4-46> 일본의 연도별 사용어선 현황	92
<표 4-47> 일본의 1인당 연간 식료품 공급량	93
<표 4-48> 일본의 수산물 시장 현황	93
<표 4-49> 일본의 수산물 가격지수	94
<표 4-50> 일본 상위 20개국의 수산물 수출추이	96
<표 4-51> 일본의 수산물 총공급 대비 수입 수산물 비중	97
<표 4-52> 일본의 상위 20개국 수산물 수입 실적추이	98
<표 4-53> 일본시장에서의 주요 국별·품목별 수입구조(1999년 기준)	99
<표 4-54> 한중일의 수산업 구조 비교	101
<표 4-55> 한중일의 주요 어종별 생산 현황 비교	101
<표 4-56> 한중일의 수산물 교역구조 비교	102
<표 5-1> 한국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107
<표 5-2> 수산물 품목분류별(03류)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108
<표 5-3> 중국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MFN+협정관세+증치세, 2002년 기준)	110
<표 5-4> 중국의 수산물 HS 4단위 03류 실행관세율 구조(2002 기준)	111
<표 5-5> 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 구조	113
<표 5-6> 일본의 관세율 종류	115
<표 5-7> 일본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도 기준)	117
<표 5-8> 일본의 수산물 03류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도 기준)	118
<표 5-9> 일본의 어종별 수입현황과 관세율	119
<표 5-10> 일본의 대한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	121
<표 5-11> WTO의 비관세장벽 분류	122
<표 5-12> 한중일의 주요 비관세 조치 유형	123
<표 5-13> 중국의 수입수산물 중금속 함유량 기준	128
<표 5-14> 일본의 어패류 9종에 대한 수입할당 추이	129
<표 5-15> 대일본 수출 수산물의 쿼터량 제한 변동추이	130
<표 5-16> 한중일의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비교	131
<표 6-1> 우리나라 수산업의 SWOT 분석	136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7
<그림 3-1>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의 상호 경쟁·보완관계	31
<그림 3-2>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의 상호 경쟁·보완관계	31
<그림 3-3>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의 상호 경쟁·보완관계	32
<그림 4-1>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61
<그림 4-2> 중국 수산물 생산의 세계적 위상	69
<그림 4-3> 일본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95
<그림 5-1> 대중 수출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실제 경험사례	125
<그림 5-2> 대일 비관세장벽 유형별 수출업자의 의견	127

<요 약>

제 1 장 서 론

- WTO·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우리 수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왜냐하면, 그동안 취약산업인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리 수단으로서 활용해 온 우리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특히, 한중일은 수산물 생산 측면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며, 수출 면에서도 한·중은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이며, 한·일은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경쟁관계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 수산업 부문에서 한중일 간 경쟁관계 구명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개방 대책뿐만 아니라 수산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의 수산물 시장개방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중일 3국 간의 수산업 경쟁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업의 과제를 도출하고 시장개방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제 2 장 한중일의 수산물 시장개방 정책 동향

- WTO·DDA 수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본질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도 일정 수준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가 우려됨. 반면 다른 국가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도 완화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많은 국가들이 세계의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2004년) 4월 1일자로 남미의 수산대국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지난 11월 말에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음. FTA가 아니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내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해지므로,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하여 세계시장의 개방화 파고를 넘어야 함
-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연근해 자원의 감소와 과잉 어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자원 이용, 양식산업의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정책의 변화를 유도하였음. 이러한 생산증대정책에 맞추어 수산물 수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등을 수산물 수출시장으로 하는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통하여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확보하고자 함
- 한때 12,000천 톤에 이르던 일본의 어획량이 향후에는 1997년 수준인 약 6,000천 톤의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은 자원보호와 잠정수역의 문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진행시켜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세율 인하의 문제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수산물 시장개방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제 3 장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 한중일 3국 간 수산업의 국제경쟁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다양한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 한중일 3국 간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5가지의 국제 경쟁력 지수 즉 무역결합도지수(TII), 산업내무역지수(GL), 수출유사성지수(ESI),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였음. 이는 국제경쟁력 분석방법을 수산부문에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 및 분석방법의 상이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복수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 여러 가지 국제경쟁력 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측정지표	한중일 국제경쟁 분석 개요
무역결합도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의 보완관계가 중국과의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강함 - 한국시장에서는 활어, 신선냉장어류는 일본과, 냉동어류는 중국과의 보완정도가 높음. 일본시장에서는 냉동어류가 한국과의 상호보완정도가 가장 높음(※대체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GL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내 무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보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완성이 높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냉동 넙치, 가자미, 서대 등 15개 품목 · 일본: 냉동 연어류, 가다랭이 등 9개 품목 · 중국: 냉동 가다랭이, 뱀장어, 기타 냉동어류 등 18개 품목
수출유사성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은 전반적으로 수출경합도가 매우 낮아 수산물 수출품목 구조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경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일의 수산물 수출구조는 서로 상이하여 상호 보완관계로 볼 수 있음. 이 결과는 분석대상이 포괄적인 것으로 개별 어종별 해석에서는 주의를 요함
무역특화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많으며, 특히 완전수출특화품목이 많음 -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완전수입특화품목이 많은 것이 특징
현시비교 우위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와 계류 및 기타 수산물에 대해 일본과 상호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일본의 경우 상호보완관계로 나타남 - 한국과 중국의 경우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와 계류 및 기타 수산물은 상호 경합관계에 있는 반면 건조·훈제·염장 어류와 갑각류·연체류는 상호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 무역특화지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중일 각국의 수산물 품목별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과 수입의존품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	수입의존 품목
한국	냉동가다랭이, 신선냉장피레트, 간장과어란, 염장·염수장어류, 굴, 오징어, 기타연체동물(산것)	관상용 활어, 기타어류, 연어류, 냉동정어리, 냉동상어, 냉동어육, 닭새우류, 새우와보리새우, 게, 기타 갑각류, 가리비, 홍합, 문어
중국	기타활어, 간장과어란, 피레트, 기타냉동갑각류, 굴, 가리비, 홍합, 문어 등 대부분의 품목	연어류, 냉동넙치, 냉동가자미, 냉동청어 등
일본	가리비, 훈재어류, 문어등	활뱀장어, 기타활어,간장과어란, 연어류, 넙치, 냉동청어, 대구, 고등어, 정어리, 상어, 뱀장어, 기타어류, 피레트, 갑각류 등

제 4 장 한중일의 수산업 부문별 구조 분석

- 한중일 3국의 수산업을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수산업이 가지는 규모는 한국과 일본이 GDP 중 각각 0.6%, 0.4%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약 1.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어업인구 면에도 한국과 일본은 총인구 대비 0.3%와 0.2% 정도의 미미한 수준과 노령화로 인한 어촌 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으나, 중국은 총 인구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인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원인은 경제성장의 발전정도가 느린 중국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임에 반하여 중국의 수산업은 타국 1차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획득하고 있다는 데 있음
- 또한 한중일 3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수산물은 공동어장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한국의 주요 10대 수산물 생산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 순위권 안에 들고 있는 수산물은 중국의 경

우, 멸치류, 고등어류, 오징어류, 전갱이 등이고 일본은 멸치류, 고등어류, 갈치류, 조기류, 삼치류, 전갱이류 등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 소비 측면에서는 수산물 소비형태,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수산물 가격 등의 요인을 알아보아야 하지만, 각 국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비교하였음.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중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을 나타냈는데,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하여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의 경우에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은 비슷하며, 중국은 내수면 생산어종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2001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
GDP 비중	0.6%	1.5%	0.4%
어가인구(천 명)	128(0.4%)	19,422(1.5%)	205(0.2%)
생산량(천 톤)	2,665(세계 12위)	43,821(세계 1위)	6,093(세계 3위)
어선 척수(척)	94,935	479,810	204,162
1인당 연간 소비량	30.7kg	10.7kg	35.8kg
주요 생산 수산물	멸치, 고등어, 갈치, 삼치, 굴, 김, 미역 등	멸치, 고등어, 갈치, 삼치, 가리비, 홍합, 다시마 등	고등어, 전갱이, 꽁치, 대구, 정어리, 굴, 가리비 등

-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1년에 처음으로 4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도 8억 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중국의 수산물 무역수지(2001년)는 27억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은 1,200만 톤 이상의 수산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 수요의 50% 이상을 수입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수산물 수입액의 약 1/4을 일본이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산물 수입국임. 금액으로 연간 150억 달러, 중량으로 연간 600만 톤 이상을 수입하고 있음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수산물 교역	수입	1,585,243 (1.12)	1,319,019 (0.54)	13,394,308 (3.83)
	수출	1,139,667 (0.76)	3,996,459 (1.50)	755,426 (0.19)
	무역수지	-445,576	2,677,440	-12,638,882
수산물 수출입 위치		세계 14위 수출국 및 12위 수입국	세계 2위 수출국	세계 1위 수입국
수출입 구조		일본으로의 수출집 중도 약화	한국 및 일본시장으 로의 수출 증가	중국 및 동아시아로 의 수입 다변화
주요 수출품목		굴,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위주	조기, 갈치, 민물장어, 꽃게, 오징어류	연어, 가다랑어, 다랑어, 새치류, 가자미
주요 수입품목		조기, 갈치, 명태, 공치, 꽃게	대구, 갑오징어, 새우, 가자미, 갈치	고등어, 연어, 새우, 가다랑어, 뱀장어류
수출입 특징		일본시장 내 점유율 하락(6%대)	북한 수산물의 수입 이 증가(수입순위 3 위)	중국으로부터의 맞 춤 생산 증가 및 양 식어 수입 증가

주:1) ()안의 수치는 각국의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001년 기준
2) 2000년 기준

-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수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일본에게만 집중되는 편중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일본산 고급 활선어의 수입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경쟁은 전 품목에 걸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됨

제 5 장 한중일의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장벽

- 각 국은 WTO·DDA 협상 및 FTA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국 산업의 특성을 내세워 시장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시장개방화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수단은 크게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임

- 이들 조치는 시장개방화 과정에 있어서 수출국에게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수입국에게는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WTO/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우리 수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도 1차적으로는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의 합리적인 활용에서 구할 수밖에 없음
- 2002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HS품목은 총 40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총 321개 품목, 중국은 총 188개 품목임. 한국과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실행관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본은 실행관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실행관세	03류	실행관세	03류	실행관세	03류
총품목수	403		322		188	
관세율 구조	12단계	9단계	39단계	27단계	28단계	17단계
평균 관세율	18.64%	17.63%	25.69%	25.74%	5.84%	5.47%

주 : 중국의 실행관세는 증치세를 더해 산출함

- 비관세 조치란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이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의 선별적 규제로 정의됨. 이 같은 비관세 조치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용에 있어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여 관세장벽에 비해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큼
- 여기서는 한중일의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으로 수산물을 1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392개(대일 122, 대중 277)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응답업체의 90%는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이 직·간접적으로 수출 업무에 차질을 주며 결과적으로 자국 내 수입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의 대중 수산물 수출업체가 비관세 조치로 제시한 것은 통관문제, 가공조건, 선적 전 검사, 기술장벽 순이며 대일의 경우 가공조건, 생산조건, 수입규제, 통관조건 등을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였음

제 6 장 우리 수산업의 과제와 시장개방 대응방안

○ 시장개방 대비 수산업의 과제

- WTO나 FTA에서의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던 수산업 보호장치의 제거 또는 완화를 의미하는 것임. 반면에 중·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도 완화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여건도 개선될 여지가 있음. 특히, 축소 경향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한중일은 수산물 생산 측면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며, 수출 면에서도 한·중은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이며, 중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도 한·일은 최대의 경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국내시장에서도 중일수산물은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시장개방화시대에 이러한 한중일 3자 간 수산물 수출입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국내의 수산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기회와 우려 그리고 강점 및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수산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요약하면, 첫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수산업이 산업으로서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함. 둘째, 수산업의 특성 및 우리나라 수산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협상전략이 도출되어야 함. 셋째,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임. 넷째, 수산물의 수요가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수산물 자급률의 하락은 수산물 수입 증대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음. 따라서 품목에 따라 선택적인 수입확대와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관리 강화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다섯째,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에 병행하여 국내 수산업의 적정규모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의 시장개방 대응방안
 -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은 주요 쟁점 및 협상 대상국에 따라 다양한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수산물 시장개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WTO·DDA 협상과 예상되는 협상 이후 국내 수산정책의 전환과 연계시킨 전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도하개발아젠다가 채택될 무렵과는 상황이 많이 변화했으며 협상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매우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시장개방 협상결과에 대한 국내정책에 대한 사전 반영 속도가 매우 둔감함. 둘째,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 즉, 식품으로서의 수산물, 수산물의 안전성, 유한자원으로서 수산자원, 품목별·지역적·해역별 수산업(수산물)의 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셋째, 관세 중심의 협상으로는 무역자유화에 비중이 높일 수밖에 없으므로, 무역자유화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관세 조치를 포함시킨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수산물 시장개방 대비 국내대책으로서 첫째,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산정책으로의 비중 전환이 필요함. 둘째, 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자립체제를 강화하여야 함. 그리고 시장개방시대에 경쟁력 있는 우리 수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첫째, 영세수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수산물에 대한 소비형태(활어 중심에서 선어, 가공품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소비량을 조절하고,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요리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감모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셋째, 고부가 가치상품의 개발 및 적극적인 수출을 통하여 무역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수산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한중일 FTA와 수산업의 대응방안
 - 한중일 FTA 체결에 있어서 수산업 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규모 면에서 축소과정에 있는 산업이며 수출에 있어서는 대일본 의존형, 수입에 있어서는 대중국 의존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상되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및 어업경영의 체질개선

을 고려하여 FTA 체결 협상이 추진되어야 함. 둘째, 일본의 IQ제도의 철폐에 대한 반대를 협상과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IQ 수량제한을 관세화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셋째, 일본과 중국은 자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넷째, 중·일 양국의 향후 소비패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수입수요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일 수산물 수출에 지나친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관세인하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비 증대 및 어류 생산 위축으로 일·중의 수산물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다섯째, 한중일 FTA 체결은 수산물 수입국가인 한·일의 경제통합이므로 장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수출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국의 수산물이 한중일 역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산업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수산물 수급 불균형에 의해 역외산 수산물의 역내 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 시장개방 대비 수산물의 수출입관리방안

- 시장개방시대에 예상되는 급격한 수산물 수입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산물 수출에 대하여 양적 증대 및 질적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수산물의 합리적 수입관리방안으로 첫째, 저관세율 시대에 조화로운 관세제도의 개선, 둘째, 수입수산물의 국내유통 투명화 및 차별화, 셋째,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이력추적시스템의 적용, 넷째, 수입업자의 난립에 의한 중복수입이나 과잉수입의 방지 등을 제시함
-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물 비교우위의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 증대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궁리가 필요한데, 완전 개방화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공격적인 관점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
- 첫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시장구조는 대일 의존적 시장 편중현상이 심하여 일본의 국내여건 변화, 특히 엔화환율의 변동, 일본의 재고량과 생산량, 기타 외생적 요인에 의해 종속적임. 따라서, 수출시장의 다변화

는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 둘째, 새로운 수출전략지로서 중국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 중국은 공간적으로 광활한 국가로서 지방정부별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형태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가 많거나 경제발전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지방정부별로 수산물 소비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통해 국내업체의 수산물 수출을 지방정부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셋째, 국제경쟁력의 유지·확보를 위해 수출상품의 품질 비교우위 확보, 수출상품의 지속적 창출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수산물 수출구조를 고도화하여야 함.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수출주도품목 또는 중점 육성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수출 공급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함
- 넷째,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공급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임. 수출공급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연근해 어업관리의 합리화에 부가하여 신어장 개척을 통한 유통·가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제3국으로의 수출 전략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근해 어업은 적정자원 관리체제의 구축, 상품성 제고를 위한 어업생산 및 처리기술 개선, 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대한 어민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양식어업은 전략적 품목분류 및 선별적 육성, 특화양식품목의 지역별 조정 및 단지화, 어장이용의 적정화와 우량어장 확보,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의 고급화가 요구됨.
- 다섯째, 연근해 생산어류는 대부분 활선어, 냉장·냉동의 원형상태로 수출되기 때문에 어체의 손상은 상품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체의 손상은 부패 및 변질을 촉진함으로써 선도를 급격히 저하시켜 가공원료로서의 가치도 크게 저하시키게 됨. 대일 수출 붕장어의 경우 일본의 하역항인 시모노세키항(下關港)까지 활어상태로 수송하여 양륙과 동시에 가공하는데, 이는 냉장 혹은 냉동상태로 수송할 경우의 육질

경화와 성분 변화에 따른 맛의 변화를 고려한 것임. 수산상품의 고상품 성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의 어획물 채포 및 처리가 가장 중요함. 따라서 어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구어법을 개량하고 선상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여섯째,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혜의 어항과 함께 수산관련 대학, 연구소, 자치단체, 민간유통업체들을 활용하여 그 지방에 맞는 수출주도제품 개발이 필요함. 남해안 및 서해안은 지리적으로 산·학·연·관 협동연구가 매우 용이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산가공 부문에 관해 원활한 산·학·연·관 협동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상에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산업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적 한계 및 관련자료 입수의 곤란 등으로 종합적인 결론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이러한 한계를 넘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여건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입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연근해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외화를 가득하여 국민경제 발전의 동력원으로서 수산업을 활용하여 왔다.

1995년 WTO 출범 이전의 GATT¹⁾ 시대에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수산물 수출입 정책이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수산물 교역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6년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uguai Round)²⁾ 협상의 시작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정책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수산물 수출입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변화란 세계 수산물 시장에 있어서 무한경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수산물 수출에 있어서 가격 및 품질 경쟁의 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입에 있어서 정부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활용해오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
- 1) WTO의 전신인 GATT는 2차 세계대전 후 주요 국제경제 협력체제로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창설이 채택된 Bretton Woods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하였음. 1945년 UN의 하부기구로서 국제무역기구(ITO)의 기초 헌장에 동의한 50개국 중 23개 회원국들이 최초의 GATT 회원국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무역자유화와 1930년대부터 잔존해 있는 광범위한 보호무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1946년 GATT 창설한 23개 체약국들 사이에서 관세협상이 시작되었으며, 협상의 첫번째 라운드에서 세계무역의 5분의 1인 100억 달러에 영향을 주는 45,000개 품목의 관세가 양허되었음. 이것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명칭되어 1948년 1월에 발효되었음.
 - 2) 국제무역자유화를 향한 가장 큰 도약은 GATT 체제하에서 다자 간 무역협상(trade round)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최종적인 것이며 가장 광범위한 것이었음. GATT는 그동안 8차례의 다자 간 무역협상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free and fair trade)을 증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95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함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를 승계한 세계무역기구로서 앞으로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됨.

1995년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세계 상품시장의 자유화, 개방화는 질적 양적으로 계속해서 확대·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WTO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상품시장의 자유화, 개방화의 범위 및 속도는 WTO 체제를 출범시킨 본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WTO의 개방화 추진결과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로서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WTO 각료회의의 협상 실패는 회원국들에게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

이와 같이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두 축에 의해 세계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및 동북아시아의 국가들도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자국의 이익과 연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2002년 1월에 싱가포르⁴⁾와 처음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였다. 또한 금년(2004년) 3월에는 멕시코와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었고, 계속해서 대만, 아세안 등과의 FTA도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및 아세안과 EU,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남미공동시장과의 FTA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WTO 협상결과를 이행하는 것과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서 거점별·지역별 연계망 구축을 위해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협정체결을 동시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WTO·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입장이 어려운만큼 수산업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취약산업인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관리 수단으로서 활용해 온 우리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완화 또는 철폐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수산업은 각국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로 다르지만, 수산물 생산 및 수

3) 2003년 6월 현재, 180건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며, 세계 총 무역량의 절반 가량이 FTA 회원국 간 자유무역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FTA 체결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2005년에는 약 300개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세계의 3대 'FTA Hub' 국가인 싱가포르는 38개국과, 멕시코는 32개국과, 칠레는 38개국과 FTA를 추진 중임.

출입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산업은 국내적으로는 총생산 중 1% 미만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세계 1위의 수입국이자 수산물 최대 소비국이며, 우리나라도 수산물 생산량과 수입 면에서 세계 9위(2001년 FAO 통계 기준)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수산물 생산국으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정도로 수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그뿐만 아니라 한중일은 수산물 생산 측면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으며, 수출 면에서도 한·중은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이며, 한·일은 중국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경쟁관계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 간의 수산업관계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 한중일 간 경쟁관계 구명은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개방대책뿐만 아니라 수산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중일 3국 간 수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수산업 구조 분석을 통하여 경쟁관계를 명확히 하고, WTO/DDA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협상 및 다양한 FTA 체결에 있어서 우리 수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WTO/DDA 수산물 협상과 예상되고 있는 한중일 FTA 체결 협상에서 우리 수산업이 취해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과 수산물 수출입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의 수산업 경쟁관계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양국의 수출 및 수입을 대상으로 경쟁력 분석을 위주로 되어 왔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수산업 부문의 경합 또는 보완관계를 품목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특히, 한국 외에 일본과 중국의 수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3국 상호 간의 수산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경합 또는 보완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동안 수산물 무역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를 보면 첫째, 국제무역 자료를 활용한 국가별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연구, 둘째, 교역 당사국의 수출입 교역 현황과 구조 분석, 셋째, 산업 내 무역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의 경우, 주문배 외⁵⁾는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1999)」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수산업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WTO 뉴라운드 대비 수산물 HS 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2001)」에서는 일본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위치를 살펴본 후에, 수산업 품목별 수입 점유율 분석을 통해 일본시장에서 경쟁국 간의 품목별 경쟁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의 대응방안(2002)」에서는 우리 수산업이 수산물 생산대국 또는 수출대국, 수입대국 등과 FTA를 체결할 경우로 구분하여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한일 FTA 및 한미 FTA를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수산업 경쟁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번째 경우, 장영수⁶⁾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성격구분에 관한 연구(1997)」에서 세계 교역환경 변화와 각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경우, 김승진⁷⁾은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경쟁력과 산업 내 무역의 변화추이」에서 한·미·일 3국의 특정 품목(공산품 중심)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과 산업 내 무역의 요인 및 변화추이에 대한 정태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어명근⁸⁾은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에서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을 통해 한중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산업 내 무역의 경합과 보완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5) 주문배 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1999). WTO 뉴라운드 대비 수산물 HS 품목별 관세인하 영향과 대책(20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분야의 대응방안(2002).

6) 장영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산물 수입의 성격구분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논집」, 제28권, 1997.

7) 김승진, 「환율변동에 따른 국제경쟁력과 산업 내 무역의 변화추이」, 한국경제연구원, 1987.

8) 어명근 외,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표 1-1> 선행연구의 유형별 사례

구분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비교우위 분석	주문배 외 (1999)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 등을 이용하여 한·중·일·미를 비롯한 세계의 수산물 주요 수출입국을 대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협상전략을 제시
	주문배 외 (2002)	한·중·일·미 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대비한 수산업 부문 경제효과와 시사점 제시
산업구조 비교	장영수(1997)	세계교역환경변화와 국각의 수산물 수급구조 및 특징을 분석
경합 및 보완관계	김승진(1987)	제조업의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한·미·일의 산업 내 무역요인 및 비교우위를 분석
	어명근, 최세균 외 (2003)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분석을 통해 한중일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및 무역의 경합과 보완관계 등을 분석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수산물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기초 조사연구로서 시장개방화에 따라 우리 수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의 수산업 부문별 경쟁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시장개방화와 수산물 시장개방화 정책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WTO 시장개방화 및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을 고찰하고, 아울러 한중일 3국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수산물 생산(양식어업 및 어선어업)부문과 수산물 교역 부문을 중심으로 경쟁력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서의 경쟁력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기본으로 과거 및 현시점의 3국 간 수산업 국제경쟁력을 분석

하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수산업 세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장기 추이와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 부문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소비 부문, 수산물 수출입 부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런데 3국 간 수산업 부문의 비교 단위 및 수준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요인을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수산물의 시장개방화 협상결과에 따라 완화 또는 제거의 대상이 될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수출입하는 우리나라의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당업체가 경험한 무역장벽(제도적, 비제도적 조치 포함) 중 주요한 조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수산업의 과제와 시장개방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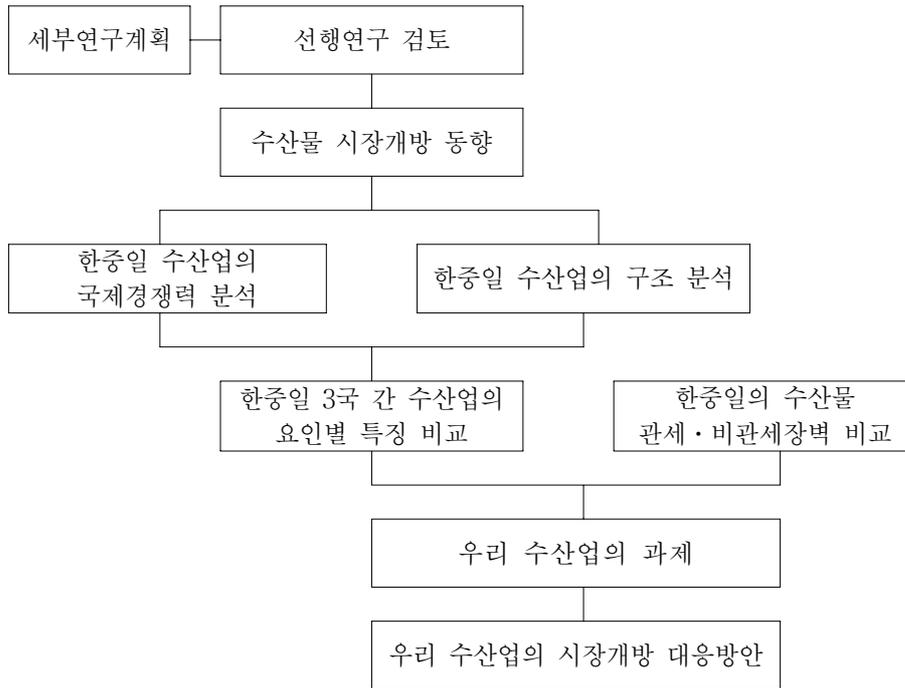
연구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헌조사를 통한 한중일 3국 간 부문별 요인 비교방법과 경쟁관계 구명을 위한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한중일 3국 간 통계자료의 발행유무, 통계수준 및 수집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중일 3국의 동일 단위 및 수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우선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유사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2차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는 현지출장이나 관련 분야의 현지 전문가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 간 수산업 부문에 대한 경쟁관계를 구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일 양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산물 시장개방협상에서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의 수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다발적으로 추진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시장개방 협상에 있어서 협상대표의 의사결정자료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한중일의 수산물 시장개방 동향

1. 세계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논의 동향

1) WTO 시장개방화 논의 동향

2001년 11월 확정된 DDA(Doha Development Agenda) 즉, 도하개발아젠다는 WTO 체제하에서 이루어낸 첫 번째 다자 간 무역협상 아젠다로 수산 분야에서는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거나 무역을 왜곡하는 일부 수산보조금의 규제 문제와 수산물 관세 인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2003년 9월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쿰 각료회의)에서 소기의 협상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명시한 2005년 1월 1일 협상기한은 다소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협상결과는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체계 및 수산물 교역구조, 자유무역협정 등 수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수산보조금 협상

2002년에는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총 5차례의 협상(회의)이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개최되었는데 수산보조금을 현행 체제대로 제조업, 임업 등 기타 산업의 보조금과 같이 다룰 것인지(general approach) 또는 별도로 다룰 것인지(sectoral approach)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을 주축으로 한 소위 “Fish Friends Group”은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현행 보조금및상계조치에 관한협정(SCM :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으로는 이러한 수산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규제할 수 없으므로 수산보조금을 다른 보조금과 따로 분리하여 논의하고, 별도의 규범을 제정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현행 SCM협정으로도 수산보조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수산보조금은 제조업, 임업 등 기타 산업의 보조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표 2-1> 참조).

〈표 2-1〉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입장

우리나라 및 일본	Fish Friends 10여 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수산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것은 확실치 않음 ○ 수산보조금은 현행 WTO 체제대로 제조업, 임업 등 기타 산업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어져야 함 (general approa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보조금은 무역왜곡과 수산자원고갈의 주요인임 ○ 유해한 수산보조금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규범을 만들어야 함 (sectoral approach)

자료 : 해양수산백서(2004).

2003년에는 미국, 칠레 등이 수산보조금분류방식을 제시하는 등 수산보조금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규범 제7차 회의(3월 19일~3월 21일)’에서 미국은 제안서를 제출하여 직접적으로 과잉어획을 유발하거나 직접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지는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red category)’에 포함시키고, 보조금 지급 국가가 동 보조금이 환경이나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되는 이른바 ‘dark-amber category’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규범 제8차 회의(5월 6일~8일)’에서는 EU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어선건조지원 및 제3국으로의 어선 수출 지원 등 어획능력을 증강시키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어업인 전직지원, 어업능력 감축 등은 ‘허용보조금(green category)’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DDA 협상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및 ‘협상세부원칙(Modalities)’에 대한 기본골격을 채택하기 위하여 ‘제5차 각료회의(2003년 9월 10일~9월 14일)’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으나, ‘싱가폴이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향후 협상지침이 될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하고 폐막되었다.

그러나 수산보조금은 이슈과약 단계에서 해결방법 모색 단계로 전환하기로 상당부분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바, 향후 수산보조금 분류(금지, 허용) 및 규제 방법(폐지,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에 대한 개정협상 돌입이 예상된다.

(2) 수산물 관세/비관세 협상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 결과, 도하개발아젠다에서 수산물 시장접근 협상은 공산품, 임산물과 함께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었다.

2002년도에는 관세 인하방식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2010년까지는 스위스 공식을 사용하여 전 품목의 관세를 8%이하로 인하하고, 수산물 등 국제거래가 많은 17개 품목은 무세화하는 한편, 2015년까지는 비농산물 전 품목을 연차별 균등감축을 통해 무세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캐나다·뉴질랜드·칠레 등이 동조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반대하였다(<표 2-2> 참조).

<표 2-2> 관세 인하 문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우리나라 및 일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등
◦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물 무세화에 반대하고, 점진적인 관세 인하 주장	◦ 수산물 무세화 주장

주 : 각국의 수산물 평균관세를 보면 한국 18%, 일본 6%, 칠레 6%, 미국 2%, 캐나다 1.8%, 뉴질랜드 1%, 호주 0% 등임.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백서」, 2004.

2003년 5월 16일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의 기랄드 의장은 협상방식결정 타결시한인 5월 31일을 앞두고 의장초안을 배포하였다. 동 초안은 200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i)관세감축공식(formula), ii)분야별무세화(sectorial tariff elimination), iii)개도국 특별고려(S&D), iv) WTO 신규가입국배려, v) 저율관세(low duties)철폐 등을 주요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관세감축에 대한 의장초안은 첫째, 모든 품목을 감축대상으로 하되, 높은 관세율은 감축폭을 크게 하고 낮은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변형된 ‘스위스 공식’을 제안했고 둘째, 개도국 및 최빈국의 수출관심 분야인 수산물, 전자·전기, 신발류, 자동차 부품, 가죽제품, 광석·보석, 섬유·의류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무관세를 제시함에 따라 초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는 국내수산업계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앞으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협상세부원칙(modalities)'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에서는 기랄드 의장의 초안은 협상의 기초가 아닌 '참조(reference)'로 완화되고, 무세화 대상품목 등은 추후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므로 이후 협상안에 대한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품목별 양허여부, 관세 인하폭,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시장접근은 본질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도 일정수준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수산물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 반면 다른 국가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도 완화될 것이므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수산업의 취약한 여건을 감안하여 수산물이 무세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관세 인하공식 적용시 민감품목으로서의 신축성을 확보하여 우리 수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우리 수산업의 발전계기가 되도록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2) 자유무역협정 추진 동향

(1) 세계의 FTA 추진동향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추세에 따라 지금까지 소지역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세계의 경제블록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경제의 통합에 대비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FTA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어 2005년 말 경에는 300여개의 FTA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4년 4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의 지역경제협정은 자유무역협정이 142개, 관세동맹이 15개, 서비스협정이 34개, 개도국 간 지역협정이 17개 등 총 208개가 발효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아시아 지역은 26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 중에 있다.

따라서,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출주도형인 우리경제는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년 내에 세계는 대륙 차원의 2개의 거대한 무역블럭(EU동진, 범미주 34개국 FTAA)이 출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타 대륙

간 FTA에 EU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 태국, 미국, 멕시코, 칠레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ASEAN과 FTA 조기 체결을 위해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NAFTA, EU 등의 경험에서 볼 때 협정 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관세철폐효과에 그치지 않고 시장확대에 따른 무역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개방과 경쟁에 따른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FTA에 의해 확대된 경제협력이나 정치경제관계 강화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FTA 확산에 소외된 지역이었으나, 최근 ASEAN+3(한·중·일) 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 FTA 추진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일본이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거쳐 2003년 하반기부터 정부 간 공식협상에 들어갔으며, 또 ASEAN과 경제동반자관계(EPA)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10년 안에 양자간 FTA를 체결하기로 했다. 중국도 ASEAN과 2010년~2015년까지 FTA를 맺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한중일은 FTA 체결을 목표로 2003년도 3국 공동 연구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묶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창설, 즉 EU나 NAFTA와 같은 거대 경제권의 탄생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뜻이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 정책기조

지난 2004년 4월 1일자로 우리나라와 남미의 수산대국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지난 11월 말에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었다. 정부 간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남짓의 짧은 기간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5년여를 끌어왔던 칠레와의 협상에 비하면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이러한 FTA 협상 타결속도의 변화는 세계의 시장개방화 추진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협정 당사국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

적인 영향을 크게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FTA가 아니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DDA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내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하여 세계시장의 개방화 파고를 넘어야 한다. FTA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다. 우리 경제에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대상국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며, 전체 산업과 부분 산업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양질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협정 상대국의 산업적 특성에 따른 협상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추세를 감안하고,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해 나가되, 전략적 필요성과 타당성 및 국내 취약산업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FTA로 인한 피해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칠레, 싱가포르 이외의 개별 국가인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02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거쳐 2003년 12월부터 정부 간 공식협상에 들어갔다. 또 아세안과의 FTA 공동연구도 완료하고 2005년부터 공식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북미지역 진출 거점국가인 멕시코와의 FTA 추진문제를 올해 중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중국, 한중일 간 FTA 문제는 공동연구 등을 통해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있다.

FTA 체결 대상국들을 추진기간 또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 단기 추진 대상국으로 현재 발효 또는 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칠레와 싱가포르이며, 둘째, 정부 간 또는 민간 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EFTA, 멕시코, 중 일이며, 셋째, 정부 간 협상 중인 국가는 일본과 아세안(2005년 예상)이며, 넷째,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태국, 뉴질랜드 등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해 공동연구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국,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 EFTA 회원국 등은 수산물 생산대국이자 수출대국으로서 우리 수산업에 위협적인 존재이다.

<표 2-3> 우리나라의 FTA 추진 상황(2004년 11월 말 현재)

추진단계	해당국가(지역)
발효 또는 타결	칠레, 싱가포르
공동연구(정부 간, 민간포함)	EFTA, 멕시코, 중일
협상	일본, 아세안(2005년)
중장기 검토	미국, 중국, 동북아, 아세안+3, EU, 태국, 뉴질랜드 등

주 : 현재 공동연구 및 공식협상 등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필자가 작성한 것임.

2. 한중일의 수산물 시장개방 정책 동향

1) 한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우리나라 수산업은 WTO·DDA 다자 간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보조금 철폐 주장의 확산, 국제기구에서 자원관리의 강화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압력과 연근해 어장의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자원감소로 인하여 최근 수산업이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은 수산물을 어획하는 지금까지의 생산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수산자원의 보호 및 기르는 어업을 강화하여 불법 및 과잉 어획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안정적인 수입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절대빈곤의 탈출이라는 경제개발정책을 바탕으로 수산물 수출진흥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1970년대 수산물 수출 진흥기를 경험하였다. 1980년대 품목 다양화와 수출국 다변화, 수출추천품목의 선정 등을 통하여 수출진흥책을 이어나갔으나, 1990년대 들어와 국내 수산물 생산이 감소 추세에 따라 수산물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수산물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적 조치를 중심으로 시장개방화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1946년 이래 1955년 후반까지는 품목별 수출입면허제와 수입할당제를 실시하였으며, 허가 또는 금지되는 수출입 품목의 명세를 포함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의 무역계획을 발표하고 수입허가 품목목록에는 반기별 쿼터를 명세화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이후에도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는 계속 실시되었으나, 1964년 정부는 전면적인 수출입 링크제를 폐지하고 반기별 무역계획에 포함된 수입쿼터 품목을 축소함으로써 비관세 수입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러한 수입쿼터 품목은 점차 축소되어 마침내 1967년 상반기 수출입 공고부터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수산물의 경우, 1966년 수산청이 발족함에 따라 같은 해 하반기부터 무역계획 중 수산청 추천분에 대한 수입추천요령이 공고되었다. 1967년~1977년에는 당시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변경시키는 등 산업·무역 정책분야에서 정부는 무역자유화를 취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수입을 줄이기 위해 1968년부터 수입부담금 적립제를 강화하기도 하였으나 1970년에는 지정지역에 대한 수입부담금 적립제도는 폐지하였다.

1982년에는 생산어업인의 소득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는 비대중성 어종과 국제경쟁력이 갖추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수입될 수 없는 수출 주도 품목 등 23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입을 자유화하였으며, 1986년 이전 기간 동안의 수산물 수입추이는 주로 수출용 원자재 위주로 수입되었다. 또한 1977년까지 전면 금지되었던 내수용 수입이 1978년에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산물의 국내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국내물가 안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대중성 어종도 수입하기도 하였으며, 해외합작사업에 의한 어획물 중 해외의 비기호품과 현지 수출 불가품의 국내반입을 위한 수입도 허용되었다.

1986년 UR협상에서 수산물은 임산물과 함께 시장접근그룹에 포함되어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산업 구조 및 국제경쟁력의 취약성을 감안하여 무세화나 관세하향 평준화를 핵심으로 하는 관세 조화방식이 아닌 관세 인하방식으로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수산물의 수입개방은 1986년의 세율과 1988년의 무역수입액 가중치를 기준으로 약 32.3%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1990년 7월 각국이 관세양허계획(IRP : Initial Reduction Plan)제출에 합의하고 양자협상을 통하여 무역상대국에 대해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0년 11월 협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허가 불가피한 품목 144개에 대한 양허계획(C/S)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1989년 10월 26일 GATT/BOP(국제수지위원회)에서는 한국이 1986년부터 3년간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불허를 결정하였다(소위 BOP 결정). 따라서 한국은 수입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이행하여 1997년 7월 1일자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개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1986년 이전 수산물 시장개방화 정책은 수입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방법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허용하는 품목도 수출용 원자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예외적으로 국내물가 안정과 국산품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세계의 시장개방화 추세 및 국내 수산물 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수산물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1년에 수산물 무역수지에는 72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02년에는 수입 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수급에 있어 약 41.7%를 차지하는 등 국내 수산물 수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수산물 시장개방 추세를 감안하고,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나가되, 전략적 필요성과 타당성 및 국내 취약산업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2) 중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중국은 1970년까지 자국 내 식량부족 해결과 도시거주민의 생활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수산물 저가 가격기조를 위한 생산 증대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970년대 말부터 연근해 자원의 감소와 과잉어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자원이용, 양식산업의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정책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는 해면어획의 생산조절과 자원보호 및 자원증식 방법 개선과 함께 양식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이러한 결과, 중국은 전 세계 양식 생산량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양식어업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러한 변화는 해면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수산물 공급 부족을 해소함과 동시에 수산물 소비의 대중화에 대한 기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수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3년에 2,100천 톤의 수산물을 수출하여 전년보다 1%의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수출금액은 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전체 수출량에서 수산물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67만 톤(전체 수출량 중 약 35.6%)을 나타내고 있으나, 단순가공형태와 브랜드화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가격은 농산물 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낮은 내수가격으로 인하여 수산물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의 수산정책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기조는 내수면 양식어업의 개발 촉진을 들 수 있다.

1978년 중국의 내수면 어로 생산량이 전체 내수면 생산량 1,058천 톤의 약 28%인 264천 톤을 나타냈으나, 2001년에는 내수면 어획어업이 2,150천 톤으로, 전체 내수면 생산량 18,220천 톤의 11.8%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내수면 양식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생산 증대정책에 맞추어 수산물 수출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과 함께 의무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는 관세 및 비관세 양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 한국 등을 수산물 수출시장으로 하는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통하여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3)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1974년 국내생산이 12,000천 톤에 이르렀던 일본은 1997년 6,720천 톤의 생산량을 나타내 거의 절반수준으로 낮아졌으며, 향후 어획량은 1997년 수준인 약 6,000천 톤의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양식생산

9) 「中國漁網」, 2004. 7. 12.

은 종전의 1,000천 톤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천 톤 정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과잉어획, 해양환경의 악화, 어업종사자의 감소 및 고령화, 어업의 고비용화 등의 요인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인한 원양어업의 침체 및 자국 수산업에 대한 WTO의 보조금 지급 중지 등의 요인 등이 있다. 이에 일본은 적절한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자원유지의 생산적 측면을 강조하고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산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4년 3월 16일 자민당 수산기본정책추진의원협의회의 연구모임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화 정책을 살펴보면, 동 위원회에서 '무역추진이 자원보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특히 한국과 FTA 교섭을 할 경우, 자원보호와 잠정수역의 문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단순히 '무역관세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수산 부문에 대한 개방 또는 자유무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¹⁰⁾

이러한 입장은 일본이 멕시코와의 FTA 체결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일본은 2003년 멕시코와의 수산물 무역 중 총 수입금액 75억 엔 중 약 47%를 차지하는 참치 수입에 대하여 관세의 완전철폐품목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어리와 오징어의 경우, 각각 10%와 5%의 관세에서 8%와 4%로 관세 인하 폭을 조정하였고 기본적으로 멕시코로부터의 IQ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 「일본수산경제신문」, 2004. 3. 18.

제 3 장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1.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방법

1) 국제경쟁력의 개념

한중일 3국 수산업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력 지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경쟁력 또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자료를 활용하여 측정 가능한 적정 지표를 선택하여 한중일의 수산업 부문 경쟁관계 즉, 경합과 분업(보완)관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 세계경제의 개방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경쟁도 수출경쟁시대에서 글로벌 경쟁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의 평가방법도 종래의 수출경쟁력 평가 위주에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¹¹⁾

수출이 국제적 거래의 주도적 수단이었던 수출경쟁시대에는 각 국의 생산비에 대한 비교우위가 국제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수출성가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수출국의 수출 공급조건의 변화 결과로서 해외시장에 대한 해당 수출국의 수출금액(수출량)이 다른 경쟁국들의 수출금액(수출량)보다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 해외시장에서의 해당국가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¹²⁾ 그러나, 전 세계시장을 무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는 각 국의 입지조건에 따른 비교우위보다 산업 특유의 경쟁우위가 국제경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¹³⁾ 여기서 경쟁우위란 입지적 조건에 의한 비교우위와 해당 산업의 차별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범위의 경

11) 권영철, “국제경쟁력 평가지표로서의 경쟁우위지수: 개념적 정립과 예비적 검증”, 「한국무역학회 정기학술회」, 1993.

12) J.M. Fleming and S.C.Taiang, *Changes in Competitive Strength and Export Share of major Industrial Countries*, IMF Staff Papers, 1956, p.219.

13) 권영철, *Op. cit.*(원저: D.Abell, *Defining the Business: The Strating Point of Trategic Planning*, Prentice-HALL.1980) 참조.

제(economies of scope), 학습의 경제(economies of learning)를 들 수 있다. 즉, 대량생산을 통한 비용우위효과, 생산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품목에 대한 생산 및 판매 등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절감을 비롯한 여타 시너지 효과, 학습경험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효과를 나타낸다.¹⁴⁾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의 수산업 경쟁관계도 3국 간 교역의 경쟁관계뿐만 아니라 3국 각각의 수산물 생산구조, 소비구조, 기술 진보 등 다양한 관점에서 경쟁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장에서는 한중일 수산업의 생산 및 소비 구조 등을 비교해 보았고 본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의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국제경쟁력의 평가방법

국제경쟁력의 측정은 우선 평가 대상에 따라 미시적 단위(상품·산업 단위) 또는 거시적 단위(국가 단위)로 나눌 수 있고, 국제경쟁력 원천에 대한 직접적 평가냐 아니면 간접적 평가냐에 따라 <표 3-1>과 같이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¹⁵⁾

그러나 실제로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의 측정에 있어서는 자료의 미비나 측정 불가능한 질적인 지표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국제경쟁력 원천보다는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경쟁력의 원천을 측정하는 방안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자료의 한계로 3국의 수산물 교역에 대한 성과를 각종 평가지수를 사용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직접적인 무역관련 경쟁력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국가 간 및 수산물 품목별 경쟁관계 또는 보완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보완관계라는 의미는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한 경우나 수산물 개별 품목별로는 1국은 수출을, 다른 1국은 수입을 위주로 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양국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산물의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하다는 것은 교역 당사국들의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소비가 교역을 통해 보완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양국의

14) B.Kogut, "Designing Global Strategies: Comparative and Competitive Value-Added Chains", *Sloan Management Review*, 1985 Summer, pp. 15~28 참조.

15) 권영철, *Op. cit.* 참조.

수산업은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국은 수입을, 다른 1국은 수출을 위주로 할 경우 양국은 보완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3-1> 국제경쟁력의 평가지수

	미시적 평가	거시적 평가
국제경쟁력 원천 평가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	시장규모, SOC, 생산·소비 구조
국제경쟁력 성과 평가	시장점유율, 이익률, 무역특화지수, RCA	세계수출시장점유율,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경쟁관계 및 보완관계 분석

2. 한중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세계 상품시장에서 한 나라의 특정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국제경쟁력 성과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거시적으로는 국가 상호 간의 경합 또는 분업(보완)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무역결합도지수, Grubel-Lloyd 지수를 사용하여 보완관계를 알아보았고, 수출 유사성지수를 사용해서 국가 간 경쟁관계 정도를 분석하였다.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 우위지수 등을 사용하여 품목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한중일 3국의 품목별 경쟁 및 보완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국제경쟁력 분석

앞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은 상호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상호 보완 및 경쟁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3국 간 교역에서 나타나는 수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양국 간의 전체적인 수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을 규명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가 간 보완성 정도를 나타내는 무역결합도지수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품목별 보완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내무역지수(Grubel-Lloyd Index)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1) 무역결합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 TII)

무역결합도지수(Trade Intensity Index: TII)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에 있어서 해당 시장과의 결합 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무역결합도지수는 한국의 수산물 총수출 중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 비중을 세계 수산물 총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대한 한국산 수산물의 일본시장 점유율의 비율이다.

그러므로 무역구조상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지리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양국 간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될수록 값이 높아진다. 따라서 TII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의 무역에 관해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반면 1보다 작으면 상호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해석 할 수 있다.¹⁶⁾

무역결합도지수를 사용하여 한중일의 보완관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국·일본·중국의 각 시장별로 나타난 결과는 한국과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 수산물의 보완성이 높았지만, 중국시장에서는 한국산 및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산 수산물과의 보완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결합도지수의 값이 한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는 중국과 모두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시장에서는 중국의 수산물과 각 국의 수산물의 상호 보완성이 세계 평균보다 크므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이 중국의 수산물과 무역결합도지수(TII)가 모두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과 중국의 수산물과의 상호 보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한국과 일본에서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의존성이 크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의존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16) 어명근 외,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pp.105~106 참조.

둘째, 전체적인 무역결합정도, 즉 3국 중 보완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나타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특히 한국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역결합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일본시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보완정도가 중국과의 보완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중국시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및 일본 모두 보완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보완관계가 일본과 중국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품목별로는 한국시장에서는 신선냉장어류, 냉동어류, 활어의 순으로 일본과의 상호 보완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는 냉동어류, 연체동물 등 기타어류와 상호 보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냉동어류는 일본 및 중국 모두와 상호 보완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시장에서도 냉동어류가 한국과의 상호보완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에서는 한국과 연체동물 등 기타어류, 일본과는 냉동어류의 상호 보완 정도가 미미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석되었다.

<표 3-2> 수산물 무역결합도 지수 분석방법

무역결합도 지수

$$TII_{ij} = \frac{X_{ij}}{X_i} / \frac{M_j}{M}$$

여기서 X_{ij} 는 i 국의 j 국에 대한 수출, X_i 는 i 국의 총 수출,
 M_j 는 j 국의 총수입, M 은 세계총수입

<표 3-3> 개별시장에서 국별 수산물 무역결합도 지수(2002년 기준)

	한국시장		일본시장		중국시장	
	일본TII	중국TII	한국TII	중국TII	한국TII	일본TII
활어(0301)	1.112	0.730	0.335	0.052	0.003	0.001
신선냉장어류(0302)	3.127	0.575	0.070	0.094	0.000	0.001
냉동어류(0303)	1.582	2.703	1.473	0.211	0.097	0.363
어류 필레와 기타어육(0304)	0.379	0.327	0.367	0.394	0.002	0.036
건조 염장 훈제 어류(0305)	0.069	0.215	0.055	0.057	0.001	0.002
갑각류(0306)	0.041	0.843	0.043	0.278	0.002	0.068
연체동물 등 기타어류(0307)	0.746	1.120	0.734	0.504	0.128	0.097
수산물 전체	7.056	6.535	3.087	1.593	0.243	0.567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2) 산업 내 무역지수: 그루벨-로이드(GL) 지수

품목별 상호 보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 내 무역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다. 산업 내 무역이란 품목 분류상 같은 부류에 속하는 수산물을 수출하면서 동시에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 개념이다. 산업 내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같은 품목부류라 하더라도 품질 또는 가격이 차이가 나는 상품 차별화와 가공도에 따른 산업 내 분업 등을 들 수 있다. 같은 부류의 수산물이라도 가공 정도에 따른 교역이 이루어지는 산업 내 분업을 ‘수직적 분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분류가 대분류일수록 산업 내 무역 정도가 높고 세분화된 분류일수록 그 정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산업 내 무역은 양국 간의 수평적 분업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생산자들은 다양해진 소비자 기호에 따라 생산물 차별화를 강화하게 되고, 제품 차별에 따라 국가 간 산업 내 무역도 활발해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결국, 양국 간 수산업 분야에서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면 즉, 수평적 분업이든 수직적 분업이든 수산물 교역의 상호 보완성이 크게 나타나면 분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GL 지수는 산업별·국가별 특화가 많이 진전될수록 산업 내 무역이 저조해지고 특화가 덜 진전될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정 산업의 수출입 총액에 대한 수출입 차액의 비율로 정의되는 무역특화지수를 1에서 뺀 값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GL 지수가 클수록 특화정도가 낮아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반면 특화정도가 작을수록 특화가 많이 진행되어 산업 내 무역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보완관계 판단기준값은 0.5로 GL 지수를 사용하여 품목별·국가별로 값을 산출한 후 0.5 이상인 경우를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여 상호 보완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¹⁸⁾

수산물 품목분류 HS-4단위를 기준으로 한국, 일본, 중국 간 무역의 상호 보완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한일, 한중, 중일 모두 GL 지수 값이 0.5 미만으로 3국 간의 수산업내의 교역은 전체적으로 상호보완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GL 지수 값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국 중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상호 보완관계가 높은

17) *Ibid.*, p.107 참조.

18) *Ibid.*, p.108 참조.

것으로 보여 무역결합도(TII)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수산물 교역의 상호보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역결합도지수 (TII)분석과 비교해보면 한국시장에서의 무역결합도는 높지만 중국시장에서 양국의 무역결합도가 매우 낮아 전체적인 산업 내의 상호 보완관계도 낮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표 3-4> 수산물 산업 내 무역지수 분석방법: 그루벨-로이드(GL) 지수

<p>Grubel-Lloyd 지수</p> $GL(IIT) = 1 - (X_i - M_i / (X_i + M_i))$ <p>여기서 X_i는 i 산업의 수출액, M_i는 i 산업의 수입액</p>
--

<표 3-5> GL 지수를 이용한 산업 내 무역의 상호 보완관계

HS 품목	한·일	한·중	중·일
활어(0301)	0.46	0.01	0.25
신선냉장어류(0302)	0.48	0.00	0.51
냉동어류(0303)	0.17	0.22	0.03
어류 필레와 기타 어육(0304)	0.96	0.06	0.93
건조 염장 훈제 어류(0305)	0.13	0.03	0.90
갑각류(0306)	0.16	0.04	0.32
연체동물 등 기타어류(0307)	0.30	0.35	0.24
수산물 전체	0.45	0.17	0.18

다음으로 수산물 각 품목별 무역 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기타활어, 냉동어류, 갑오징어 등 연체동물 및 기타 어류를 중심으로 15개 품목, 일본은 관상용 활어, 훈제어류를 중심으로 9개 품목, 중국은 18개 품목의 GL지수가 0.5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에 대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3-6> 품목별 산업 내 무역지수(Grubel-Lloyd Index)

HS코드	품목명	한국 GLI		일본GLI		중국GLI	
0301-10	관상용 활어	0.19		0.66	♠	0.15	
0301-92	뱀장어 (앵귌라종, 활어)	0.34		0.06		0.17	
0301-99	기타 활어	0.76	♠	0.23		0.09	
0302-69	기타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0.24		0.65	♠	0.25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 (신선, 냉장)	0.10		0.00		0.21	
0302-19	기타 연어류 (신선, 냉장)	0.00		0.38		0.01	
0303-29	기타 연어류 (냉동한 것)	0.06		0.84	♠	0.01	
0303-31	냉동넙치 (간장과 어란 제외)	0.93	♠	0.08		0.05	
0303-32	냉동가자미 (간장과 어란 제외)	0.55	♠	0.90	♠	0.28	
0303-33	냉동서대 (간장과 어란 제외)	0.52	♠	0.56	♠	0.57	♠
0303-39	기타 넙치류 (냉동한 것)	0.45		0.02		0.12	
0303-43	냉동가다랭이	0.07		0.99	♠	0.64	♠
0303-50	냉동청어 (간장과 어란 제외)	0.48		0.08		0.02	
0303-60	냉동대구 (간장과 어란 제외)	0.49		0.05		0.07	
0303-71	냉동정어리 (간장과 어란 제외)	0.07		0.07		0.47	♠
0303-74	냉동고등어 (간장과 어란 제외)	0.55	♠	0.05		0.35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 (피레트)	0.64	♠	0.00		0.76	♠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 (냉동)	0.13		0.32		0.44	
0303-76	냉동뱀장어 (간장과 어란 제외)	0.98	♠	0.43		0.74	♠
0303-79	기타 냉동어류	0.28		0.19		0.78	♠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 (냉동)	0.16		0.02		0.69	♠
0304-1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04		0.58	♠	0.27	
0304-20	냉동한 피레트	0.75	♠	0.07		0.02	
0304-90	기타 어육 (냉동)	0.01		0.06		0.59	♠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0.23		0.00		0.35	
0305-30	어류의 피레트 (건조, 염장)	0.27		0.02		0.04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 (훈제)	0.94	♠	0.78	♠	0.66	♠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28		0.09		0.50	♠
0306-11	닭새우류 (냉동)	0.17		0.00		0.75	♠
0306-12	냉동바다가재 (호마루스종)	0.66	♠	0.00		0.29	

주: Grubel-Lloyd Index가 0.5 이상이면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가정(♠).

품목별 산업내 무역지수(Grubel-Lloyd Index)(계속)

HS코드	품목명	한국 GLI	일본GLI	중국GLI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0.08	0.00	0.46
0306-14	게 (냉동)	0.22	0.06	0.98 ♠
0306-19	기타 냉동갑각류	0.06	0.21	0.13
0306-23	새우, 보리새우 (냉동)	0.05	0.02	0.54 ♠
0306-24	게 (냉동)	0.11	0.01	0.90 ♠
0306-29	기타 갑각류	0.20	0.77	0.20
0307-10	굴	0.02	0.08	0.13
0307-29	가리비과의 조개 (냉동, 건조, 염장)	0.07	0.04	0.14
0307-31	홍합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69 ♠	0.68 ♠	0.03
0307-39	홍합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0.27	0.42	0.68 ♠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 (산 것, 신선, 냉장)	0.64 ♠	0.25	0.83 ♠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0.64 ♠	0.09	0.78 ♠
0307-51	문어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00	0.03	0.02
0307-59	문어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0.09	0.03	0.60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산 것)	0.51 ♠	0.07	0.75 ♠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0.95 ♠	0.23	0.49
전체		0.35	0.24	0.39

주: Grubel-Lloyd Index가 0.5 이상이면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가정(♠).

(3) 수산물 단순수출구조 비교

국가별로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양국의 수출이 중복되는 품목들이 국가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 순위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품목분류가 대분류일수록 중복 품목 수와 수출 비중이 크고 세분류일수록 중복 품목 수가 줄어들고 수출비중도 작아진다. 결국,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적절한 품목분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⁹⁾ 수산물 수출비중에 대한 비교는 앞 장의 수산물 수출입구조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19) *Ibid.*, p.111 참조.

(4) 수출유사성지수를 이용한 수산물 경합성 분석

국가 간 수출상품구조, 즉 총수출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할 수록 경합성이 높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수출유사성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 ESI)를 양국의 수출 경쟁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양국 간의 수출 경합성을 나타내는 수출유사성지수는 특정 상품의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가별로 산출한 뒤 작은 값을 선택하여 합산한 값으로 정의된다.²⁰⁾

그러므로 ESI는 양국의 특정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할 수록 증가하므로 수출경합정도가 커지는 반면 특정 품목의 수출비중이 국가별로 다르면 감소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동일하다면 ESI가 1이 되는 반면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전혀 중복되지 않으면 ESI는 0이 된다.

또한 수출상품의 품목분류 정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데 상품 분류가 세분될수록 양국의 수출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낮아 ESI가 작아지는 반면 품목분류가 대분류일수록 중복 가능성이 커지므로 ESI가 커진다.

수출유사성지수(ESI)를 이용하여 한중일의 수산물 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출경합도가 매우 낮아 3국 간의 수산물 수출상품 구조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 간의 경합정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전체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국의 경우 일본과의 경쟁보다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수산물 분류를 좀더 세분화하여 HS-4단위 분류기준에 따른 수출 경합도를 보아도 한국과 중국의 경합 정도가 한국과 일본, 또는 중국과 일본의 경합 정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수산물의 분류가 좀 더 세분화될수록 한·일보다 중·일의 수출 경합 정도가 다소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분석한 수산물의 보완관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상호 보완관계가 높았던 점과 일치한다. 즉,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수출구조는 서로 상이하어 상호 경합관계라기보다는 보완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 J.M.Finger and M.E.Kreimin, "A Measure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tential Uses", *Economic Journal*, 1979.12, pp.965~901, 어명근 외, *Op. Cit.* pp.113~114 참조.

<표 3-7> 수산물 수출유사성지수 분석방법

수출유사성지수
$ESI_{ab} = \sum_{i=1} \min(X_a^i/X_a, X_b^i/X_b)$
여기서, X_a 는 a국의 총 수출액, X_a^i 는 a국의 i 상품 수출액

<표 3-8> 한중일 수산물 분류 단계별 수출유사성지수(ESI)

	한·일			한·중			중·일		
	HS-2	HS-4	HS-6	HS-2	HS-4	HS-6	HS-2	HS-4	HS-6
2002	0.00131	0.00118	0.00125	0.00492	0.00398	0.00529	0.00131	0.00131	0.00172
2003	0.00137	0.00128	0.00124	0.00402	0.00326	0.00464	0.00137	0.00137	0.00143

(5)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한중일 경쟁력 분석

①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는 수출입에 있어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각 품목별 수출입 차이를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1과 1사이 값을 가진다. 지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해당 품목의 비교우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값이 정(+)의 값을 가지면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 수출특화라고 하며, 부(-)의 값을 가지면 수입특화 또는 경쟁력이 약하다고 한다. 즉, 국제경쟁력이 전혀 없어서 수출은 하지 않고 전량을 모두 수입에만 의존하는 품목의 경우 무역특화지수는 -1(완전수입특화)에 가까워지고 반대로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만 하게 되면 1(완전수출특화)에 가까워진다.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경우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표 3-9>

수산물 무역특화지수 분석방법

무역특화지수(TSI)

$$TSI = (X_i - M_i) / (X_i + M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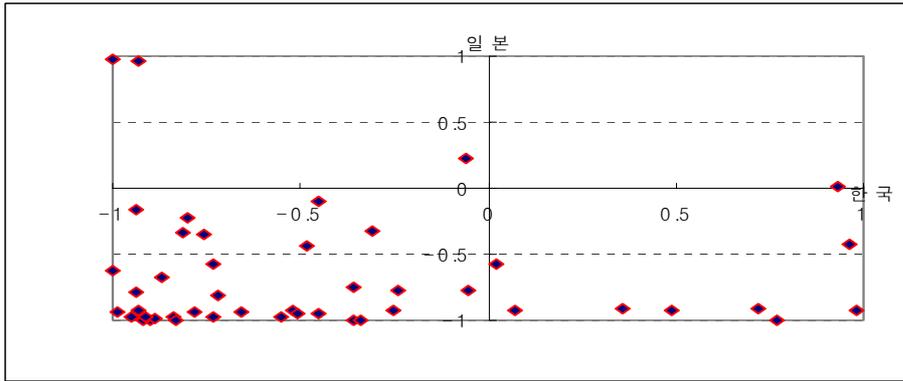
여기서 X_i 는 i 산업의 수출액, M_i 는 I 산업의 수입액

이를 도표로 나타내보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아래 <그림 3-1>에서 I 상한은 한국의 수출특화(+ 무역특화지수)품목이면서 일본의 수출특화(+무역특화지수) 품목들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표시되는 수산물 품목들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쟁품목을 나타내는 것이다. II 상한은 한국의 수출특화품목이면서 일본의 일본 수입특화품목, III 상한은 한국 수입특화품목이면서 일본 수출특화품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II, III 상한에 표시되는 품목들은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품목들로 볼 수 있고 국가 간에는 이러한 품목이 많을수록 양국 간의 보완관계 정도가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IV 상한은 한국과 일본 모두 경쟁력이 약해 수입 특화된 품목들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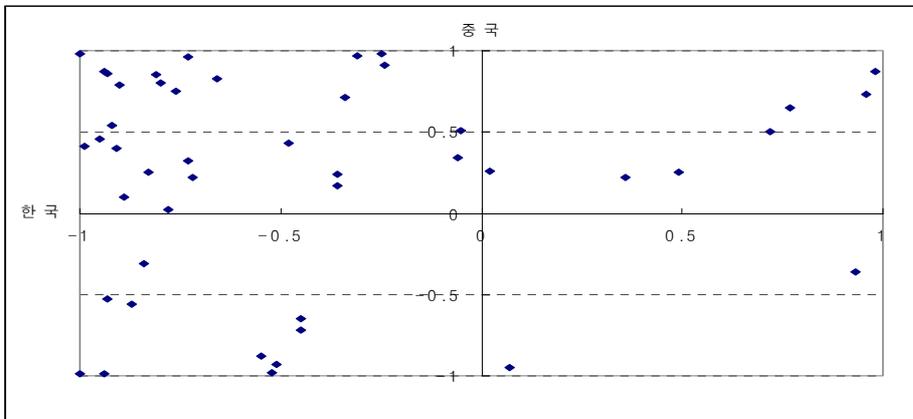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한중일 수산물에 대한 경쟁·보완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선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일 모두 수입특화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V 상한에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 중국은 수출특화, 한국은 수입특화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상한에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들이 집중되어있다. 한국의 수출특화품목이면서 중국의 수입특화품목은 분석대상 품목 중 냉동넙치와 냉동가다랭이 2개 품목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참조).

<그림 3-1>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의 상호 경쟁·보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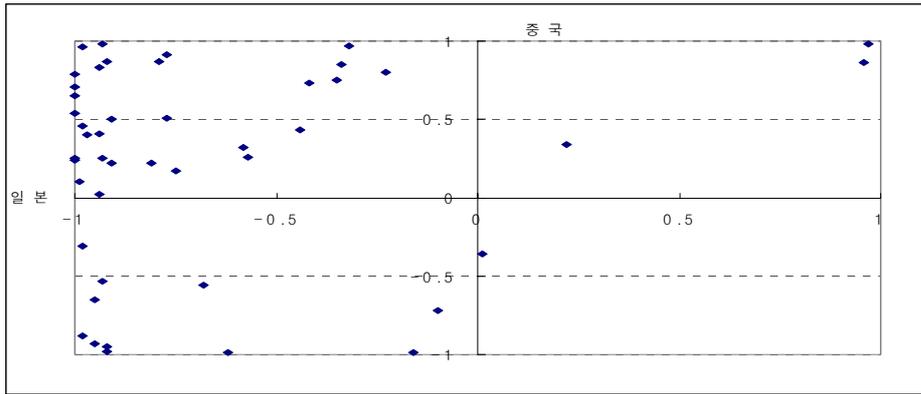


<그림 3-2>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의 상호 경쟁·보완관계



한편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품목별 수출입 특화 상황을 보면 <그림 3-3>의 III 상한에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수입특화품목, 중국은 수출특화품목이 많았다. 한편, 중국과 일본 양국의 수출특화 품목으로는 냉동건조 가리비과 조개나 산것, 신선, 냉장문어로 상호 수출경합품목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본은 수출특화인데 반해 중국은 수입특화를 보인 유일한 품목은 냉동가다랭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의 상호 경쟁·보완관계



한중일 3국의 수산물의 경쟁·보완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에 비해 한국이나 일본은 수출특화품목이면서 중국은 수입특화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입 경쟁관계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수산물에 한국이나 일본의 수산물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다른 경쟁력 관련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특히, 무역결합도지수, GL지수, 수출유사성지수 등을 이용한 결과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보완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동종의 품목에 대해 수입 경쟁관계 품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한중일 3국 간의 무역특화 정도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무역특화지수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의 수산물 경쟁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무역특화지수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나 일본은 전체적으로 수산물 수입의존적인 것이며, 중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특화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일 3국의 수산물 수급에 있어서 중국의 수산물 수출경쟁력 향상이 동종 또는 유사어종을 생산하는 한국과 일본의 업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한일 양국은 양적으로 부족한 수

산물 공급량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수산물 수입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일 수산물 시장에서 중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많은 수산물 수출국과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품목별로 한국의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은 냉동넙치, 냉동가다랭이, 굴, 갑오징어, 연체동물 및 기타 어류 등이고, 일본의 수출경쟁력 우위품목은 냉동가다랭이, 기타 훈제어류, 문어, 가리비과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분석 대상 품목 대부분이 수출경쟁력이 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국가별 · 품목별 무역특화지수(2003년 기준)

HS코드	품목명	한국TSI		일본TSI		중국TSI	
0301-10	관상용 활어	-0.81	☆	-0.34	☆	0.85	★
0301-92	뱀장어 (앵귌라종, 활어)	-0.66	☆	-0.94	☆	0.83	★
0301-99	기타 활어	-0.24	☆	-0.77	☆	0.91	★
0302-69	기타 어류 (간장과 어란 제외)	-0.76	☆	-0.35	☆	0.75	★
0302-70	어류의 간장과 어란 (신선, 냉장)	-0.9	☆	-1	☆	0.79	★
0302-19	기타 연어류 (신선, 냉장)	-1	☆	-0.62	☆	-0.99	☆
0303-29	기타 연어류 (냉동한 것)	-0.94	☆	-0.16	☆	-0.99	☆
0303-31	냉동넙치 (간장과 어란 제외)	0.07	★	-0.92	☆	-0.95	☆
0303-32	냉동가자미 (간장과 어란 제외)	-0.45	☆	-0.1	☆	-0.72	☆
0303-33	냉동서대 (간장과 어란 제외)	-0.48	☆	-0.44	☆	0.43	★
0303-39	기타 넙치류 (냉동한 것)	-0.55	☆	-0.98	☆	-0.88	☆
0303-43	냉동가다랭이	0.93	★	0.01	★	-0.36	☆
0303-50	냉동청어 (간장과 어란 제외)	-0.52	☆	-0.92	☆	-0.98	☆
0303-60	냉동대구 (간장과 어란 제외)	-0.51	☆	-0.95	☆	-0.93	☆
0303-71	냉동정어리 (간장과 어란 제외)	-0.93	☆	-0.93	☆	-0.53	☆
0303-74	냉동고등어 (간장과 어란 제외)	-0.45	☆	-0.95	☆	-0.65	☆
0303-75	곱상어, 기타 상어 (냉동)	-0.87	☆	-0.68	☆	-0.56	☆
0303-76	냉동뱀장어 (간장과 어란 제외)	0.02	★	-0.57	☆	0.26	★
0303-79	기타 냉동어류	-0.72	☆	-0.81	☆	0.22	★
0303-80	어류의 간장, 어란 (냉동)	-0.84	☆	-0.98	☆	-0.31	☆

국가별 · 품목별 무역특화지수(2003년 기준)(계속)

HS코드	품목명	한국TSI		일본TSI		중국TSI	
0304-10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96	★	-0.42	☆	0.73	★
0304-20	냉동한 피레트	-0.25	☆	-0.93	☆	0.98	★
0304-90	기타 어육 (냉동)	-0.99	☆	-0.94	☆	0.41	★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	0.77	★	-1	☆	0.65	★
0305-30	어류의 피레트 (건조, 염장)	-0.73	☆	-0.98	☆	0.96	★
0305-49	기타 훈제한 어류 (피레트)	-0.36	☆	-1	☆	0.24	★
0305-59	기타 건조한 어류 (훈제)	-0.06	☆	0.22	★	0.34	★
0305-69	기타 염장 및 염수장한 어류	0.72	☆	-0.91	☆	0.5	★
0306-11	닭새우류 (냉동)	-0.83	☆	-1	☆	0.25	★
0306-12	냉동바다가재 (호마루스종)	-0.34	☆	-1	☆	0.71	★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냉동)	-0.92	☆	-1	☆	0.54	★
0306-14	게 (냉동)	-0.78	☆	-0.94	☆	0.02	★
0306-19	기타 냉동갑각류	-0.94	☆	-0.79	☆	0.87	★
0306-23	새우, 보리새우 (냉동)	-0.95	☆	-0.98	☆	0.46	★
0306-24	게 (냉동)	-0.89	☆	-0.99	☆	0.1	★
0306-29	기타 갑각류	-0.8	☆	-0.23	☆	0.8	★
0307-10	굴	0.98	★	-0.92	☆	0.87	★
0307-29	가리비과의 조개 (냉동, 건조, 염장)	-0.93	☆	0.96	★	0.86	★
0307-31	홍합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0.31	☆	-0.32	☆	0.97	★
0307-39	홍합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0.73	☆	-0.58	☆	0.32	★
0307-41	갑오징어, 오징어 (산 것, 신선, 냉장)	-0.36	☆	-0.75	☆	0.17	★
0307-49	갑오징어, 오징어 (냉동, 건조, 염장)	0.36	★	-0.91	☆	0.22	★
0307-51	문어 (산 것, 신선, 냉장한 것)	-1	☆	0.97	★	0.98	★
0307-59	문어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0.91	☆	-0.97	☆	0.4	★
0307-91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산 것)	0.49	★	-0.93	☆	0.25	★
0307-99	기타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냉동)	-0.05	☆	-0.77	☆	0.51	★

주 : ★표시는 수출특화품목이며, ☆표시는 수입특화품목임. 1은 완전수출특화품목, -1은 완전수입특화품목임.

②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무역특화지수는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품목별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반해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는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해당 국가의 전체 시장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한 지수다.²¹⁾ 해외시장에서 특정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그 나라 전체상품의 시장점유율보다 크면, 즉 RCA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RCA지수의 상대적 크기는 국가 간 비교우위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RCA지수는 국가 간 경합·보완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즉, 수출과 수입에 대해 각각 RCA를 계산하여 이를 비교하면 무역 상대국가의 비교우위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합관계, 보완관계 및 산업 내 무역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²²⁾ RCA지수를 수출과 수입에 대해 각각 계산하여 수출현시비교우위지수와 수입현시비교우위지수를 정의하고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이에 따라 종전의 수출에 있어서 현시비교우위지수만을 비교하던 방법보다 다양한 의미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수출에 있어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종래의 의미대로 수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자국의 총수출이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자국의 해당상품수출이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상대적으로 상품수출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자국의 총수입이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상으로 특정상품의 세계 총수입에서 자국의 해당상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상대적으로 상품수입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검토하게 되면 특정국가와의 상품수출에서 경합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나 양국 간에 상품수출과 수입에서 보완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상품에 대해 양국이 수출 RCA가 모두 1보다 클 경우 양국의 수출은 세계시장에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A국은 수출 RCA

21) Ballassa,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Manchester School*, Vol. 33, 1965, pp.99~123.

22) 박승록,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무역거래, 수출경쟁력, 경합·보완관계 측면에서」, 한국경제연구원, 2003, pp.33~53 참조.

가 1보다 크고, B국은 수입 RCA가 1보다 크면 양국은 해당상품에 대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수출 및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방법

<p>수출현시비교우위지수</p> $RCAX_{kj} = \frac{X_{kj}}{X_k} / \frac{X_{wj}}{X_w}$ <p>여기서 $\frac{X_{kj}}{X_k}$ 는 k국의 총수출에 대한 j상품 수출액 비중</p> <p>$\frac{X_{wj}}{X_w}$ 는 세계 총수출에 대한 세계 전체의 j상품 수출액 비중</p>
<p>수입현시비교우위지수</p> $RCAM_{kj} = \frac{M_{kj}}{M_k} / \frac{M_{wj}}{M_w}$ <p>여기서 $\frac{M_{kj}}{M_k}$ k국의 총수입에 대한 j상품 수출액 비중</p> <p>$\frac{M_{wj}}{M_w}$ 는 세계 총수입에 대한 세계 전체의 j상품 수입액 비중</p>
<p>$RCAX_{aj} > 1$, 그리고 $RCAM_{bj} > 1$: j 상품에 대해 a국의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고, b국은 수입현시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j 상품은 양국 사이에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짐</p>

한편, 본 연구에서 수산물 수출입 RCA 분석을 위해 ITC(International Trade Center) 무역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각 국가의 전체 수출입 규모와 수산물 품목별 세계 전체 수출입 규모를 나타내는 자료가 ITC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ITC 자료의 경우 수산물이 4가지로 매우 단순하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력 측정 지표를 사용한 결과를 보완하여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일본이 분석 대상 수산품목 모두 수출 RCA가 1보다 작아 다른 나라와 수출 경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활어·신선·냉장·냉동어류와 계류 및 기타 수산물은 한국이 수출 비교우위를 가지고 일본은 수입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갑각류·연체류의 경우 한·일 양국 모두 수입 RCA가 1보다 크게 나타나 수입 경합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분석 대상 품목 모두 중국은 수출 비교우위를, 일본은 수입비교우위를 보여 상호 보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수산업의 수출과 수입 RCA지수의 관계를 보면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와 계류 및 기타 수산물 등은 한·중 상호 경합관계에 있는 반면 건조·훈제·염장 어류와 갑각류·연체류는 상호 보완관계(중국은 수출 비교우위, 한국은 수입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RCA지수를 이용한 한중일 수산물 경합 및 보완관계

구분	수출 경합	상호 보완	수입 경합
한·일	없음	활어·신선·냉장·냉동어류 계류 및 기타 수산물	갑각류·연체류
한·중	활어·신선·냉장·냉동어류 계류 및 기타 수산물	갑각류·연체류	없음
중·일	없음	분석 대상 모든 품목	없음

<표 3-13> 국별·품목별 수출·수입 RCA지수 추이

		한국			일본			중국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R C A X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	1.294	1.098	1.088	0.267	0.288	0.292	1.744	1.839	1.708
	건조·훈제·염장 어류	0.223	0.274	0.301	0.133	0.1	0.08	1.199	0.951	1.131
	갑각류·연체류	0.916	0.889	0.744	0.112	0.14	0.193	1.438	1.354	1.587
	계류 및 기타 수산물	1.28	1.178	1.234	0.37	0.373	0.478	3.942	3.633	4.319
R C A M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	1.562	1.989	2.094	4.776	4.51	4.788	0.911	0.945	0.94
	건조·훈제·염장 어류	0.36	0.264	0.352	1.688	1.645	1.981	0.443	0.262	0.308
	갑각류·연체류	0.563	0.83	1.067	5.207	4.694	5.015	0.603	0.535	0.57
	계류 및 기타 수산물	0.621	0.733	0.788	6.088	5.511	5.637	0.02	0.023	0.028

자료 : ITC 무역통계.

2) 한일 수산업의 업종별 경쟁력 비교

한중일 양식어업의 경쟁 및 보완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3국의 양식어업의 생산에 있어서 경영성과와 기술수준 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중일 3국의 양식어업구조의 차이와 각 국의 양식업에 대한 공통적인 자료의 부족 등으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의 비교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이러한 자료마저 미비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한국과 일본의 양식업만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국과 일본의 양식업 비교는 우선 생산에 있어서 경영성 즉, 양식어업의 이익률, 양식 기술수준, 양식용 사료 개발수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진정한 의미에서 양국의 양식업의 경쟁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양식 수산물의 유통 측면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별도의 양식 유통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앞 장에서 각 국의 수산물 가격, 소비, 시장 현황 등의 비교·분석으로 대신한다.

(1) 한일 양식어업의 경영성과

한국의 어류양식 경영의 손익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두리는 규모가 클수록 이익률이 떨어지고 축제식 양식의 자본 이익률은 규모가 클수록 이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매출액 이익률은 규모가 크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상수조식 양식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패류 양식은 굴의 경우 양식장의 규모가 작거나 아주 큰 경우에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현상을 보였고 피조개의 경우 중간규모 양식장의 이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4>

한국의 양식업 경영성과 분석

단위 : %

품종 및 규모		어류		품종 및 규모	패류		
		총자본 이익율	매출액 이익율		총자본 이익율	매출액 이익율	
가두리	1ha 미만	68.6	19.2	굴	1ha 미만	98.3	28.9
	1ha 이상	-458.2	17.2		1ha~3ha	22.7	15.4
					3ha 이상	256.6	45.9
축제식	5ha 미만	104.4	46.5	피조개	1ha~5ha	27.9	15.3
	5ha 이상	129.4	-22.5		5ha~10ha	158.1	46.7
수조식	0.1ha 미만	-192.8	26.9		10ha 이상	-357.5	27.9
	0.1~0.2ha	98.7	32.1	진주담치	1ha	27.9	38.0
	0.2ha 이상	130.5	34.1				

주: 총자본 이익률 = 어업이익/총자본, 매출액 이익률 = 어업이익/매출액.

자료: 신영태 외, 「기르는 어업의 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3.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어업 경영조사를 보면 일본의 양식업 경영은 어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 품종은 김, 미역, 방어, 참돔, 굴, 가리비, 진주 및 진주모패 등이다.

2003년을 기준으로 양식 면적은 김과 가리비의 규모가 가장 큰 편으로 나타났다. 어업소득은 방어 양식이 가장 높았다.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경영성과 비교는 일본의 경우 어가당 평균 양식 면적이 0.5~0.8ha 정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1ha 미만 양식장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굴 양식업의 총자본 이익률은 98.8%인데, 일본은 투하 고정 자본이익률이 83.2%로 한국이 일본보다는 자본대비 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진주모패(진주담치) 양식의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진주 담치 양식 총자본 이익률 27.9%, 일본 진주모패 양식 투하 고정자본 이익률 78.9%) 일본 양식업의 경영 상황은 다음과 같다(<표 3-15> 참조).

<표 3-15>

일본의 양식업 경영성과 분석

	단위	방어	참돔	가리비	굴	미역	김	진주	진주모패
양식면적	m ²	1,066	1,305	8,148	4,139	5,837	10,136	5,640	5,071
어업이익	천 엔	10,139	-6341	6,968	7,690	3,964	6,918	4,500	2,264
어업수익		101,209	39392	11,536	20,341	6,664	16,465	8,815	3,803
어업비용		9,3175	40709	7,872	14,210	3,261	10,686	7,410	2,559
어업 외 소득		2,307	1718	3,589	3,063	3,390	4,167	3,234	1,937
어업의존도	%	81.5	-	65.1	71.5	53.9	62.4	58.2	53.9
어업소득률	%	9.8	-	46.0	35.1	54.9	39.3	37.8	46.9
자본이익률*	%	39.2	87	58.4	83.2	94.4	41.2	78.9	60.9
고정투자자본	천 엔	25,853	7351	1,1929	9,242	4,197	16,780	5,704	3,715

주 : * 자본이익률 = 어업이익/투하고정자본, 양식면적은 어가당 양식면적이다.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2003년 어업경영조사」, 2003.

(2) 한일 양식어업의 양식기술 수준 비교

양식기술의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양식업의 구조는 사료대, 인건비 등 양식어업의 경영원가는 증가하고 시설은 노동력에 의존하는 형태의 고비용·저효율의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식 핵심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종묘생산기술 수준은 일본을 100으로 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90정도로 일본보다는 수준이 뒤떨어지지만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료개발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40, 일본은 80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류백신개발 기술수준도 최우수 국가의 60% 수준으로 상당히 낮았고 생명공학기술 분야는 초보적인 기초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주요국의 양식 기술수준 비교

양식핵심기술	국내수준	외국수준		
		일본	미국	유럽
종묘생산기술	90	100	80	80
사료개발기술	40	80	100	90
어병(백신)기술	60	70	85	95
양식공학기술	50	90	80	80
생명공학기술	기초투자단계	개발단계	산업화단계	산업화단계

자료 : 신영태 외, 「기르는 어업의 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3.

(3) 한중일 양식용 사료개발 수준 비교

1998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양식용 배합사료 생산량은 1,600만 톤으로서 세계 전체 생산량인 2,950만 톤의 약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도 연간 5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에서 주력으로 양식하고 있는 어종인 참돔은 연간 10만 톤을 거의 전량 배합사료에 의존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방어는 배합사료와 생사료를 「4 : 6」 정도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안 오염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배합사료 중심의 양식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양식어류 생산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료 의존 비율이 80% 이상이고 생사료 중 8만여 톤은 중국산 잡어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료가격 상승, 어장 환경오염, 질병 감염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²³⁾

(4) 한일 근해선망어업의 경쟁력 비교

한중일 삼국의 어업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연근해 어업을 비교·분석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차

23) 신영태 외, 「기르는 어업의 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3, pp.205~225 참조.

선으로 근해어업의 경쟁관계를 분석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근해어업의 업종도 매우 다양하고 중국의 경우 근해어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근해선망어업을 비교·분석하였다.²⁴⁾

양국의 근해선망어업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양국 근해선망어업의 어업이익률, 선령, 자산 규모 등의 경영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근해선망어업은 어획의 불안정, 어가의 하락, 노동력 부족, 연료비 상승 등 공통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어가 하락으로 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일본은 수입 수산물의 증대로 근해선망 경영기반이 붕괴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은 감척된 어선에서 발생한 노동력을 재고용하여 운반선 및 선원의 감소로 발생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등 어업의 축소가 잔존 경영체의 존속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해선망어업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생산체제를 가지고 동일한 어장 및 자원을 대상으로 생산 활동을 해왔지만 경영조건은 매우 다르다. 한국의 대형선망어업은 국내 독점적으로 생산 활동을 확보하였고 수산물 수요의 확대, 어가 상승 등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어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영이 악화되어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의 대중형선망어업은 수산물의 수요가 정체하는 한편, 대체관계에 있는 수입물의 급증으로 어가의 하락과 어자원 감소로 일부 어장에 출어가 불가능해지는 등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한국의 근해선망어업의 주요 어종은 예전에는 말쥐치를 대량어획하다가 지금은 고등어로 변화하는 등 어획변동이 심한 것에 비해 일본은 전갱이, 고등어의 어획비율이 일정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생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형선망어업의 경영상황을 보면 어업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임금의 급격한 증가로 어업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어업이익률이 마이너스 또는 한 자릿수를 보이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중국 및 황해를 중심으로 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대

24) 김대영, 김병호, "한국과 일본 근해선망어업의 자원이용과 어업재편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학논집」, 2001, pp.128~142 참조.

형선망어업의 경우 어업수입의 감소비율이 어업비용감소비율보다 높아 어업이익률은 이미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형선망어업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선망어업의 경영상황이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형선망어업의 경쟁력은 한국이 다소 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경영성과만을 고려했을 경우이고 정부의 지원 등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대중형선망어업이 한국의 대형선망어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표 3-17>

한국 대형선망어업의 경영상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		1톤당 어선(척)	선령(년)	선원수(명)	어업수익	어업비용				어업이익	이익률(%)	1인당 임금
	고정	유동					계	임금	연료	감가상각			
'85	1,584	347	6	16	87	2,230	1,788	391	495	57	442	20	4
'86	1,768	381	7	16	95	2,614	2,046	436	429	78	568	22	5
'87	2,032	668	7	15	100	2,485	1,988	484	339	81	497	20	5
'88	2,431	412	7	17	91	2,509	2,114	555	323	113	394	16	6
'89	2,750	317	7	17	90	2,170	2,276	670	308	127	-107	-5	7
'90	2,847	258	6	16	89	2,317	2,447	894	326	131	-130	-6	10
'91	3,162	336	6	16	90	2,717	2,855	807	324	145	-138	-5	9
'92	3,459	317	6	16	84	3,164	3,141	989	366	119	23	1	11
'93	3,832	367	6	17	81	3,743	3,569	1,008	476	119	174	5	12
'94	4,168	360	6	16	81	3,572	3,698	1,041	486	136	-127	-4	13
'95	4,832	509	6	17	80	4,096	4,001	1,303	453	121	95	2	16
'96	4,998	360	6	22	78	4,417	4,226	1,401	566	136	191	4	18
'97	5,305	134	6	21	75	4,027	4,088	1,349	646	143	-61	-2	18
'98	5,641	242	6	17	73	5,347	4,902	1,436	780	196	445	8	19
'99	5,888	320	6	18	73	5,403	5,079	1,539	752	246	324	6	21
'00	6,208	371	6		73	5,867	5,402	1,654	878		465	8	23
평균	3,807	356	6	17	84	3,542	3,351	997	497	130	191	6	12

자료: 김대영·김병호, "한국과 일본 근해선망어업의 자원이용과 어업재편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학논집」, 2001.

<표 3-18> 일본 대중형선망어업의 경영상황 (동중국해 2구, 100~200톤급)

단위 : 백만 엔

연도	자산		1통 당 어선(척)	선령 (년)	선원 수 (명)	어업 수익	어업비용				어업 이익	어업 이익률 (%)	1인당 임금
	고정	유동					계	임금	연료	감가 상각			
'86	858	547	6.3	4.7	78	1,010	1,150	265	227	56	-139	-14	338
'87	892	492	6.3	5.7	78	911	1,143	261	148	158	-232	-25	333
'88	718	467	6.3	3	78	909	985	255	151	53	-77	-8	326
'89	1,024	431	6.3	3.8	77	679	908	189	143	47	-229	-34	245
'90	1,084	427	6.3	4.8	63	793	873	228	155	19	-80	-10	360
'91	1,499	484	5.3	5.8	63	950	1,006	258	179	39	-56	-6	408
'92	1,290	506	5.3	6.8	63	894	1,015	264	154	4	-121	-14	117
'93	1,353	423	5	7.8	59	739	846	247	146	1	-107	-14	417
'95	1473	515	5.8	8.4	57	912	1,037	276	129	7	-120	-13	484
'96	1,513	502	5.3	10.3	55	994	1,097	283	128	93	-104	-10	5151
'97	1,460	500	5.2	11.2	55	1073	1,089	358	148	88	-16	-1	656
'98	974	465	5.3	11.9	55	986	1,005	355	133	75	-19	-2	646
'99	934	423	5.7	12.9	54	847	923	337	114	77	-76	-9	628
'00	896	396	5.7	13.6	52	713	814	319	129	21	-100	-14	609
평균	1,141	470	6	8	63	886	992	278	149	53	-105	-12	766

주: 1994년은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정보부, 「어업경제조사보고」.

3. 한중일의 수산업 요인별 경쟁력 비교

한중일 3국 간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5가지의 국제경쟁력 지수 즉, 무역결합도지수(TII), 산업내무역지수(GL), 수출유사성지수(ESI),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활용하였다. 이는 국제경쟁력 분석법의 수산 부문 활용에 대한 한계 및 분석방법의 상이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되었다.

무역결합도지수(TII)를 사용하여 한중일의 보완관계를 측정한 결과, 한국은 중국보다 일본과의 수출입 보완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 시장에서 신선냉장어류, 냉동어류, 활어의 순으로 일본과의 상호 보완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는 냉동어류, 연체동물 등 기타어류와 상호보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무역지수(GL지수)에 의하면 한중일 3국 간의 수산업 내의 교역은 전체적으로 상호보완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상호 보완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여 무역결합도 분석의 결과와 일치했다. 품목별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된 품목은 우리나라는 기타 활어, 냉동어류, 갑오징어 등 연체동물 및 기타 어류를 중심으로 15개 품목, 일본은 관상용 활어, 훈제어류를 중심으로 한 9개 품목, 중국은 18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수출유사성지수(ESI)를 이용하여 한중일의 수산물 경합도를 분석한 결과, 3국간의 수산물 수출상품구조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국은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경합이 상대적으로 심하며, 한국과 일본의 상호보완관계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TSI)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특화로, 중국은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특화로 나타나 지수상으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생산어종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한일의 품목은 경쟁 열위로 시장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경쟁력 우위 품목은 냉동가다랭이, 신선냉장 피레트, 간장과 어란, 굴, 염장품 및 염수장 어류, 오징어, 기타 연체동물 등이고 일본은 가리비, 훈제어류, 문어 등이며 중국은 분석 대상 품목의 대부분이 수출특화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한중일 수산업의 측정지표별 국제경쟁력 비교**

측정지표	한중일 국제경쟁 분석 개요
무역결합도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일본의 보완관계가 중국과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강함 - 한국시장에서는 활어, 신선냉장어류는 일본과, 냉동어류는 중국과의 보완 정도가 높음. 일본시장에서는 냉동어류가 한국과의 상호 보완정도가 가장 높음(※대체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GL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 내 무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보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보완성이 높은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냉동넙치·가자미·서대 등 15개 품목 · 일본 : 냉동연어류·가다랭이 등 9개 품목 · 중국: 냉동가다랭이·뱀장어 및 기타 냉동어류 등 18개 품목
수출유사성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국은 전반적으로 수출경합도가 매우 낮아 수산물 수출품목 구조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경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일의 수산물 수출구조는 서로 상이하여 상호 보완관계로 볼 수 있음. 이 결과는 분석대상이 포괄적인 것으로 개별·어종별 해석에서는 주의를 요함.
무역특화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많으며, 특히 완전수출특화품목이 많음 - 이에 비해 한일은 완전수입특화 품목이 많음
현시비교 우위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와 계류 및 기타 수산물에 대해 일본과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 일본의 경우 상호 보완관계로 나타남 - 한국과 중국의 경우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와 계류 및 기타 수산물은 상호 경합관계에 있는 반면, 건조·훈제·염장 어류와 갑각류·연체류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임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와 계류 및 기타 수산물에 대해 일본과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상호 보완관계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활어·신선·냉장·냉동 어류와 계류 및 기타 수산물은 상호 경합관계에 있는 반면 건조·훈제·염장 어류와 갑각류·연체류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3-19>, <표 3-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0>

한중일 3국의 수산물 품목별 경쟁관계 비교

	수출경쟁력이 강한 품목	수입 의존 품목
한국	냉동가다랭이, 신선냉장피레트, 간장과 어란, 염장염수장어류, 굴, 오징어, 기타 연체동물(산 것)	관상용 활어, 기타어류, 연어류, 냉동정어리, 냉동상어, 냉동어육, 닭새우류, 새우와 보리새우, 게, 기타 갑각류, 가리비, 홍합, 문어
중국	기타활어, 간장과어란, 피레트, 기타 냉동갑각류, 굴, 가리비, 홍합, 문어 등 대부분의 품목	연어류, 냉동넙치, 냉동가자미, 냉동 청어 등
일본	가리비, 훈제어류, 문어 등	활뱀장어, 기타활어, 간장과 어란, 연어류, 넙치, 냉동(청어, 대구, 고등어, 정어리, 상어, 뱀장어, 기타 어류), 피레트, 갑각류 등

주 : 완전수입특화와 완전수출특화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2국의 품목별 상대적인 성격에 따라 품목을 분류한 것임.

제 4 장 한중일의 수산업 부문별 구조 분석

1. 세계 수산물 시장과 한중일의 수산업관계

2001년도 FAO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130,207천 톤으로 2000년의 130,927천 톤보다 720천 톤(0.5%)이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01년 기준, 최대 생산국은 전체 생산량의 32.7%인 42,579천 톤을 생산한 중국이다. 그 다음은 페루, 인도,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2위 국가인 페루는 자국 최대 생산어종인 엔초비(멸치) 생산량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라 전년에 비해 25.0%가 감소한 7,995천 톤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일본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한 5,521천 톤을 생산하여 4위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2,282천 톤을 생산하여 9위의 수산물 생산국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세계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청어·정어리·멸치류는 전년보다 4,436천 톤이 증가한 20,461천 톤을 생산하였고, 명태·대구·민대구류는 전년보다 569천 톤이 증가한 9,224천 톤을, 가다랑어·다랑어류·새치류는 전년보다 44천 톤이 감소한 5,821천 톤을 생산하였다.²⁵⁾

또한, 2010년 FAO 전망에 의하면, 총 생산량은 107,000천 톤(비관적으로 전망한 수치)에서 144,000천 톤(낙관적으로 전망한 수치)으로 전망하였으며, 1인당 공급량은 10.6kg(비관적으로 전망한 수치)에서 16.3kg(낙관적으로 전망한 수치)으로 전망하였다(<표 4-2> 참조).

25) <http://www.fao.org/fi/statist/statist.asp> 참조.

<표 4-1>

세계의 수산물 생산 현황

단위 : 천 톤, %

구분	1999	2000	2001	2001/2000
계	126,652	130,927	130,207	99.4
중국	40,030	41,568	42,579	102.4
페루	8,429	10,665	7,995	75.0
인도	5,592	5,685	5,965	104.9
일본	5,961	5,734	5,521	96.3
미국	5,228	5,174	5,405	104.5
인도네시아	4,736	4,858	5,068	104.3
칠레	5,325	4,692	4,363	93.1
러시아	4,210	4,048	3,718	91.8
한국	2,423	2,117	2,282	107.8
기타	44,718	46,386	47,306	102.0

주 : 수산식물 제외.

자료 : FAO, *Yearbook of Fishery Statistics*, 2001.FAO,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 2001.

<표 4-2>

FAO의 2010년 세계 어업생산 예측

단위 : 만 톤

구분	연도	1998	1999	2000	2001	FAO 예측(2010)		
						비관적	낙관적	중간치
어업생산량		8,759	9,360	9,544	9,236	8,000	10,500	9,250
양식생산량		3,052	3,350	3,549	3,785	2,700	3,900	3,300
총 생산량		11,811	12,710	13,093	13,021	10,700	14,400	12,550
비식용		2,528	3,252	3,476	3,127	3,300	3,000	3,150
식용생산량		9,283	9,458	9,617	9,894	7,400	11,400	9,400
인구(백만 명)		5,900	6,000	6,100	6,100	7,005	7,005	7,005
1인당 공급량(kg)		15.7	15.8	16.0	16.2	10.6	16.3	13.4

주 : 1) 낙관적 수치는 현재의 어업관리시스템이 전 해역에서 개선되거나 투기 수산물이 현저하게 감소된다는 가정에 의함.

2) 비관적 수치는 현재의 어업관리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의함.

자료 :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02.

2. 한국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

1) 한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한국의 수산물 공급 및 수요구조를 살펴보면, 2001년 기준 총 공급량 4,981천 톤 중에서 국내생산 54%, 수입 36%, 재고 10%로 구성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총 공급량 5,521천 톤 중에서 국내생산 45%, 수입 41%, 재고 14%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2003년에는 총 공급량 5,521천 톤 중에서 수입이 41%로 200만 톤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총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해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생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3>

한국의 수산물 공급구조

(단위: 천 톤, %)

구 분 \ 연 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3
계(C)		2,519	3,931	4,756	4,820	4,860	4,067	4,516	4,981	5,521
공급	국내생산	2,410	3,275	3,348	3,244	3,244	2,834	2,514	2,665	2,483
	수입(A)	41	380	948	1,205	1,189	753	1,420	1,806	2,268
	재고	68	276	460	371	427	480	582	510	770
	A/C(%)	1.6	9.7	19.9	25.0	24.5	18.5	31.4	36.2	41.1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한국의 수산물 소비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여타 소비 감소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 수산물의 국내소비는 1998년에는 IMF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약 80만 톤 정도나 감소한 2,394천 톤이었으나, 그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01년에는 1995년의 3,200천 톤대로 회복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3,576천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은 1990년 이후 1백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한국의 수산물 수요구조

단위: 천 톤, %

연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2000	2001	2003
구분	계(C)	2,519	3,931	4,756	4,820	4,860	4,067	4,516	4,981	5,521
수요	국내소비	1,746	2,583	3,215	3,202	3,187	2,394	2,668	3,260	3,576
	수출(A)	696	1,058	1,170	1,191	1,193	1,354	1,338	1,080	1,202
	이월	77	290	371	427	480	319	510	641	743
	A/C(%)	27.6	26.9	24.6	24.7	24.5	33.3	29.6	21.6	21.8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한국의 어업부문별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일반해면어업의 경우,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저하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어장 축소 등에 따른 결과이며, 원양어업의 경우 연안국들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어장상실과 국제적인 어족자원의 보호조치에 따른 일부어업의 규제, 그리고 연안 자원국의 입어조건의 강화 등에 따른 해외어장에서의 조업위축에 기인한다.

양식어업도 어장의 환경악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하락과 시장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최근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표 4-5> 한국의 어업별 생산량

단위: 천 톤, %

	총생산량	연근해				원양		내수면	
		소계	비중	해면어업	해면양식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1988	2835	2086	73.6	1308	777	723	25.5	27	0.9
1999	2911	2101	72.2	1336	765	791	27.2	18	0.6
2000	2514	1842	73.3	1189	653	651	25.9	21	0.8
2001	2665	1908	71.6	1252	656	739	27.7	18	0.7
2002	2476	1877	75.8	1096	782	580	23.4	19	0.7
2003	2487	1923	77.3	1096	826	545	21.9	20	0.8

자료: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각 연도.

수산물의 어종별 생산량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어류 생산량이 1980년대 중반까지 총생산의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97년에는 48%까지 줄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1998년 이후 회복되어 2001년도에 약 55%에 이르렀으나, 이는 어류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구성비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갑각류의 경우 1995년에 120만 톤으로 1980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산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1년에는 1995년도의 약 6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양식새우의 대량 폐사와 자원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근해 어종별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도 생산량 순위가 쥐치, 멸치, 갈치, 명태, 고등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도에는 쥐치와 명태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 멸치, 고등어, 갈치 등과 함께 대량 어획되는 어종으로 밝혀졌다(<표 4-6> 참조).

<표 4-6>

한국 연근해 어업 어종별 생산량

단위: 천 톤, %

연도	계	명태	갈치	조기	고등어	멸치	정어리	가자미	쥐치	오징어	기타
1980	1,440	96	120	49	63	170	38	19	229	48	608
1985	1,494	85	128	27	69	144	108	19	257	43	614
1990	1,542	27	104	43	97	168	133	13	230	75	652
1995	1,425	9	95	45	201	231	14	14	2	201	613
2000	1,189	1	81	27	146	201	2	15	3	226	487
2001	1,252	1	80	11	204	274	1	15	2	226	438
2002	1,096	1	60	14	142	236	1	14	1	227	400
연평균 증가율	-0.6	-18.7	-1.8	-6.6	5.5	2.2	-15.2	-1.1	-19.4	7.3	-1.5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각 연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오징어 어획량의 급격한 증가는 동해를 비롯한 서해와 남해의 대량 어획에 기인하였다. 멸치, 갈치, 고등어와 같은 난류성 어종의 어획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나, 명태, 정어리, 쥐치 등의 급격한 어획량 감소는 남획,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근해 어족자원의 급격한 감소, 지구온난화에 따른 연안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서식어장의 환경이 난류성 어종에 적합하지 않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해조류의 경우에도 1995년 671천 톤이던 생산량이 2003년에는 457천 톤으로 약 3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해조류 양식에 있어서의 어가 경영수지의 악화와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표 4-7> 참조).

<표 4-7> 한국의 수산물 류별 생산실태

단위 천 톤

연도	계	어류	갑각류	패류·연체동물	해조류	기타
1980	2,410	1,498	53	524	317	18
1985	3,103	1,838	79	708	444	34
1990	3,275	1,888	119	784	442	42
1995	3,348	1,695	120	827	671	35
2000	2,514	1,280	83	728	388	35
2003	2,487	1,144	89	782	457	15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각 연도.

주요 품목별 생산을 살펴보면, 어류의 경우 넙치와 조피볼락이 2002년 어류 생산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송어의 생산량이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패류의 경우 굴(86%), 홍합(6.2%), 바지락(5%), 피조개(2.2%)의 순으로 생산량을 구성하고 있으며, 해조류는 미역과 김이 각각 생산의 49%와 42%를 차지하였다(<표 4-8> 참조).

패류와 해조류의 양식 생산량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패류의 경우 홍합, 피조개 등의 양식어장이 장기간의 연작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조류는 미역양식 생산량

감소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작용하였다. 수출량 감소와 과잉생산에 따른 내수시장에서 해조류 소비의 한계는 양식 경영체의 타품목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표 4-9> 참조).

<표 4-8> 한국 해면 양식어업의 주요 어종별 생산량

단위: 천 톤

구 분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772,731	996,451	777,230	765,252	653,373	655,827	781,544
넙치	1,037	6,733	22,277	21,368	14,127	16,426	23,343
조피볼락	386	985	12,544	9,459	8,473	9,254	16,548
송어류	0	34	106	347	968	1,415	3,898
농어	391	193	940	797	605	873	2,006
참돔	228	25	146	176	412	641	960
대하	257	404	846	1,142	1,158	2,081	1,403
굴류	219,124	191,156	175,926	177,259	177,079	174,117	182,229
홍합	9,759	75,353	17,785	15,042	11,713	13,653	13,201
바지락	61,713	15,260	17,178	16,135	17,927	16,433	10,652
피조개	17,758	9,357	23,029	8,550	10,518	7,359	4,745
미역	269,333	386,819	239,742	213,706	212,429	175,490	242,135
김	97,637	192,960	191,578	205,706	130,488	167,909	209,995
다시마류	8,084	27,295	7,931	25,447	14,160	17,506	24,873
미더덕	11,523	3,675	5,650	11,292	13,889	15,084	5,266

자료 : 해양수산부(<http://www.momaf.go.kr>), 통계청.

<표 4-9>

한국 해면 양식어업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

연도	계	패 류				해 조 류				기타
		소계	굴	홍합	기타	소계	김	미역	기타	
1980	541	283	173	61	49	258	56	196	6	-
1985	788	369	243	48	78	397	110	256	31	22
1990	773	326	219	10	97	412	98	269	45	35
1995	996	312	191	75	46	649	193	387	69	35
2000	653	222	177	12	33	375	131	212	32	56
2001	656	217	174	14	29	374	168	175	31	65
2002	781	212	182	13	17	497	210	242	45	72

주 : 1983년부터 조사된 기타는 우렁쟁이, 미더덕, 해삼, 성게 등임. 2002년 기타는 어류 48천 톤을 합한 수치. 양식어류통계는 2002년부터 실림.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본자료」, 각 연도.

한국에 등록된 어선은 척수 면에서 2001년을 제외하고 1996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톤수는 1999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단위 어선당 톤수가 1996년 12.9톤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01년에는 9.3톤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어선의 규모가 소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부터 실시한 연근해 어선에 대한 감척 사업으로 인하여 1996년에 어선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으나 그 이후 200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1997년과 1998년에 실시한 무적선의 양성화 과정에서 연근해 어선수는 전기 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증가하였다(<표 4-10> 참조).

<표 4-10>

한국의 어선등록 현황

단위: 척, 톤

구 분		1995	1999	2000	2001
합계	척수	76,801	94,852	95,890	94,935
	동력	71,041	87,502	89,294	89,347
	무동력	5,760	7,350	6,596	5,588
	톤수	958,599	991,956	923,099	884,853
	동력	951,213	986,339	917,963	880,467
	무동력	7,368	5,617	5,136	4,386
연근해	척수	51,357	66,776	68,629	67,990
	톤수	445,196	434,143	397,868	386,181
양식	척수	19,906	21,742	20,359	19,856
	톤수	27,140	29,733	28,516	28,945
내수면	척수	2,399	2,742	3,664	4,330
	톤수	1,653	1,589	2,874	3,490
원양	척수	625	620	597	568
	톤수	352,002	365,146	349,420	335,552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해양환경 통계」, 2002.

한국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살펴보면, 1980년 27kg에서 1995년 45.1kg으로 증가하여 약 6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00년 35.6kg으로 나타났다.

<표 4-11>

한국의 연도별 수산물 소비량

단위: kg, 1인/년

연도	계	어패류	해조류
1980	27	22.5	4.5
1985	37.2	30.7	6.5
1990	36.2	30.5	5.7
1999	38.3	30.7	7.6
2000	35.6	30.6	5.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 연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정책의 목표는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소비자 만족이라는 측면이 추가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통주체인 상인, 가공업자, 물류업자 등은 이윤 추구자 또는 통제의 대상에서 소비자만족을 추구하는 동반자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수산물유통은 크게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산물 취급을 위한 국내 유통시설은 346개소로 소비지시장이 25개소이며 나머지는 산지 시장이다.

<표 4-12>

한국의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도매시장	수협공판장	수협위판장	직판장	물류센터
346	15	7	229	92	3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2.

산지시장²⁶⁾은 생산자, 수협, 산지중매인, 수집상, 가공업자, 물류업자 등에 의해 구성되며, 위판장(혹은 공판장)을 통하여 유통되는 계통출하와 위판장을 통하지 않는 비계통출하로 구분할 수 있다. 2001년에 계통출하된 수산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76%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위판장은 소규모 수집상과 달리 산지시장 유통량이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산지시장을 대표하고 정부 유통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

26) 산지시장이란 '어업생산지에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어획물의 양륙과 양륙된 수산물의 1차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함. 교육부, 「고등학교 수산경영」, 부경대학교 1층 도서연구개발위원회, p.144.

<표 4-13>

한국의 수산물 계통판매 현황

단위: M/T, 백만 원, %

연 도	물량			금액		
	어업생산량	위관량	비율	어업생산량	위관금액	비율
1990	2,314,744	1,711,438	73.9	1,915,812	1,318,196	68.8
1995	2,421,664	1,564,960	64.6	3,127,524	2,187,373	69.9
2000	1,873,422	1,368,394	73.0	3,028,149	2,077,640	68.6
2001	1,907,925	1,446,236	75.8	3,185,470	2,165,100	67.9

주 : 어업생산량 부문은 연근해 및 양식생산임(원양 제외).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 동향에 관한 연차 보고서」, 2002.

수산물 소비지도매시장²⁷⁾의 경우, 2001년 현재 25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영도매시장이 12개소이며 일반법정도매시장이 3개소가 있다. 연근해 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을 어업생산량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계통판매량 비중은 1997년도에 45.9%를 기록한 후 200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증가하다가 2001년에는 49.9%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소비지도매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물량은 2001년도 어업생산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396천 톤이며, 계통판매량의 27.4%에 해당한다. 이는 산지에서 계통출하되는 어업생산량비율인 70%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전국 소비지도매시장 거래물량의 66.4%에 해당하는 263천 톤이 2001년 서울 지역에서 거래되었으며,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53.2%, 전체 일반법정도매시장의 96%를 서울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27) 공영도매상(공관장 포함)·일반법정시장·민영시장, 재래시장, 신유통업체를 말함.

<표 4-14> 한국의 수산물 소비지 도매시장의 취급량(울)

단위: 천 톤, %

연도	어업 생산량	계통 판매량	소비지도매시장					
			전국			서울지역		
			합계	공영	법정	계	공영	법정
1997	3,244	1,489 (45.9)	447 (13.8)	301 (9.3)	146 (4.5)	324 (10.0)	184 (5.7)	140 (4.3)
2000	2,514	1,368 (54.4)	409 (16.3)	285 (11.3)	124 (4.9)	267 (10.6)	148 (5.9)	119 (4.7)
2001	2,900	1,446 (49.9)	396 (13.7)	274 (9.4)	122 (4.2)	263 (9.1)	146 (5.0)	117 (4.0)

주 : 1) 어업생산량은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원양어업 생산량의 합계.

2) 소비지도매시장 물량은 수입품을 포함한 것임.

3) 수협 외발산동 공판장은 제외.

자료 : 수협중앙회, 「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연도.

해양수산부, 「신어업·어촌발전전략연구」, 2003.

한국의 수산물 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공급은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른 생산의 변동과 어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계획적인 생산이 곤란하고 수급조절이 힘들어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패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여 가파른 상승세로 증가함으로써 높은 가격상승률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상반기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육류나 낙농품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지수를 기록하여 동기간 수산물 소비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표 4-15>

한국의 연도별 주요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기준

연도	총지수	식 료 품					식료품 이 외
		곡류	육류	낙농품	어개류		
1998	97.0	96.4	90.8	87.3	105.2	93.8	97.2
1999	97.8	99.1	95.8	92.3	101.7	99.4	97.2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104.1	103.5	100.9	108.8	103.4	105.5	104.3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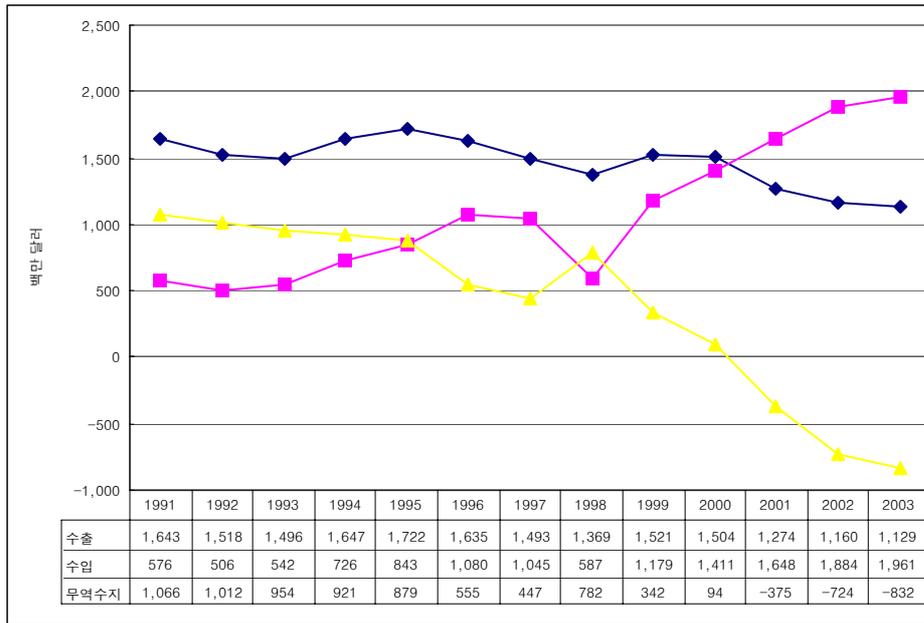
2)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구조

(1)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수지는 1960년대 수출 드라이브정책으로 수산물 무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흑자구조는 1970년대 이후 제한적인 수산물 수입과 함께 수산물 무역흑자의 폭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1990년대 중반까지 수산물 무역수지는 안정적인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였다. 1991년 무역수지 흑자는 10억 달러 가까이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01년도에는 처음으로 3억 7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도 8억 3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국내적으로는 불법어로 및 남획과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자원감소,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수산물 수출경쟁력 약화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주력 수출시장인 일본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산물의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대폭적으로 수산물 생산을 증강하거나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이상 수산물 수입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4-1>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우리나라와 수산물 교역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별 최근 3년간 무역수지는 다음의 <표 4-16>과 같다.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교역국은 일본, 스페인, 홍콩 등 일부 국가임에 반하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교역국으로는 세계 주요 수산물 수출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태국 등으로 향후 수산물 수입이 매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금액 면에서 살펴보면, 총 수출액의 70.9%(2002년)를 일본으로 수출하여 특정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국제 수산물 주요 수출국인 중국, 태국 등의 아시아지역과 미국 등의 아메리카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향후 수산물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16>

한국의 주요 국가별 수산물 무역수지

단위: 천 달러

국별 연도	2000			2001			2002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일본	1,125,248	185,109	940,139	924,873	139,129	785,744	823,117	146,497	676,620
중국	84,090	486,841	-402,751	55,709	634,449	-578,740	48,345	719,314	-670,969
미국	78,712	145,366	-66,654	82,210	158,520	-76,310	77,625	173,774	-96,149
스페인	25,046	10,303	14,743	41,503	8,629	32,874	33,077	8,015	25,062
태국	22,691	67,750	-45,059	32,943	83,288	-50,345	34,492	84,737	-50,245
대만	18,137	31,343	-13,206	16,790	45,777	-28,987	16,857	54,993	-38,136
캐나다	10,703	18,637	-7,934	13,281	24,924	-11,643	12,155	43,178	-31,023
필리핀	13,059	17,245	-4,186	5,681	18,021	-12,340	3,659	19,421	-15,762
홍콩	13,160	9,952	3,208	9,946	3,776	6,170	8,445	3,415	5,030
인도네시아	6,981	28,378	-21,397	4,628	25,175	-20,547	4,999	22,718	-17,719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2) 한국의 수산물 수출입 현황

2002년도를 기준, 주요 품목별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총 403개 HS 품목²⁸⁾중에서 281개 품목(HSK 기준)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참치, 굴, 오징어, 붕장어, 생선묵 등 상위 5개의 품목이 45%(물량 기준으로는 5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주력품목인 원양참치는 최대 수출국인 일본(총 수출금액의 87% 차지)의 경기침체로 전년에 비하여 약 20%(물량 20%)나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 붕장어가 전년대비 18%(물량 14%), 오징어가 26%(물량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우리나라의 연도별·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기준 수산물 수입물량은 전년에 비하여 130천 톤(12% 증가)이 증가한 1,184천 톤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금액은 236천 달러가 증가한 1,184천 달러로 나타났다(<표

28) 2003년 수산물 HSK품목은 전년보다 3개 품목이 증가한 406개임.

29)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참조.

4-17> 참조). 특히,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산물 수입물량의 76%(금액기준 73%)를 차지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중국 WTO 가입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은 2002년도 기준, 전체 수산물 403개 중 312개 품목(HSK 기준)이 수입되었으며, 금액기준으로 조기, 명태, 갈치, 명란, 아귀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입품목 중 24%(물량 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실적은 전체 수산물의 60%(수입물량기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집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8> 참조).

<표 4-17> 상위 20개국의 연도별 수산물 수입실적 추이

단위: 톤, 천 달러

국별	1999		2000		2001		200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746,327	1,178,968	749,191	1,410,598	1,056,252	1,648,372	1,186,400	1,884,417
중국	295,713	413,270	283,420	486,841	474,045	634,449	491,315	719,314
러시아	129,402	205,033	81,265	125,031	92,856	153,756	189,464	215,638
미국	77,361	129,816	75,588	145,366	93,969	158,520	89,603	173,774
일본	52,085	107,206	67,741	185,109	69,679	139,129	74,536	146,497
베트남	20,819	39,549	33,374	72,240	49,107	101,486	61,504	121,733
태국	11,786	43,523	18,284	67,750	28,184	83,288	29,106	84,737
대만	18,479	21,073	18,970	31,343	26,821	45,777	32,167	54,993
캐나다	8,938	18,871	5,791	18,637	8,452	24,924	14,824	43,178
노르웨이	4,154	12,162	6,246	18,048	14,911	26,485	13,754	26,152
인도네시아	14,820	22,962	15,268	28,378	15,206	25,175	13,837	22,718
칠레	12,777	12,336	26,195	23,710	32,375	25,919	22,752	22,375
영국	2,040	7,594	2,915	13,859	6,603	16,319	11,881	21,902
필리핀	4,830	11,054	6,704	17,245	8,745	18,021	9,447	19,421
인디아	2,051	4,581	5,621	11,351	14,539	16,225	14,977	19,269
멕시코	8,798	15,250	17,994	23,686	18,272	16,514	17,532	18,806

상위 20개국의 연도별 수산물 수입실적 추이(계속)

국별	연도		1999		2000		2001		200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아일랜드	2,008	5,335	2,663	8,873	6,216	11,493	5,825	13,885		
모로코	1,460	8,261	1,291	2,263	2,934	13,661	2,636	13,395		
페루	13,892	9,650	18,972	10,563	15,819	13,345	14,799	13,271		
뉴질랜드	8,999	14,624	6,088	15,703	6,206	15,842	3,986	10,638		
아르헨티나	10,922	10,621	6,501	9,140	5,109	7,517	7,900	10,521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표 4-18> 주요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실적 현황(2002년 기준)

순위	HS	K	Code	품목명	중량(kg)	금액(\$)
1	0303	79	6000	조기(냉동)	52,791,676	137,876,790
2	0303	79	1000	명태(냉동)	139,990,652	89,531,900
3	0303	79	3000	갈치(냉동)	46,383,813	81,070,378
4	0303	80	2010	명란(냉동·피레트, 어육 제외)	9,063,986	80,182,536
5	0303	79	9091	아귀(냉동)	24,687,576	69,986,086
6	0304	90	1090	기타연육(냉동)	62,418,854	64,817,897
7	0306	14	3000	꽃게(냉동)	20,464,991	61,925,219
8	0306	13	9000	기타새우, 보리새우(냉동)	14,333,324	51,482,364
9	0304	90	1010	명태연육(냉동)	29,816,742	48,772,335
10	0306	24	1090	기타게(산 것, 신선, 냉장)	12,128,586	41,772,071
11	0307	59	1020	낙지(냉동)	25,183,797	40,336,531
12	0302	69	9090	기타 어류(신선, 냉장)	16,759,378	39,118,291
13	0303	74	0000	고등어(냉동)	37,565,991	38,006,236
14	0303	79	9099	기타 어류(냉동)	45,117,702	35,181,519
15	0302	69	1000	명태(신선, 냉장)	17,253,724	33,832,415
16	0306	13	1000	새우살(새우, 보리새우(냉동))	7,867,124	32,353,974
17	1604	19	9010	퀴치포(통조림 외 조제품)	6,947,476	28,165,359
18	0303	79	9097	까나리(냉동)	126,107,075	28,048,224
19	0301	92	9000	뱀장어 기타(앵귤라종, 활어)	5,107,252	28,042,134
20	0304	20	9000	기타 어류피레트(냉동)	8,994,110	27,993,085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A)					708,983,829	1,058,495,344
전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량 및 금액 평균(B)					1,186,400,312	1,884,416,834
(A/B)					59.8%	56.2%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한 수산물에는 총 403개 품목 중에서 총 220개 품목(HSK 기준) 8억 2,300만 달러이며, 이 중에서 상위 20개 품목이 73%를 차지하였으며, 그 순위는 눈다랑어, 캐비아 대용물, 황다랑어, 굴, 피조개, 넙치, 붕장어 피레트, 명란 등이 차지하였다.

그러나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점유율은 1999년 7.3%를 정점으로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6.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4-19> 일본시장에서 한국의 수산물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 연 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산물 총수출(A)	1,635	1,493	1,369	1,521	1,505	1,274	1,160
대일 수출(B)	1,231	1,031	958	1,112	1,125	925	823
전년대비 증감율(A)	-4.6	-8.7	-8.3	11.1	-1.1	-15.3	-8.9
전년대비 증감율(B)	-4.9	-16.2	-7.1	16.1	1.2	-17.8	-11.0
비중(B/A)	75.3	69.1	70.0	73.1	74.8	72.6	70.9
일본시장 점유율	7.0	6.4	7.1	7.3	7.2	6.8	6.0
대일 수입(C)	59	72	38	107	185	139	146
대일 무역수지(B-C)	1,172	959	920	1,005	940	786	677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표 4-20>

한국의 대중·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

단위: kg, 달러

순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합계	491,314,600	719,313,514	합계	74,535,964	146,496,561
1	조기(냉동)	52,591,964	137,496,820	명태(신선,냉장)	17,202,250	33,763,948
2	갈치(냉동)	30,316,072	65,175,095	갈치(신선,냉장)	3,318,317	12,263,985
3	꽃게(냉동)	12,102,703	41,848,306	돔(활어)	1,836,938	11,687,628
4	낙지(냉동)	21,887,202	35,080,694	기타 어류(냉동)	11,906,159	9,052,757
5	기타 어류(신선,냉장)	14,192,723	33,932,511	콩치(학꽂지 포함(냉동))	7,449,134	5,630,967
6	까나리(냉동)	125,897,825	27,963,640	명태(냉동)	8,752,010	5,571,007
7	문어(산것,신선,냉장)	11,326,765	24,677,281	기타 어류(신선,냉장)	2,528,189	5,098,573
8	아귀(냉동)	10,916,034	18,622,031	전복(산것,신선,냉장)	90,845	5,045,393
9	명태피레트(냉동)	10,110,084	17,180,499	먹장어(활어)	733,643	5,040,821
10	농어(활어)	4,157,591	16,649,421	기타어류피레트(냉동)	1,072,749	3,862,828
11	새우살(새우와보리새우(냉동))	5,324,406	15,724,524	명란(냉동, 피레트, 어육 제외)	433,668	3,479,281
12	붕어(활어)	10,873,963	14,481,980	참다랑어피레트(냉동)	91,357	2,841,095
13	기타 어류(냉동)	23,046,477	14,246,368	돔(신선,냉장)	444,580	2,810,029
14	복어(냉동)	7,204,754	13,490,728	어류의유지, 분획물(간유 제외)	96,015	2,730,839
15	뱀장어 기타(앵귤라종(활어))	2,607,937	13,351,162	농어(활어)	481,280	2,527,289
16	미꾸라지(활어)	8,920,466	11,755,985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3,833,981	2,509,386
17	새우와보리새우(건조)	2,131,860	11,405,214	참다랑어(냉동)	139,496	1,975,717
18	민어(활어)	5,481,556	10,953,649	능성어(활어)	124,258	1,859,166
19	기타 연육(냉동)	13,543,460	10,459,424	문어(산것,신선,냉장)	531,479	1,641,847
20	노래미(활어)	1,933,059	10,345,943	기타연체동물(신선,냉장)	1,983,962	1,603,519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의 자료를 재구성.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별 내역은 <표 4-19>와 같다. 중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조기, 갈치, 꽃게, 낙지, 기타 어류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금액으로는 43.6%(물량은 26.7%)로 313,533천 달러(물량 131,090천 톤)를 나타냈으며, 그 중 단일품목인 조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수입금액 중 19%를 차지해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명태, 갈치, 돔, 기타어류, 학꽂치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일본으로부터의 전체 수입금액 중 49.4%(물량 56%)인 72,399천 달러(물량 41,712천 톤)로 나타나, 중국에서의 주요 품목 수입구조와 비슷한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일품목인 명태에 대한 수입은 전체 수입금액 중 23%(수입물량 23.1%)로, 중국산 조기수입과 마찬가지로 특정, 단일품목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3. 중국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

1)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중국의 수산물 총공급은 199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을 기준으로 약 4,100만 톤 생산과 130만 톤 정도의 수산물 수입을 합하여 4,200여만 톤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3.2% 정도가 수입되고 있다.

1990대 초반 이후 양식어업의 발전으로 공급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유통체제의 개선으로 수산물의 지역 간 이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물 가공, 보관 기술 등이 낙후되어 지역별 수산물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부지역의 수산물 생산점유율이 약 80%에 육박하였는데 반해 중부지역은 18%, 서부지역은 단 2%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의 동해, 황해 및 남해 해역에 실시하고 있는 휴어제도 역시 수산물 수요공급과 계절적 불균형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21>

중국의 수산물 수급구조

단위: 만 톤

연도	공 급			수 요					균형
	합계	생산	수입	합계	식용	가공 원료	수출	손실	
1990	1,427.26	1,427.26	-	1,474.79	1,175.40	93.32	63.07	143	-47.53
1991	1,572.99	1,572.99	-	1,575.58	1,238.35	115.97	64.36	157	-2.59
1992	1,868.46	1,824.46	44.0	1,805.61	1,302.64	235.02	87.95	180	62.85
1995	3,087.04	2,953.04	134.0	2,540.41	1,676.00	443.61	125.80	295	546.63
1999	4,252.93	4,112.43	130.5	3,216.27	2,028.57	538.54	229.16	420	1,036.67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2000.

中國農業部, 「中國農業年鑑」, 1989~2000.

中國農業部, 「中國漁業統計彙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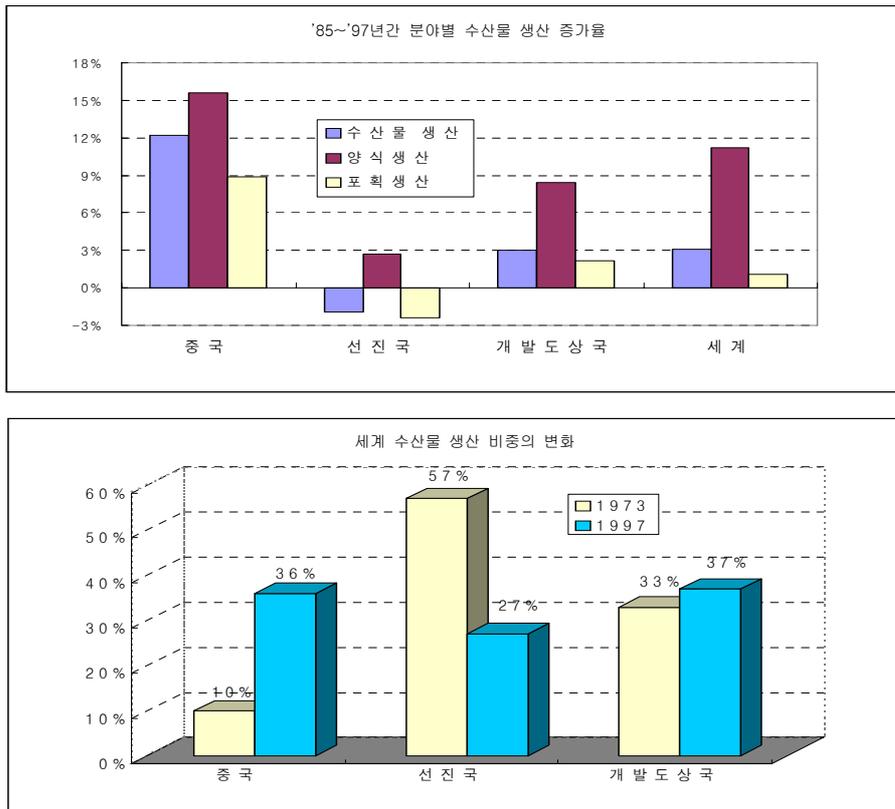
중국의 수산물 수요는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수산물 수출 수요 급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 하였으나 수산물 생산 증가로 1999년에는 수산물 재고량도 1천만 톤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현재,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출도 전 세계 수출의 1/3을 차지하여 거대 수산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⁰⁾

30) FAO, *Fishery Statistics*, 2001 기준임.

<그림 4-2>

중국 수산물 생산의 세계적 위상



자료 :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및 World Fish Center, 2003.10.

2002년 중국의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4,565만여 톤으로 이 중에서 해면어업은 58%인 2,646만 여 톤, 내수면어업은 45%로 1,919만여 톤이 생산되었다. 어로어업과 양식어업을 비교해 보면 양식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6%이고, 내수면 양식생산량이 37%로 해면 양식생산량인 27%보다 높았다. 어종별로는 해면 양식의 경우 패류, 해조류, 갑각류, 어류 순으로 생산량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산둥, 복건, 광둥성에서 해면 양식생산량이 많았다.

중국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량을 보면 주요 11개 수산물 생산지역의 총생산이 전체 수산물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의 비중은 2001년을 기준으로 각각 59%, 41%로 나타났다.

<표 4-22>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

단위 : 천 톤, %

	2001	2002	생산량 증감	증가율
총 생산량	43,821	45,652(100)	1,831	4.0
해면(비중, %)	25,721	29,463(58.0)	742	2.00
어로	14,406	14,335	-71	-0.49
양식	11,315	12,128	813	7.18
내수면(비중,%)	18,100	19,188(42.0)	1,088	0.59
어로	2,150	2,248	98	4.55
양식	15,950	16,940	990	6.2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3.12.

<표 4-23>

중국의 지역별 어업생산량 및 주요 양식 품종(2002년)

단위: 천 톤

	총생산량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비중	주요 양식 어종
전국	45,652	26,463	19,188	100	
산둥	6,950	5,983	968	15.2	대하, 가리비, 해삼, 전복
광둥	6,281	3,744	2,537	13.7	대하 양식
복건	5,587	4,948	639	12.2	
절강	4,807	4,093	714	10.5	
요녕	3,748	3,271	478	8.2	
강소	3,344	971	2,373	7.3	
호북	2,723	-	2,723	6.0	민물게, 새우류, 병어, 철갑상어
광서	2,551	1,664	887	5.6	
안휘	1,634	-	1,634	3.6	민물게, 새우
호남	1,493	-	1,493	3.2	진주 양식, 민물게
기타	6,533	1,789	4,743	14.3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3.12.

산둥은 해면 생산량이 내수면 생산량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특히 해면 양식수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고, 해면 어획량도 절강에 이어 중국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둥에 이어 복건이 해면 수산물 최대생산지역으

로 나타났으며 이어 절강, 광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광둥의 경우, 내수면 양식생산이 다른 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밖에 호북, 안휘, 호남, 강서 등은 해면 생산량이 전혀 없는 대신 내수면 생산량이 지역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중국의 수산물 류별 생산량 및 비중(2002년)

단위 : 천 톤

	해면	비중	내수면	비중
어류	10205	38.6	17102	89.1
새우 및 게류	3098	11.7	1226	6.4
패류	11324	42.8	551	2.9
해조류	1334	5.0	-	-
기타	504	1.9	309	1.7
총 생산량	26463	100	19188	100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3.12.

<표 4-25> 중국의 주요 수산품목별 생산량 추이

단위: 천 톤

순위	품목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8,959	10,268	12,489	21,764	23,567	24,719	25,387	25,721
1	갈치	878	1,040	1,072	1,015	1,223	1,223	1,286	1,283
2	멸치	439	489	671	1,202	1,373	1,097	1,143	1,261
3	가리비	-	-	-	1,000	629	712	920	960
4	다시마	-	-	-	787	793	895	830	798
5	홍합	-	-	-	398	541	608	535	568
6	보리새우	326	390	442	480	571	579	625	566
7	가라지	431	515	608	506	533	503	502	545
8	삼치	203	227	284	340	518	566	497	477
9	대하	-	-	-	-	221	241	302	401
10	고등어	336	372	374	409	385	403	351	382

자료 : 中國農業出版社, 「中國漁業年鑒」, 각 연도.

중국의 어촌 수는 9,770개이고 어업 종사자 수는 1,300여만 명으로 총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표 4-26> 참조).

<표 4-26>

중국의 어업인구 현황

단위 : 명, 위안

	어촌수	어가(호)	어가인구	어업종사자	1인당 연간소득	어가소득*
전국	9,770	4,907,519	20,441,762	13,128,693	5,051	8667
산둥	1,247	506,823	1,903,073	1,041,417	6,050	11055
광둥	1,127	519,714	2,216,291	1,293,077	6,200	13400
북건	476	441,364	1,831,092	888,761	4,941	10181
절강	795	362,757	1,655,491	786,944	6,008	12639
요녕	1,955	202,678	626,876	427,322	6,500	12000
강소	539	329,582	1,317,136	1,209,594	6,120	6664
호북	309	379,260	1,439,681	921,549	3,800	5937
호남	321	519,714	2,216,291	1,293,077	3,221	5773
기타	2,602	1,272,467	5,556,498	4,091,322	-	-
어업인구/총인구: 1.59%, 어가/총호수: 1.32%						

자료 :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 「중국농업연감」, 2003.

中國農業出版社, 「中國漁業年鑒」, 해당 연도.

중국은 1996년부터 해면 어업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도 수산물 총 생산량은 4,382만 톤에 이르렀는데, 이 중 해면 어업이 2,572만 톤, 내수면 어업이 1,809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는 해면양식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2001년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과 비교해 85.3% 증가하였다.

해면어업은 1980년 총 수산물 생산량의 72.4%에 이르던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에는 58.7%로 하락하였다. 같은 기간 해면 어업 생산량의 86.4%에 달하던 어획량도 정부의 어업환경 및 자연보호 노력의 강화와 계획적인 제로

(zero)성장 목표로 인해 그 비중이 56%로 감소하여 해면 어업 생산량 증가율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해면 어업의 류별 생산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도에 어류는 전체 해면 어업 생산량의 72%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에는 39.4%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패류의 해면 어업 생산량은 7.2%에서 42.1%로 증가하여 어류의 생산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전체 해면 생산량 대비 양식 어업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7> 중국 해면어업 류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연도	합계	어획	해면양식	품목별 생산량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
1985	4,197.5	3,485.2	712.3	2,745.3	706.2	473.0	273.0	-
1990	7,132.9	5,508.9	1,624.1	4,231.5	1,070.5	1,473.3	275.2	82.5
1995	14,391.3	10,268.4	4,122.9	7,581.4	1,848.3	3,922.8	749.1	289.6
1999	24,719.2	14,976.2	9,743.0	10,581.1	2,770.8	9,590.8	1,194.4	582.0
2000	25,387.4	14,774.5	10,612.9	10,327.1	2,970.1	10,389.5	1,222.0	478.7
2001	25,721.5	14,406.1	11,315.3	10,127.1	3,022.0	10,822.4	1,241.5	508.5
2002	26,463.3	11,443.9	12,128.4	10,205.2	3,098.0	11,324.3	1,331.4	504.3

자료 :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 「중국농업연감」, 2003.
國家統計局, 「中國農業統計資料」, 1998~2001.

중국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은 해면과 달리 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율이 1980년도에 27.6%에 불과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01년도에 41.3%에 이르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내수면 생산량의 증가율은 1980년도에 11.1%였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4년도에 26.9%로 최고성장률을 나타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내수면 양식 생산량의 증가에 기인한다.

품목별 생산량 순위를 살펴보면 어류, 갑각류, 패류 등의 순이다. 어류의 경우 지속적인 생산량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비중이 여전히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갑각류의 생산은 내수면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패류의 경우 해면 생산에서와는 달리 점유율은 3% 내외에 머물고 있다.

<표 4-28> 중국의 연도별 내수면 어업 생산량

단위 : 천 톤

연도	합계	어획	내수면양식	품목별 생산량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1985	2,854.1	476.3	2,377.7	2,764.8	55.4	33.9	
1990	5,237.3	783.0	4,454.2	5,049.3	94.6	75.8	17.6
1995	10,780.5	1,372.9	9,407.6	10,186.1	273.0	205.1	116.2
1999	16,505.1	2,285.4	14,219.7	15,169.0	706.8	435.0	194.4
2000	17,402.6	2,233.2	15,169.4	15,786.9	859.8	480.2	275.6
2001	18,099.5	2,149.9	15,949.6	16,304.5	1,001.5	529.6	263.9
2002	19,188.4	2,247.9	1,6940.5	17,101.8	1226.4	551.0	309.2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農業統計資料」, 1998~2001.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 「중국농업연감」, 2003.

중국 양식업 발전의 특징은 지역별 비교우위 품종 형성, 양식업 투자확대 및 투자주체 다양화, 무공해 수산양식 부문의 급속한 발전, 어업시설 부문의 발전, 환경친화적 어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양식업정책은 양식증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완비를 목표로 양식업자의 합법적 권리보호와 농어촌지역의 단결과 양식업 성장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양식품종의 가공유통체계 낙후성, 수산종묘의 품질안정성 문제, 법 집행 혹은 관리감독의 비효율성, 양식권에 대한 권일 침해, 밀식관련 문제 등이 중국의 양식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표 4-29>

중국의 양식생산량, 면적 및 단위 생산량

구 분	2002			2003		
	생산량 (톤)	면적 (ha)	단위 생산량 (kg/ha)	생산량 (톤)	면적 (ha)	단위 생산량 (kg/ha)
해면양식	12,128,437	1,344,754	9,019	11,315,323	1,286,458	8,796
내수면양식	16,940,493	5,469,883	3,097	15,949,588	5,362,302	2,974
못양식	12,150,110	2,356,842	5,155	11,451,923	2,286,079	5,009
하천호수양식	982,919	873,936	1,125	923,611	874,854	1,056
저수지양식	1,687,257	1,643,984	1,026	1,617,583	1,630,517	992
둑양식	659,414	382,532	1,818	671,789	392,420	1,712
기타	376,734	212,589	1,772	435,627	5,183,870	2,441
전답양성어	1,048,059	1,618,242	648	849,055	178,432	556
총계	29,068,930	6,814,637	4,266	27,264,911	6,648,760	4,101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중국양식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3.12.

중국의 양식기술은 국가기관인 중국수산과학연구원과 산하 3개 해역별 연구소와 국가 어업기계연구원 등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양식대국으로 전반적인 양식 기술수준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지만 굴 등 패류 인공종묘 생산기술이나 해삼의 양식 생산기술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해면 양식어장 면적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양식면적은 1998년 대비 28% 증가한 1,286천 ha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패류 양식면적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어류 양식면적은 6%를 약간 상회하는 79천 ha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어선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도에 총 472.8천 척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999년에 그 수가 471천 척으로 약간 감소된 후, 2001년에는 480천 척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전체 어선 가운데 약 59%에 해당하는 282천 척이 해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톤 수는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형어선이 분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4-30>

중국의 어선보유 현황

단위 : 척, 톤

구 분	척 수	톤 수	톤/척
1998	472,756	6,553,994	13.9
1999	470,710 (279,994)	6,694,002 (5,600,419)	14.2 (20.0)
2000	487,297 (289,682)	6,849,326 (5,820,106)	14.1 (20.1)
2001	479,810 (282,834)	6,986,173 (5,972,426)	14.6 (21.1)
2002	478,406 (279,013)	6,933,949 (6,072,810)	14.5 (21.8)

주 : ()괄호 안은 전체에 대한 해면 조업어선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 中國農業出版社, 「中國漁業年鑑」, 해당연도.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 「중국농업연감」, 2003.

중국 수산물 소비는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소비와 식당과 호텔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소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총 식용소비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사회소비 부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인 일인당 수산물 점유량과 소비량을 살펴보면 일인당 점유량은 수산물 생산량과 수입량의 증가에 힘입어 최근 10년간 3배 이상 향상되었다. 그러나 운송·저장기술의 취약함으로 인한 손실과 사료용 어분과 같은 비식용 수입수산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동기간의 약 49%로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표 4-31>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점유량 및 소비량

단위 : kg

연 도	1인당 점유량	1인당 소비량
1989	10.10	6.90
1990	10.90	7.20
1995	23.98	9.69
1999	32.70	10.70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6~2000.

中國農業部, 「中國農業年鑑」, 1989~2000.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수산물 소비량을 비교해보면 1998년을 기준으로 농촌이 도시의 약 3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2> 참조).

<표 4-32>

중국의 1인당 주요 부식품 소비량

단위 : kg

연 도	소득(위엔)		수산물		육안가금류		채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1995	4,283.0	1,577.7	9.20	3.06	33.39	16.34	116.47	104.62
1998	5,425.1	2,162.0	9.84	3.66	34.63	19.64	113.76	109.0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1996~2000.
中國農業部, 「中國農業年鑑」, 1989~2000.

중국의 전통적인 수산물 유통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중간도매 상에 의한 거래, 자가소비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생산과 판매를 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유통시장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유통은 생산, 가공, 소매(판매)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국유수산가공기업과 생산자 그리고 도매소매영업조직의 연합방식, 농촌기업과 사기업 그리고 해당 농촌기업의 수산물 생산자 혹은 어업 공사가 연합한 방식이 있으며 수산생산자와 가공기업, 도매시장이 계약을 통해 연합하는 방식도 있다.³¹⁾

중국의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은 전국적으로 약 347개로 도시지역에 170여 개가 위치하고 있다. 농업부 특별지정 수산물 중심 도매센터는 약 20여개 정도이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수산물 소비가 1,126만 톤, 농촌지역이 971만 톤을 소비하여 다소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동서부 간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요녕성, 산둥성, 강소성, 절강성 및 광둥성 등 주로 연안지역의 수산물 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부의 12개 성, 자치구 및 직할시 등의 수산물 소비는 전체 소비의 11.3%에 불과하였다.

31) 중국인민공화국농업부, 중국농업연감편집위원회, 「중국농업연감」, 2003.

이러한 수산물 주산지과 소비의 지역별 편차는 수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수산물 종합 평균가격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킴과 동시에 수산물 가격의 저평가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수산물시장정보망(Network)이 전국 50여 개 수산물 시장 20개 품종의 가격에 대해 행산 추적 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중국 수산물 시장의 종합평균 가격은 kg당 10.13위엔(한화 약 1500원)으로 2001년보다 4.8%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해면 수산물의 종합평균가격은 kg당 16.72위안(한화 약 2400원), 내수면 수산물 가격은 kg당 7.94위안(한화 약 1,15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77%와 2.33%씩 하락하였다.

도매시장수의 증가와 수산품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뿐만 아니라 수산물 시장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생산자와 경영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보이고 있다. 전국 수산 정보망, 연안국 유해양 어획어업 정보망, 양쯔강 유역 주요 도시 수산 정보망, 14개의 대형도시수산정보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표 4-33>

중국의 소비지 시장 현황

(단위: 개, 억 위안)

연 도	시 장 수			거래금액		
	합계	도시	농촌	합계	도시	농촌
1995	82,892	19,892	63,000	11,590.1	6,176.4	5,413.7
1996	85,391	20,832	64,559	14,694.9	7,882.5	6,812.4
1997	87,105	22,352	64,753	17,424.5	9,468.8	7,955.7
1998	89,177	24,127	65,050	19,835.5	11,042.8	8,792.7
1999	88,576	24,983	63,593	21,707.9	12,325.5	9,382.1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2000.

이처럼 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어 수산물 유통 발전에 공헌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집산(集散)능력, 가격기능, 계산기능과 정보처리능력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수산물의 소비시장은 국유부식품상점과 개별수산상점 및 생산기업의 직판을 제외하고는 주로 각 지역의 집하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소비시장의 현황은 1988년을 기준으로 거의 9만 개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도시 소재가 2.4만 개소, 농촌 소재가 6.5

만 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집하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산물 거래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9년도에 1,801억 위엔에 달하여 전체의 약 8%를 차지하였다.

양식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 수산물 생산량의 증가는 해면 어획량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을 초래했고 동시에 전반적인 물가의 하락과 더불어 수산물 가격의 상승세를 둔화시키다가 1998년 이후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를 동시에 하락시켰다.

<표 4-34> 중국의 수산물 가격 지수

전년=100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지수	124.1	117.1	108.3	102.8	99.2	98.6
총지수(도매)	121.7	114.8	106.1	100.8	97.4	97.0
수산물	120.3	114.4	106.0	100.2	93.9	93.3
수산물(도매)	120.7	114.2	105.6	101.2	94.2	93.6

자료 :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2000.

2) 중국의 수산물 수출입구조

(1)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중국은 국토가 광대한 까닭에 수산물의 수출입은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수산물 수출지역과 수입지역의 구분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북경과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인근 해관³²⁾을 통하여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수

32) 중국의 해관은 우리나라의 세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규정에 의거, 수출입 운송수단, 화물, 여행물품, 우편물과 기타 물품의 통관이 법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의 관리, 관세, 기타 세금 및 비용의 징수, 밀수 사찰, 해관통계의 집계 및 기타 해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체계는 국무원이 설립한 해관총서(海關總署)가 전국의 해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중적, 통일적, 수직적인 체계를 가짐. 대외 개방된 연안지역 및 해관업무가 집중된 주요 지역에 해관기구가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258개 기관이 있음. 특이한 사항은 중국에는 해관기구가 광동성 내에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어 해관총서는 관주시에 직속 해관기구·광동분서를 설립하여 총서의 관리를 지원하고 광동성 내 해관업무를 조정토록 하고 있음.

산물 주요 생산지인 산둥, 요녕, 관동 지역에서는 해면 어로어업과 해면 양식 및 내수면 양식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의 수출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중국의 수산 부문의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1년 기준 수산물 수출은 약 3,996천 달러이며 전체 산업 수출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 수입은 1,319천 달러 정도로 전체 수입 중 약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산 부문의 무역수지는 2,677천 달러 정도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4-35> 참조).

<표 4-35>

중국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수 출	2,935,535 (1.6)	2,651,558 (1.4)	2,957,792 (1.5)	3,651,900 (1.5)	3,996,459 (1.5)
수 입	544,564 (0.4)	667,372 (0.5)	880,878 (0.5)	1,210,283 (0.5)	1,319,019 (0.5)
무역수지	2,390,971	1,984,186	2,076,914	2,441,617	2,677,440

주 : ()안은 전체 수출입 대비 수산 부문의 수출입 비중임.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er(<http://www.intracen.org/>).

(2) 수산물 수출입 현황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 실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13.9%라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상위 5개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85% 내외를 차지하여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의존도는 중국의 상위 20개국에 대한 수출입 금액 실적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해지는데, 2002년 기준 가장 큰 수출대상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산물 수출금액³³⁾ 2,875백만 달러 중 약 38%인 1,096백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33) 여기서 수산물 수출은 진주제품(HS 2단위 71류)을 포함한 수치임.

또한 한국으로의 수출도 동년 기준, 금액으로는 633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2%를 차지해, 2000년 409백만 달러에서 223백만 달러가 증가하였고,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전년 18%에서 4%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중국의 수산물 수출실적: 상위 20개국별 추이(HS 03류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총계	2,270,514	16.5	총계	2,594,417	14.3	총계	2,875,587	10.8
1	일본	906,193	7.8	일본	964,964	6.5	일본	1,096,833	13.7
2	한국	409,809	12.9	한국	590,940	44.2	한국	633,616	7.2
3	미국	346,796	26.5	미국	329,689	-4.9	미국	456,655	38.5
4	홍콩	178,562	11.9	홍콩	171,558	-3.9	홍콩	193,025	12.5
5	독일	102,035	59.9	독일	129,003	26.4	독일	123,161	-4.5
6	스페인	74,388	20.5	스페인	68,011	-8.6	캐나다	55,616	47.8
7	대만	38,085	20.8	미국	57,820	78.8	대만	47,170	85.4
8	캐나다	33,958	67.7	캐나다	37,625	10.8	영국	36,605	-36.7
9	영국	32,344	88	프랑스	33,383	48	폴란드	28,813	1.6
10	이탈리아	22,721	182.2	폴란드	28,369	117.3	대만	24,515	270.5
11	프랑스	22,564	10.6	대만	25,437	-33.2	싱가포르	16,171	13.9
12	네덜란드	14,897	6.8	네덜란드	23,202	55.8	프랑스	15,952	-52.2
13	폴란드	13,054	227.6	이탈리아	22,069	-2.9	호주	15,485	60.2
14	벨기에	11,155	-1.2	싱가포르	14,192	47.8	필리핀	13,528	441.2
15	싱가포르	9,601	34.3	벨기에	12,347	10.7	말레이시아	12,933	47.7
16	마카오	6,626	30.8	호주	9,665	94.2	스페인	12,666	-81.4
17	말레이시아	6,467	8.1	말레이시아	8,755	35.4	네덜란드	9,478	-59.1
18	호주	4,978	28.9	마카오	7,303	10.2	마카오	9,096	24.6
19	포르투갈	4,082	-7.1	대만	6,616	107.6	체코	8,765	33.2
20	스웨덴	3,526	-46.6	체코	6,581	96.4	북한	8,729	117.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ita.net).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한 수산물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표 4-37>과 같이 진주제품을 제외한 수산물 수출품목 중 대한민국 주요 수출품목은 기타 냉동어류, 냉동굴비, 기타활어, 냉동갈치, 문어류 등이 상위 5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대일본 주요 수출품목은 민물장어, 어류의 피레트와 2차 가공 수출품목이 상위 5개 수출품목으로 나타났다.

<표 4-37>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출실적(2002년 기준)

단위 : kg, 달러

순 위	한국으로의 수출			일본으로의 수출		
	품 목	물량	금액	품 목	물량	금액
	합계	481,343,782	687,495,146	합계	823,639,192	2,248,073,110
1	기타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182,794,660	106,925,624	민물장어(조제,처리)	62,077,171	543,612,522
2	굴비(냉동)	33,003,416	89,670,323	기타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 (신선냉장,냉동)	99,158,449	255,927,535
3	기타 활어	29,815,476	54,756,071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 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56,717,357	215,526,161
4	갈치(냉동)	26,021,085	51,013,798	기타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산 것,신선냉장)	140,644,368	156,090,069
5	기타 문어(산 것,신선냉장)	23,312,066	37,227,182	기타어류(조제,처리)	42,768,764	106,755,542
6	게(냉동)	8,646,454	27,491,716	기타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161,641,022	79,498,275
7	굴비(신선냉장)	11,837,228	27,174,744	기타갑오징어(산 것,신선냉장)	21,468,895	66,375,219
8	기타 피레트 및 기타 어육(신 선냉장,냉동)	14,990,977	27,020,459	기타어류(간장과 어란 제외,신선 냉장)	22,468,652	61,473,460
9	문어(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2,241,391	23,399,718	캐비어와 캐비어대용물(조제,저 장처리)	4,019,256	51,816,193
10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	7,030,384	19,154,609	기타(냉동계)	8,229,731	45,960,454
11	새우살(냉동)	5,130,804	14,159,151	미역	34,365,491	44,421,926
12	기타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 의어분(산 것,신선냉장)	18,990,420	13,361,489	간장과 어란(냉동)	3,091,821	44,225,839
13	기타(냉동계)	5,085,298	12,628,618	새우와 보리새우(조제,저장처리)	6,428,043	43,775,360
14	민물장어(조제,처리)	1,381,406	12,338,466	게(조제,저장처리)	7,469,982	43,482,652
15	기타(식용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포함)산 것,신선냉장)	5,529,805	12,011,749	참새우살(냉동)	5,205,694	43,327,459
16	기타	2,388,596	11,801,840	새우살(냉동)	7,525,448	37,555,462
17	기타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	3,832,739	11,315,654	기타(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포함)산 것,신선냉장)	7,025,989	33,929,524
18	기타 새우와보리새우	14,878,623	9,618,648	기타 문어(산 것,신선냉장)	7,439,507	31,222,012
19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 추동물	7,612,559	9,607,072	고등어(조제,처리)	9,605,953	24,118,369
20	대구(건조,염장, 훈제 제외)	1,644,169	9,431,486	기타새우(냉동)	2,188,798	22,712,291

주 : 1) 중국 수산물 총 수출량은 2,165,818,592kg(4,668,197천 달러)이며,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금액기
준으로 각각 14.73%와 48.16%로 나타났음.

2)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수는 전체 188개 품목 중 각각 105개, 123개로 나타났음.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2002」, 2003.

중국의 수산물 수입 현황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2000년~2002년) 평균 21.6% 성장을 나타내 비교적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다(<표 4-38> 참조). 2002년 기준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232백만 달러가 증가한 1,331백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8년에 비해서는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중국 내 수산물 소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산물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38> 중국의 수산물 수입실적: 상위 20개국 추이(HS 03류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국가명	금액	증가율
	총계	1,212,459	37.5	총계	1,331,068	9.8	총계	1,564,067	17.5
1	러시아	345,851	34.3	러시아	487,918	41.1	러시아	622,339	27.6
2	일본	134,991	-25.4	일본	105,781	-21.6	북한	143,016	198.1
3	인도	84,070	589.6	미국	100,287	26.1	미국	105,072	4.8
4	미국	79,541	45.6	인도	77,462	-7.9	일본	98,842	-6.6
5	캐나다	77,196	120.2	캐나다	64,338	-16.7	캐나다	79,198	23.1
6	한국	66,743	88.6	노르웨이	63,788	50	노르웨이	63,474	-0.5
7	노르웨이	42,535	118.6	북한	47,977	1,085.4	인도	49,627	-35.9
8	태국	40,450	300.1	한국	44,038	-34	한국	38,420	-12.8
9	모리셔스	29,068	30	뉴질랜드	26,921	2.3	뉴질랜드	38,293	42.2
10	스페인	28,031	61.1	태국	26,838	-33.6	태국	23,684	-11.7
11	대만	26,941	211.8	스페인	25,983	-7.3	덴마크	21,033	89.6
12	뉴질랜드	26,320	116.7	네덜란드	24,979	246.2	싱가포르	19,397	151.5
13	인도네시아	23,090	370.8	인도네시아	23,975	3.8	스페인	18,767	-27.8
14	아르헨티나	17,267	-50.3	오스트리아	18,677	35.6	아르헨티나	17,984	18.8
15	홍콩(차이나)	14,712	8,548.4	아이슬란드	16,504	64.2	인도네시아	17,527	-26.9
16	우루과이	14,341	107.3	대만	16,492	-38.8	페루	13,553	376.8
17	호주	13,776	45.9	아르헨티나	15,140	-12.3	아이슬란드	12,537	-24
18	덴마크	11,986	60.2	덴마크	11,095	-7.4	그린란드	12,388	21.2
19	프랑스	10,648	-76.3	그린란드	10,221	92.2	프랑스	12,368	53
20	싱가포르	10,124	104.6	베트남	8,854	142	베트남	12,054	36.1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ita.net).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는 2002년 기준, 전체 수산물 수입 중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28%, 2001년 36% 등의 수입비중과 비교하여 볼 때,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2000년에는 수입국 중 3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나, 2002년에는 5번째 수입국으로 나타나, 중국 내 수입 수산물 점유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이 타 수입국에 비하여 낮은 것이 점유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2000년에는 6번째의 수입국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7번째 수입국으로, 중국 내 수입 수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중국 내 수입 수산물에서 북한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000년에는 상위 20개국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2년에는 143백만 달러로 전년도의 47백만 달러에 비해 무려 100백만 달러 가까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을 추월하고 중국 내 수입 수산물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전체 수산물 188개 중 148개 품목(HS 기준)이 수입되었다. 금액기준으로 어류의 분·조분, 대구, 기타 냉동어류, 기타 갑오징어, 기타 연체동물 등 상위 5개 품목이 67%(물량 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상위 5대 품목의 수입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9> 참조).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별 현황은 <표 4-40>과 같다. 한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은 갑오징어류, 굴류, 기타 연체동물의 어분, 대구, 달팽이 등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금액으로 73.7%(물량은 73.5%)인 33,994천 달러(물량 32,272천 톤)를 나타냈다.

<표 4-39>

중국의 수산물 수입실적 : 상위 20개 품목(2002년 기준)

단위 : kg, 천 달러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량	수입금액
1	2301	20	10	어류의 분, 조분 및 피레트	958,151,378	633,504
2	0303	60	00	대구(간장,어란제외)	457,948,353	528,208
3	0303	79	90	기타 어류(냉동)	196,655,319	166,173
4	0307	49	00	기타 갑오징어(산것,신선,냉장)	190,856,880	115,421
5	0307	91	99	기타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산 것,신선,냉장)	102,131,794	89,788
6	0306	13	19	기타 새우(냉동)	56,293,665	71,153
7	0303	80	00	간장과 어란(냉동)	10,539,427	68,525
8	0303	32	00	가자미(냉동)	77,806,313	65,767
9	0306	14	90	기타(냉동계)	16,809,926	56,392
10	0303	19	00	기타 연어(냉동)	39,143,522	35,945
11	0303	79	10	갈치(냉동)	76,834,095	33,721
12	0303	74	00	고등어(냉동)	42,510,122	31,637
13	0307	59	00	기타 문어	9,865,031	27,110
14	2309	90	90	기타 배합사료	51,719,519	22,260
15	0305	59	20	상어지느러미(건조,염장, 염수장)	3,555,157	21,951
16	0303	72	00	해덕(냉동)	11,377,964	21,819
17	0306	24	92	계(냉동하지 않은것)	3,040,856	19,388
18	0307	60	90	기타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	4,961,343	15,930
19	0306	13	11	새우살(냉동)	5,336,552	14,246
20	1212	20	90	기타 해초류와 기타 조류	41,991,422	13,979
상위 20개 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A)					2,357,528,638	2,052,917
전 수입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금액					2,542,327,080	2,268,911
(A/B)					92.73%	90.48%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2002」, 2003.

<표 4-40>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

단위 : kg, US달러

순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합계	43,922,081	46,149,371	합계	70,036,870	104,658,246
1	기타 갑오징어(산 것, 신선냉장)	23,144,422	17,585,115	간장과 어란(냉동)	4,059,065	33,095,746
2	기타 굴(산 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및 염수장)	150,120	5,529,564	기타 연어(냉동)	21,184,459	18,242,868
3	기타 식용에 적합한 연체동물의 어분(산 것, 신선냉장)	6,107,160	4,900,583	기타갑오징어(산 것, 신선냉장)	14,365,603	9,863,904
4	대구(냉동(간장, 어란 제외))	2,381,700	3,174,563	기타 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6,101,270	6,209,638
5	기타 달팽이	488,642	2,804,924	기타(냉동계)	1,294,653	3,735,764
6	기타 냉동어류(간장과 어란 제외)	2,226,190	1,924,304	기타 문어(산 것, 신선냉장)	1,091,153	3,493,550
7	해덕(냉동)	1,327,976	1,629,342	기타 참새우(냉동)	279,081	2,312,448
8	가자미(냉동)	1,131,536	1,059,623	대구(냉동(간장, 어란 제외))	2,454,493	2,279,939
9	날개다랭이, 긴지느러미다랭이	1,000,000	872,580	기타 새우(냉동)	951,429	2,117,941
10	대구(신선냉장)	800,000	766,314	기타 어류의 피레트(신선냉장, 냉동)	902,213	1,729,702
11	기타건조, 염장어류(훈제 제외)	57,892	569,957	기타 연어류(냉동)	1,488,865	1,655,843
12	기타 해초류와 기타 조류	125,944	543,957	가자미(냉동)	1,197,180	1,517,100
13	갈치(냉동)	522,529	525,692	황다랭이(신선냉장)	672,505	1,363,625
14	기타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조분 및 피레트	810,000	435,941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갑각류, 연체동물	650,371	1,205,414

중국의 대한·대일 수산물 수입실적(2002년 기준)(계속)

순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15	기타 식용 적합한 양식용 연체동물	269,500	350,286	기타 새우와 보리새우	143,982	1,166,187
16	기타(조제, 저장처리)	40,811	325,726	고등어(냉동)	921,613	1,120,554
17	김	58,175	292,456	기타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	2,129,470	893,843
18	어류의 분·조분 및 피레트	501,395	258,665	기타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조분 및 피레트	1,512,000	860,160
19	미역	1,001,000	253,494	태평양연어(신선냉장)	774,678	832,248
20	뱀장어(액젓라종, 냉동)	212,540	218,230	곱상어와 기타상어	930,226	799,651

주 : 1) 중국 수산물 총 수입량은 2,542,627,080kg(2,268,911천달러)이며, 한국과 일본의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각각 2.03%와 4.61%로 나타났음.

2) 중국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품목수는 전체 188개품목 중 각각 60개, 97개로 나타났음.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2002」, 2003.

일본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간장과 어란, 기타 연어류, 기타 갑오징어류, 기타 냉동어류, 기타 냉동계류 등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전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금액 중 67.9%(물량 67.1%)인 71,147천 달러(물량 47,005천 톤)를 나타내, 중국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의 수산업 구조와 특징

1) 일본의 수산물 수급구조

일본의 어패류에 대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생산여건의 악화로 인해 국내 생산 감소추세가 지속되어 2002년의 국내 생산수준은 1989년의 절반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수산물 총공급 대비 수입 비중이 1989년에는 23% 정도를 나타냈는데 2002년에는 57%에 이르렀다.

<표 4-41>

일본의 수산물 수급구조

단위: 천 톤, %

구 분		1989	1999	2000	2001	2002	
공급	총 공급량	14,430	11,680	11,619	12,156	11,907	
	국내생산	11,120	5,949	5,736	5,492	5,159	
	식용	식용	6,961	4,612	4,527	4,429	4,265
		비식용	4,159	1,337	1,209	1,063	894
	수입	3,310	5,731	5,883	6,727	6,748	
	비식용	식용	2,494	4,061	4,249	4,323	4,317
		비식용	816	1,670	1,634	2,404	2,431
수요	총수요량	14,988	10,903	11,121	11,744	11,550	
	국내소비	13,341	10,659	10,857	11,387	11,107	
	식용	식용	8,905	8,311	8,514	8,468	8,225
		비식용	4,436	2,348	2,343	2,919	2,882
	수출	1,647	244	264	357	443	
	비식용	식용	558	238	253	335	342
		비식용	1,089	6	11	22	101
	재고 증감	-558	777	498	475	357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食品需給表」, 2003.

일본의 어업은 연안지역의 기간산업이며, 외식산업 등 관련 산업과 함께 지역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수산업의 생산액이 전체 산업의 약 10%를 차지하는 곳도 있을 만큼 지역경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액(GDP)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498조 엔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 어업 부문의 총 생산액은 1조 엔 정도로 GDP의 0.24%를 차지하였다.

<표 4-42>

일본의 국민경제 중 어업이 차지하는 위치

단위 : 십억 엔

	1990	1995	2000	2001	2002
GDP	440,124.8	496,922.2	511,462.4	505,847.4	498,102.0
농림수산업 GDP	10,916.1	9,345.5	7,109.9	6,780.9	6,613.0
어업 GDP	1,876.1	1,462.9	1,155.5	1,144.7	1,171.8
어업/GDP(%)	0.43	0.29	0.23	0.23	0.24
총수출	41454	41531	51654	48979	52109
수산물 수출	51	39	58	65	68
총수입	33859	31549	40938	42416	42228
수산물 수입	1386	1412	1381	1355	1372
	1997	1998	1999	1998	
어업세대 수(천호)*	198.5	203.9	197.4	190.3	-
어업세대원 수(천명)*	747.3	732.4	712.2	688.3	-
어업종사자 수(천명)	287.4	277.0	270.0	260.2	-
어업종사자/총인구(%)*	0.22	0.22	0.21	0.20	-

주 : *는 1997년 자료임.

자료 : 일본은행, 통계청(관세협회),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水産統計」, 2002.

농림수산업, *Abstract of Fishery Statistics*, 2003.

한편, 일본의 어가수는 1997년을 기준으로 10만 9천 8백여 호가 있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2000년에는 8천여 호가 감소한 10만 9천여 호로 1997년의 약 96%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종사자의 총인구 대비 비율은 0.2% 수준으로 국내총생산액 중 어업 부문의 총생산액 비중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생산 기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어업생산량은 1984년 12,816천 톤(세계 제1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도에는 603만 톤을 기록하였다.

어업 부문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도 일본 수산물 총생산의 약 90%를 차지하던 해면 어로어업 및 채취어업 생산량은 2003년도에는 총생산의 약 78%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산물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4-43>

일본의 어업 부문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억 엔, %, 천 톤

	연도	총생산	해 면						내 수 면			포경 어업 (두수)
			소계	어로 및 채취어업				양식업	소계	어업	양식업	
				계	원양	근해	연안					
중 량	1995	7,489	7,322	6,007	917	3,260	1,831	1,315	167	92	75	174
	2000	6,384	6,252	5,022	855	2,591	1,576	1,231	123	65	58	188
	2001	6,126	6,099	4,753	749	2,459	1,545	1,256	117	62	56	166
	2002	5,880	5,767	4,434	686	2,258	1,489	1,333	113	61	51	157
	2003	6,038	5,927	4,683	622	2,493	1,569	1,245	110	60	50	150
구성비	100	98.2	77.6	10.3	41.3	26.0	20.6	1.8	1.0	0.8	-	
금 액	1995	22,496	20,851	15,112	2,770	5,560	6,783	5,739	1,637	703	934	7.0
	2000	18,753	17,612	12,340	2,120	4,456	5,765	5,272	1,133	623	511	7.3
	2001	17,803	16,686	11,657	2,009	4,206	5,435	5,029	1,116	644	472	6.3
	2002	17,186	16,147	1,1364	1,813	4,130	5,415	4,783	1,039	602	438	5.0
구성비	100	94.0	66.1	10.5	24.0	31.5	27.8	6.0	3.5	2.5	-	

자료 : 日本 農林水産省, 「統計情報」, 2004.

해면 양식어업은 최근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동기간 연평균 약 1%씩 증가하여 1980년도 수산물 총생산 대비 8.9%에서 2003년도에는 21%로 상승하였다. 내수면 어업도 어획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어업 생산량의 감소에 따라 생산액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02년도 어업 총 생산액은 1조 7천억 엔으로 그 중 해면 어업이 94%를 차지한 1조 6천억 엔 정도, 내수면 어업은 6%를 차지하는 1천억 엔 정도를 기록하였다.

주요 어종별 어획량을 살펴보면, 1990년대 초 정어리류를 중심으로 대구류, 오징어류, 가다랑어류, 고등어류 등이 전체 해면 어업 생산량의 약 62%에 해당하는 5,283천 톤이 어획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정어리류 어획의 감소로 인하여 2003년도에는 1991년 대비 6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표 4-44>

일본의 해면어업 주요 어종별 어획량

단위 : 천 톤

구 분	1991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8,513	5,239	5,022	4,753	4,434	4,683
참치청새치류	338	356	310	309	307	289
가다랑어류	427	317	369	314	333	348
연어·송어류	215	192	179	221	235	287
정어리류	3,566	944	629	569	519	605
전갱이류	315	258	282	256	238	249
고등어류	255	382	346	375	280	344
꽁치	304	141	216	270	205	262
방어류	51	55	77	67	51	61
광어가지미류	79	78	79	71	71	69
대구류	590	438	351	285	243	251
돔류	24	26	24	24	27	26
오징어류	545	498	624	521	434	382
기타	1,904	1,554	1,536	1,470	1,491	1,510

자료 : 日本 農林水産省, 「統計情報」, 2004.

<표 4-45>

일본의 해면 양식수산물 류별 생산량 추이

단위 : 천 톤

	총계	어류	패류	해조류	기타
2000	1230.8	258.7	432.0	528.6	11.5
2001	1255.6	263.8	468.9	511.5	11.4
2002	1,333	268	496	558	11.0
2003	1,245	272	483	476	14.0

자료 : 日本 農林水産省, 「統計情報」, 2004.

<표 4-46>

일본의 연도별 사용어선 현황

단위 : 척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168,084	236,484	214,932	209,832	204,162	
무동력선	487	7,840	5,412	5,102	4,783	
선외기부선	59,096	98,109	82,205	80,268	78,680	
동력선	계	108,501	130,535	127,315	124,462	120,699
	1톤 미만	8,366	8,762	8,899	8,607	8,261
	1~3	36,543	43,299	43,197	41,833	40,160
	3~5	43,049	50,560	48,816	47,823	46,503
	5~10	11,645	16,070	15,332	15,264	15,054
	10~30	7,098	10,186	9,480	9,423	9,287
	100~200	801	725	727	685	622
	200~500	987	921	852	815	804
	500톤이상	12	12	12	12	8

자료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水産統計」, 2002.

해면 양식어업의 주요 품종별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해조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패류, 어류 순으로 나타났다. 해면 양식어업의 생산량은 2002년에는 전년의 해조류 생산 증가에 힘입어 다소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어류 생산은 2000년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표 4-45> 참조).

연도별 어업에 사용된 어선 현황을 살펴보면(<표 4-46> 참조), 1997년 전체 어선수의 약 0.3%를 차지하던 무동력선이 1998년에 7,840척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어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동력선은 대부분 5톤 미만의 소형어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톤 이상 대형어선의 구성비율은 1999년 이후 약 1.2%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식품 소비 중 수산물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표 4-47>와 같이, 2002년도 일인당 연간 수산물(어개류) 공급량은 전체 식품공급량의 약 7.5%에 해당하는 37kg으로 계란 및 유제품, 야채류, 곡류의 뒤를 잇고 있다.

<표 4-47>

일본의 1인당 연간 식료품 공급량

단위 : kg, %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506.5 (100)	502.8 (100)	491 (100)	499.7 (100)	502 (100)	501.7 (100)	491.3 (100)
곡류	101.8 (20.1)	100.6 (20)	98.7 (20.1)	98.9 (19.8)	98.5 (19.6)	97.1 (19.3)	96.0 (19.5)
야채류	104.7 (20.7)	101.9 (20.3)	99.4 (20.2)	102.2 (20.5)	101.5 (20.3)	100.7 (20.1)	96.6 (19.7)
육류	28.1 (5.5)	27.8 (5.5)	28.1 (5.7)	28.5 (5.7)	28.8 (5.7)	27.8 (5.5)	28.4 (5.8)
계란,유제품	110.5 (21.8)	110.4 (22)	109.2 (22.2)	110 (22.0)	111.3 (22.2)	109.8 (21.9)	109.7 (22.3)
어개류	38.9 (7.7)	37.3 (7.4)	35.5 (7.2)	35.8 (7.2)	37.2 (7.4)	40.2 (8.0)	37.4 (7.6)
기타	122.5 (24.2)	124.8 (24.8)	120.1 (24.5)	124.3 (24.9)	124.4 (24.8)	126.1 (25.1)	123.2 (25.1)

자료 : 日本農林水産省, 「食品需給表」, 2003.

일본의 수산물 유통시장은 1988년 1,077개가 존재하였으나 생산량의 감소와 함께 그 수도 줄어 1998년에는 8.5%가 감소한 985개로 조사되었다. 전체 시장 수에 대한 개설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어업협동조합소유의 유통시장이 1998년 80.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산물 유통시장은 1988년 1,077개가 존재하였으나 생산량의 감소와 함께 그 수도 줄어 1998년에는 8.5%가 감소한 985개로 조사되었다. 전체 시장 수에 대한 개설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어업협동조합소유의 유통시장이 1998년 80.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일본의 수산물 시장 현황

단위 : 개, %

구 분	1988	1993	1998	비고
합 계	1,077	1,069	985	-
지방공공단체	69	77	49	-
어업협동조합	843	836	794	-
어업협동조합연합회	33	30	28	-
회사	119	118	107	-
개인	13	8	7	-

자료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水産統計」, 2002.

총 어업생산량 대비 유통시장 취급량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로 1993년에 113.3%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나 1998년에는 91.3%로 감소하였다. 유통시장 취급량 가운데 양륙된 수산물량의 총 생산량에 대한 비율은 2001년에 79.3%로 조사되었다.

일본수산물 산지시장의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냉동품은 약간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시장의 경우 생선품과 냉동품이 함께 점진적인 가격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일본의 수산물 가격지수

2000년 = 100*

구 분	산지시장			소비지시장		
	총지수	생선품	냉동품	총지수	생선품	냉동품
1997	104.4	102.6	114.5	109.3	109.5	109.0
1998	105.5	105.4	106.1	104.4	104.7	104.0
1999	104.4	105.8	96.6	103.1	102.7	103.9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100.9	101.7	94.3	97.9	100.2	94.6

주 : *는 2000년을 100으로 기준하여 표시함.

자료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水産統計」, 2002.

2) 일본의 수산물 수출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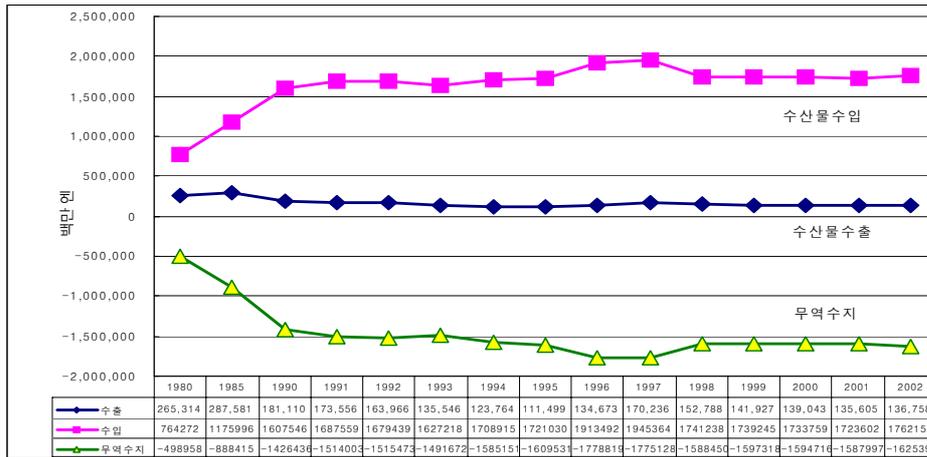
(1)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일본은 세계 제일의 수산물 소비국으로 수산물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수산물의 수출규모는 1994년에 약 7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7억 달러, 1999년에 6억 9천만 달러, 2001년에 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등락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수출액 대비 수산물의 수출비중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0.2~0.3%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체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비중은 1994년에 5.8%에서 2002년에는 4.7%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현재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조 6,250억 엔으로 적자규모가 가장 컸던 1996년 1조 7,788억 엔에 비하여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1조 5천억 엔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일본경제의 경기하락에 따른 수산물 소비의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4-3> 참조).

<그림 4-3> 일본의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자료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水産物貿易統計(輸出, 輸入), 각 연도.

(2) 수산물 수출입 현황

일본 수산물의 주요 수출 및 수출국 현황을 살펴보면, <표 4-49>와 같이 수산물 수출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8년에 비하여 2002년의 수출실적은 물량 면으로는 9.2%가 증가하였으나 금액 면으로는 10.4%가 감소하였다. 수산물의 수출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명태와 돔 등 일부 수산물은 생산하지 않아 물량 면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출금액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출단가가 낮은 수산물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별 수출 현황은 물량 면에서 2002년 기준, 중국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며, 다음으로 한국, 태국, 미국, 뉴질랜드 순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면으로는 홍콩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미국, 한국, 중국, 태국 순으로 수출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콩으로의 수출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진주제품과 고가의 수산물목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은 1961년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인 1960년 초반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1971년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수산물 적자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표 4-50> 일본 상위 20개국의 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M/T, 천 엔

국 가	1998		1999		2000		2001		2002	
	수량	금액								
합계	281,254	152,787,723	204,715	141,927,115	222,889	139,042,789	313,610	135,604,585	307,244	136,758,006
홍콩	11,102	32,328,036	7,950	33,994,481	8,251	34,811,010	8,187	31,564,405	7,787	34,128,406
미국	18,947	37,441,849	16,968	35,392,234	15,375	32,217,226	14,994	27,113,900	15,705	28,604,356
한국	18,078	4,297,282	50,307	11,474,840	65,097	16,587,156	76,440	17,706,939	72,305	19,104,804
중국	35,854	5,353,303	17,787	4,500,022	32,229	6,317,846	78,382	11,313,350	63,975	10,520,978
태국	78,451	12,948,399	38,367	6,180,264	30,948	4,429,525	53,748	7,097,694	62,764	8,673,512
대만	11,027	10,287,539	9,131	9,584,457	10,733	8,220,553	10,489	7,164,283	12,729	8,075,358
뉴질랜드	5,976	1,816,786	5,596	2,021,706	9,848	2,663,346	9,536	2,302,645	14,808	3,331,411
캄	8,619	3,970,501	7,579	3,770,805	7,869	4,067,635	8,230	4,295,970	5,761	3,121,888
스위스	33	7,403,374	21	6,231,692	24	4,679,172	51	3,028,877	109	2,291,466
싱가포르	2,615	2,748,880	1,744	2,348,041	2,227	2,234,635	1,855	1,994,222	1,952	1,878,041
독일	281	5,724,154	470	4,594,721	273	3,335,225	119	2,259,536	55	1,714,778
호주	5,549	2,062,453	4,433	1,498,262	2,796	2,457,878	1,536	1,287,119	1,735	1,475,358
캐나다	3,380	1,785,334	3,230	1,700,656	2,993	1,639,606	2,812	1,565,113	2,782	1,371,005
영국	93	1,615,235	87	1,666,806	81	1,468,639	73	1,172,516	71	1,084,798
러시아	4,933	685,203	4,300	588,020	5,825	764,278	9,349	1,253,409	7,671	991,167
이탈리아	278	2,505,782	287	2,113,449	199	1,337,556	174	1,017,857	149	846,050
사우디아라비아	1,235	749,179	1,056	634,229	899	458,099	1,041	612,499	1,004	616,276
인도네시아	4,001	524,409	1,625	225,917	4,069	454,707	3,065	425,408	4,438	573,006
벨기에	12	415,032	12	363,023	52	177,737	52	496,284	108	556,435
스페인	3,588	2,493,110	63	1,280,739	683	1,059,882	1,998	933,913	71	525,227
기타	70,202	15,631,823	33,702	11,762,751	22,478	9,661,078	31,479	10,995,646	31,206	7,273,596

주 : 일본 수산물의 수출은 우리나라와 달리 진주제품(HS Code 7101)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2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出編」, 2003.

일본의 수산물 수급정책에서 수산물 수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5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수산물 총공급 중 50% 이상을 수입 수산물로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내생산이 수산물 수입 확대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표 4-51> 일본의 수산물 총공급 대비 수입 수산물 비중

단위 : 천 M/T, %

구 분 \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총 공 급	12,725	11,298	11,680	11,619	12,192
수 입	5,998	5,254	5,731	5,883	6,726
수입/총공급(%)	47.1	46.5	49.1	50.6	55.1

자료: 日本農林統計協會, 「2002年度 水産白書」, 2003.

2002년 현재, 일본이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149개국 정도로 그 중에서 20개국 이상으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수입금액을 살펴보면(<표 4-52> 참조), 중국이 전체의 24.5억 달러(점유율 17.5%)로 1위이며, 이어 미국 13.5억 달러(9.6%), 태국 10억 달러(7.4%), 인도네시아 9.3억 달러(6.6%), 러시아 9억 달러(6.4%), 한국 8.5억 달러(6.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 6개국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³⁴⁾

일본시장에서의 HS 4단위 기준 주요 수입 국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4-53>과 같다. 수입국 중 한국은 냉동수산물(30.0%), 연체동물(20.9%), 어류조제가공품(10.7%), 활어(8.4%) 순으로 일본시장에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으로부터는 어류조제 가공품, 연체동물 및 갑각류 조제품, 연체동물, 신선·냉장수산물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냉동수산물, 어류 피레트, 갑각류 순이며, 러시아로부터는 갑각류, 냉동수산물, 태국으로부터는 연체동물 및 갑각류 조제품, 갑각류, 연체동물, 어류 피레트, 인도네시아로부터는 갑각류, 신선·냉장 수산물, 어류조제 가공품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자세한 내용은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2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2003)을 참조.

<표 4-52>

일본의 상위 20개국 수산물 수입 실적추이

단위: M/T, 천 달러

국 가	1998		1999		2000		2001		2002	
	수량	금액								
합계	3,102,566	13,275,830	3,415,479	15,247,965	3,543,891	16,128,826	3,823,209	14,236,078	3,820,934	14,083,390
중국	376,661	1,827,489	517,295	2,165,580	574,137	2,484,367	682,383	2,327,904	703,101	2,457,924
미국	361,739	1,243,172	370,615	1,524,617	362,654	1,568,320	421,111	1,439,779	407,338	1,358,927
태국	182,060	940,936	209,465	1,037,715	221,755	1,124,462	240,861	1,075,391	258,877	1,038,957
인도네시아	151,320	1,078,196	118,139	964,299	113,125	1,032,150	127,205	962,208	134,369	936,269
러시아	234,007	902,934	226,209	1,188,479	225,103	1,292,801	203,982	1,042,953	189,570	896,923
한국	223,762	957,934	195,647	1,111,738	206,389	1,162,580	182,971	963,200	180,821	853,001
대만	136,958	642,435	131,060	746,966	154,863	794,632	159,672	677,681	198,720	809,586
칠레	331,320	716,362	300,646	778,595	299,689	817,103	332,459	728,523	309,629	641,392
노르웨이	192,142	459,792	291,527	693,905	279,845	611,603	283,650	592,737	254,067	578,848
베트남	64,150	379,797	68,864	415,424	71,420	493,481	79,941	480,709	97,414	555,185
호주	26,316	385,840	26,728	497,747	28,067	570,528	26,839	482,482	27,487	491,752
캐나다	73,396	470,702	70,768	520,165	63,825	546,959	59,305	409,288	71,712	483,240
인도	65,218	596,019	69,107	552,123	69,213	618,055	67,906	446,807	59,059	360,763
모로코	45,535	227,135	62,809	269,356	83,780	291,571	67,225	257,805	53,766	245,838
필리핀	36,571	184,012	56,864	214,509	45,282	208,906	29,867	169,470	35,017	166,741
페루	4,206	4,552	102,470	71,262	160,675	87,279	290,424	166,678	221,215	156,273
스페인	917	7,927	12,668	151,371	11,013	164,851	10,926	162,046	14,769	151,767
아르헨티나	4,032	8,279	44,486	113,784	39,377	114,229	32,212	93,443	47,583	129,343
북한	4,171	5,364	49,014	73,325	40,111	148,285	38,217	120,544	64,000	115,036
뉴질랜드	4,198	12,685	43,581	149,380	40,111	148,285	65,496	104,583	35,830	113,017
기타	601,411	2,263,075	699,915	2,565,747	453,457	1,848,381	420,556	1,531,759	456,590	1,542,608

주 : 일본 수산물의 수입은 우리나라와 달리 진주제품(HS Code 7101)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2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入編」, 2003.

수산물 수입물량 면에서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연어·송어(28만 톤)이며, 다음으로 새우(25만 톤), 고등어(17만 톤), 명태연육(15만 톤), 눈다랑어(15만 톤), 황다랑어(12만 톤), 게(11만 톤), 문어, 뱀장어 조제품, 넙치, 전갱이, 청어, 오징어, 미역 등으로 나타났다(2001년 기준).

반면에, 일본의 주요 수출 수산물은 연어·송어(2만 9천 톤), 가다랭이(2만 6천 톤), 다랑어, 새치류, 콩치, 오징어, 고등어, 가리비, 진주 등으로 나타났다.

<표 4-53> 일본시장에서의 주요 국별·품목별 수입구조(1999년 기준)

단위: 천 달러, %

HS품목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계	1,111,738(100)	2,166,580(100)	1,524,617(100)	1,188,479(100)	1,037,715(100)	946,299(100)
0301	93,120(8.4)	100,861(4.7)	3,969(0.3)	2(0.0)	1,098(0.1)	4,921(0.5)
0302	34,424(3.1)	171,821(7.9)	54,295(3.6)	8,319(0.7)	20,597(2.0)	130,005(13.5)
0303	333,714(30.0)	97,996(4.5)	745,872(48.9)	472,160(39.7)	3,964(0.4)	31,387(3.3)
0304	109,152(9.8)	163,590(7.6)	272,117(17.8)	38,369(3.2)	201,112(19.4)	9,870(1.0)
0305	5,877(0.5)	44,523(2.1)	55,194(3.6)	2,595(0.2)	1,384(0.1)	2,409(0.2)
0306	18,653(1.7)	137,929(6.4)	161,654(10.6)	603,283(50.8)	249,007(24.0)	268,406(28.9)
0307	232,570(20.9)	265,152(12.2)	120,277(7.9)	38,047(3.2)	202,081(19.5)	7,519(0.8)
1212	84,733(7.6)	68,620(3.2)	621(0.04)	102(0.0)	215(0.0)	645(0.0)
1604	119,434(10.7)	813,375(37.5)	69,299(4.5)	8,643(0.7)	97,332(9.4)	75,338(7.8)
1605	62,710(5.6)	266,386(12.3)	4,422(0.3)	9,560(0.8)	258,573(24.9)	65,179(6.8)
기타	118,212(1.7)	36,327(1.7)	36,897(2.4)	7,399(0.6)	2,352(0.2)	68,620(7.1)

주: 0301: 활어, 0302: 신선냉장어류, 0303: 냉동어류, 0304: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0305: 건조·염장·염수장·훈제 어류, 어류의 분·조분, 0306: 갑각류, 0307: 연체동물, 1212: 해조류, 1604: 어류조제가공, 1605: 연체동물갑각류 조제가공

자료: 日本水産物輸入協會, 「1999年度 水産物輸入統計年報」, 2000.

5. 한중일 3국 간 수산업 구조적 특징 비교

구조적 측면에서 한중일 3국의 수산업이 가지는 규모는 한국과 일본이 GDP 중 각각 0.6%, 0.4%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약 1.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어업 인구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총인구 대비 0.3%와 0.2% 정도의 미미한 수준과 노령화로 인해 어촌 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으나, 중국은 총인구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인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한국과 일본에 비하여 경제성장의 발전정도가 느린 중국의 경제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수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임에 반하여 중국의 수산업은 타 1차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중일 3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수산물은 공동어장의 사용으로 인하여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10대 수산물 생산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과 일본에서 순위권 안에 들고 있는 수산물은 중국의 경우, 멸치류, 고등어류, 오징어류, 전갱이 등이 있으며, 일본은 멸치류, 고등어류, 갈치류, 조기류, 삼치류, 전갱이류 등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유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소비 측면에서는 수산물 소비형태,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수산물 가격 등의 요인을 알아보아야 하지만, 각 국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비교하였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중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을 나타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패턴은 비슷하다. 중국은 내수면 생산어종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4> 및 <표 4-55> 참조).

<표 4-54> 한중일의 수산업 구조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GDP 비중 ¹⁾	0.6%	1.5%	0.4%
어가인구(천명) ¹⁾	128(0.4%)	19,422(1.5%)	205(0.2%)
생산량(천톤) ¹⁾	2,665(세계 12위)	43,821(세계 1위)	6,093(세계 3위)
어선척수(척) ¹⁾	94,935	479,810	204,162
1인당 연간소비량 ²⁾	30.7kg	10.7kg	35.8kg
주요 생산 수산물 ¹⁾	멸치, 고등어, 갈치, 삼치, 굴, 김, 미역 등	멸치, 고등어, 갈치, 삼치, 가리비, 홍합, 다시마 등	고등어, 전갱이, 꽁치, 대구, 정어리, 굴, 가리비 등

주 : 1) 2001년 기준임.

2) 한국과 일본은 어패류만 포함한 수치임. 1999년 기준.

<표 4-55> 한중일의 주요 어종별 생산현황 비교

구 분	한국 ³⁾	중국 ³⁾	일본 ³⁾
1 멸치류 ¹⁾	249,519	470,616(2) ²⁾	1,373,328(1) ²⁾
2 고등어류	172,925	511,238(1)	385,185(8)
3 오징어류	165,579	308,660(5)	229,319
4 갈치	74,851	22,268	1,223,360(2)
5 강달이류	53,998	-	-
6 새우류	45,099	28,436	1,046,787
7 붉은대게	33,146	27,838	-
8 조기류	27,738	5,430	596,507(5)
9 삼치류	28,809	2,864	517,528(7)
10 전갱이	22,132	370,389(3)	532,986(6)
11 꽃게	13,814	3,528	266,630(10)
12 청어	13,340	52,427(9)	21,796
13 병어	13,210	45,484(10)	303,024(9)
14 임연수어	7,911	240,971(6)	-
15 정어리	7,595	167,073(7)	121,120
16 명태	6,232	315,987(4)	191,433
17 송어류	4,962	4,003	616,551(4)

주 : 1) 한국 생산량 기준(2000년 기준)으로 단위는 톤임.

2) ()안은 각국의 수산물 생산 순위임.

3) 한국 자료는 해양수산부자료, 중국 자료는 중국어업연감 및 어업·양식어업생산통계연보, 일본 자료는 한중일 수산통계 기준임.

4) 한중일 3국의 주요 생산물 현황은 패류와 해조류를 제외한 수치임.

한중일의 수산물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수립에 있어 한·일 양국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공급량을 수산물 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들어와 이미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하였으나, 한국은 2001년을 기점으로 수산물 교역 적자국으로 돌아서 장기적으로 수산 부문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양국 모두 수입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수입 관리가 최대의 정책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으로서, 그리고 세계 제1~2위의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에 수산물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6> 한중일의 수산물 교역구조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수산물 교역	수입	1,585,243 (1.12) ¹⁾	1,319,019 (0.54) ¹⁾	13,394,308 (3.83) ¹⁾
	수출	1,139,667 (0.76) ¹⁾	3,996,459 (1.50) ¹⁾	755,426 (0.19) ¹⁾
	무역수지	-445,576	2,677,440	-12,638,882
수산물수출입 위치 ²⁾		세계 14위 수출국 및 12위 수입국	세계 2위 수출국	세계 1위 수입국
수출입구조		일본으로의 수출 집중도 약화	한국 및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증가	중국 및 동아시아로의 수입 다변화
주요 수출품목		굴,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위주	조기, 갈치, 민물장어, 꽃게, 오징어류	연어, 가다랑어, 다랑어, 새치류, 가자미
주요 수입품목		조기, 갈치, 명태, 공치, 꽃게	대구, 갑오징어, 새우, 가자미, 갈치	고등어, 연어, 새우, 가다랑어, 뱀장어류
수출입 특징		일본시장 내 점유율 하락(6%대)	북한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수입순위 3위)	중국으로부터의 맞춤형 생산 증가 및 양식어 수입 증가

주 : 1) ()안의 수치는 각국의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001년 기준.
2) 2000년 기준임.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수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일본 1국에 대하여만 편중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주요 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일본산 고급 활선어의 수입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경쟁은 전 품목에 걸쳐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한중일의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장벽

WTO 체제의 확대·강화와 FTA의 확산에 의한 세계 상품시장 개방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개방화를 통해 무역을 창출하고 제한적인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이용을 통한 인류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 간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국가 간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국가 간 사회문화적 여건의 차이, 산업화 정도의 차이 등에 따라 한 국가의 국민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요구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화에 의해 얻는 편익의 차이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 또는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WTO·DDA 협상 및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FTA 협상에 있어서 시장개방화의 범위와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각 국은 WTO·DDA 협상 및 FTA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국 산업의 특성을 내세워 시장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수단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된다.

관세장벽은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6단위의 HS 품목 코드를 중심으로 자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추어 8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여 상품의 수출입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관세장벽은 일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상품거래에 있어서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세 조치 이외의 모든 조치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조치는 시장개방화 과정에 있어서 수출국에게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수입국에게는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WTO·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우리 수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도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의 합리적인 활용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은 3국 모두 수산물 생산국인 동시에 수산물을 선호하는 국민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수산업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정책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 FTA, 한일 FTA, 중일 FTA, 한중일 FTA 체결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산물 시장개방화의 확대는 한중일 3국 모두의 수산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한중일 3국은 자국의 수산업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중일 3국이 활용하고 있는 시장개방화 방어수단(또는 장애요인)으로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한중일의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1) 한국의 수산물 관세구조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종가세 중심의 관세체계를 유지하면서 극히 일부 물품에 한하여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종량세, 종가세와 더불어 종가종량선택세와 종가종량복합세(병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과 대비되는 관세체계이다.³⁵⁾ 종량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식품의 경우 농산물의 곡류, 서류, 채소류, 특작류, 축산물의 천연꿀, 임산물의 산림부산물, 수산물(종가종량선택세) 등이며, 공산품의 경우는 영화용 필름과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전체 수입품의 0.2%에 지나지 않아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러한 종가세 위주의 관세체계는 관세운영이 투명하고,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가·저질의 수입 급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조정관세품목 중 7개 품목에 종가종량선택세제도를 도입·운영하였으나,³⁶⁾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관리 및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정관세제도는 수산물 이외에도 일부 식료품 및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수산

35) 우리나라의 관세율 체계는 총 수입대상품목(HS 10단위 기준 10,417개 품목)의 99.8%가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미국, EC,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36) 연도별 종가종량선택 조정관세품목 현황은 2001년 6개, 2002년과 2003년은 4개 품목임.

물에 부과되는 조정관세는 기본세율(10~2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³⁷⁾

조정관세품목을 포함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격차에 상당한 비율을 가산한 관세율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할당관세와 비관세제도의 병행을 통해 수입관리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는 수산식품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정관세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수산물의 경우 1994년(94.1.1~94.6.30)에 냉동어류(HS 0303)와 갑오징어 및 오징어(HS 0307)의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126,500톤과 80,500톤을 넘는 수입에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한 사례 등 극히 적용사례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탄력관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조정관세에 의해서 관세율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HS품목은 총 40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⁸⁾ 총 403품목 중에서 03류가 262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66개(16.5%), 12류 39개(9.8%)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산식품 전체의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표 5-1>과 같이 수산식품의 종류는 제1류부터 제23류까지 10개류로 구성되어 있고, 관세율 범위는 2%~70%까지 1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제기준상 고관세로 분류되고 있는 15%이상이 276개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다.

37) 1999년 30~90%, 2000년도 25~80%, 2001년도 25~70%임.

38) 2003년 신설 HSK품목은 냉동 킬라피아 피레트(0304-20-7000, 10%), 산 것·신선냉장 대게(0306-24-1020, 20%), 기타 냉동문어(0307-59-1090, 20%) 등 3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었음,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2003.

<표 5-1> 한국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HS코드 관세율	01	02	03	05	12	13	15	16	21	23	계
3%							5				5
5%			1	1						2	4
8%	2			15		3	2		2		24
10%			90								90
20%			159		25			63			247
30%		3	2					3	1		9
35%			2								2
40%			4								4
50%					14						14
55%			1								1
60%			2								2
70%			1								1
계	2	3	262	16	39	3	7	66	3	2	403

주 : 1) 조정관세 중 4개의 종가중량선택세 품목은 종가세로 집계함.

2) 산업자원부관장 41류 장어원피와 43류 비버생모피, 바다표범 전신생모피는 삭제되었음.

3) 평균관세는 18.64임.

자료 :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수산물」, 2002.

03류의 실행관세 범위는 <표 5-2>와 같이 기본관세율 3개 범위에 조정관세율인 30%, 35%, 40%, 55%, 60%, 70% 등 6개 범위가 포함된 총 9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행평균관세율은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17.6%로 나타났다.

03류 품목 중 15% 이상의 고관세율을 나타낸 품목은 전체 총 262개 품목 중 65%인 171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0301(활어), 0303(냉동어류) 및 0304(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 등은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나타냈고 0302(신선·냉장 어류), 0305(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0306(갑각류), 0307(연체동물과 수중무척추동물) 등은 비교적 고관세의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수산물 품목분류별(03류)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HS분류 관세율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5%							1	1
10%	24		51	10			5	90
20%		38		6	38	19	58	159
30%	1		1					2
35%						1	1	2
40%	1		2				1	4
55%						1		1
60%	2							2
70%			1					1
계	28	38	55	16	38	21	66	262

주 : 1) 조정관세 중 4개의 중가중량선택세 품목은 중가세로 집계함.

2) 산업자원부관장 41류 장어원피와 43류 비버생모피, 바다표범 전신생모피는 삭제되었음.

3) 평균관세는 17.63%임.

자료 :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수산물」, 2002.

2) 중국의 수산물 관세구조 분석

중국의 관세율 구조는 WTO 가입과 동시에 수출관세율이 거의 폐지되고 있어, 수입관세율 구조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에는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국내외적 상황, 상품의 용도, 국내외 관련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관세율의 조정이 비교적 자주 이루어졌으나, 2001년 1월 이후 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의 대대적인 인하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관세인하안을 WTO에 제출하였다.

중국의 관세율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본관세에 해당하는 중국의 일반관세는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보호관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으며,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용도별 관세율 책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즉, ① 생산재 저율(低率), 소비재 고율(高率) ② 생산재 중 원자재 저율, 반제품과 완제품 고율 ③ 소비재 중 생필품 저율, 고급소비재

고율이며, 특히 사치품과 비필수품에 대해서는 50~200%의 최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 관세제도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중국과 함께 최혜국 대우조항을 적용받는 WTO 회원국 및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과 중국과 관세 우대조항을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인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협정세율이 존재하여, 최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통세율을 적용하고 있다.³⁹⁾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과거 한·중 간 체결된 관세 호혜협정(1994년 9월)에 의거 모든 수출상품에 대해 우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현재는 최혜국 대우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또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방콕협정가맹국 3개국에 원산지인 739개의 세 번 수입품목에 한해서 방콕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국 수산물의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이 WTO 가입과 동시에 WTO 회원국 및 지역이 원산지인 수입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최혜국 대우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수산물의 총품목 수는 188개로 나타났으며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 범위는 34단계, 평균세율은 14.71%로 나타났다.⁴⁰⁾ 이 중 94% 이상의 품목이 0~21.6%사이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국의 실행관세는 최혜국 대우세율과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방콕협정가맹국이 원산지인 수산물 수입품목에 적용하는 협정세율⁴¹⁾과 수입품목에 한해 일종의 소비세와 비슷한 성격의 증치세⁴²⁾를 더한 것을 혼합하여 실행관세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수산식품의 실행관세를 기준으로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13%~

39) 중국 수출입관세조례 제6조.

40) 우리나라 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43류 2개 품목이 제외되면, 2002년 기준 총품목 수는 186개이며, 평균관세율은 14.87%임.

41)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산물 수입품목에 대한 방콕세율 적용 품목수는 총 64개임. 세율별 품목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8%→ 5개, 9%→ 13개, 10%→ 33개, 12%→ 1개, 13%→ 1개, 15%→ 9개, 18%→ 2개임.

42) 증치세율은 13%와 17%로 구분할 수 있는데, 13%의 증치세율이 붙는 수산물 수입물품은 01류, 02류, 03류, 05류, 12류, 23류 등 총 6류, 159개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17%의 증치세가 붙는 수산물 수입물품은 13류, 15류, 16류, 21류, 43류 등 총 5류, 29개 품목으로 나타났음.

중국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MFN+협정관세+증치세, 2002년 기준)(계속)

품목 관세율	01류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43류	계
34%			3									3
34.2%		1					1	7				9
34.6%			10									10
35%					1							1
35.2%			1									1
36%		1						1				2
37%											2	2
37.7%			1									1
38%			2									2
41.8%			1									1
42.5%			1									1
44%									1			1
54.2%									1			1
계	1	2	143	4	6	1	3	21	2	3	2	188

주 : 실행관세 평균은 25.69%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2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2002.

<표 5-4> 중국의 수산물 HS 4단위 03류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

품목 관세율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13%	6					5	6	17
15%					1			1
21%	2		2			1		5
22%		7	6					13
23%		15	18			2		35
23.5%	2							2
24.3%						1		1
25%		2	4					6
26%				1				1
26.5%				1				1
27%	1	4	3					8
28%					4	1		5
28.3%							2	2
30.2%		1						1
30.5%					1			1

중국의 수산물 HS 4단위 03류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 기준)(계속)

관세율 \ 품목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31%				3	1			4
32%							1	1
33%					1	3	3	7
33.2%					1			1
33.4%					3	3	6	12
34%						3		3
34.6%					7	3		10
35.2%							1	1
37.7%							1	1
38%						1	1	2
41.8%	1							1
42.5%								1
계	12	29	33	5	19	23	21	143

주 : 실행관세 평균은 25.75%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2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2002.

HS 2단위 주요 수산물의 실행평균관세는 32.67%를 나타냈으며, 실행평균관세를 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관세율을 나타낸 것은 12류이고, 16류가 31.61%, 05류가 25.75, 그리고 가장 많은 품목 수를 가지고 있는 03류가 25.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세구조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중국의 실행관세율 구조가 고차 가공으로 갈수록 관세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23류만 실행평균관세가 17.8%로 비교적 낮은 실행관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한 03류에 대한 실행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03류의 실행관세범위는 13%~42.5%까지 총 27단계로 나타났으며, 실행평균관세율은 25.74%로 비교적 고율의 관세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수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물 전체 실행평균관세 25.69%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산물 전체 최혜국 대우세율에서 03류가 일반 수산물 전체보다 약간 높은 것과 비교해, 실행관세에 있어서 03류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적용관세가 기본관세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03류의 실행관세에서 증치세를 빼다면, 실행관세율 수준이 대폭 낮아지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치세가 수입과 동시에 가산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수산물에 대한 실행관세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3류의 품목별 실행관세율을 살펴보면 활어(0301)는 대부분 13%에서 23.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신선·냉장 어류(0302)와 냉동어류(0303)는 21%~27% 이내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수산물 수출품목을 HS 4단위 분류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전체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03류와 16류 중에서도 0303류(냉동어류), 0307류(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 제외>), 그리고 1604류(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가 많이 수출되고 있다.

<표 5-5> 중국의 대한민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 구조

단위: US\$, %

품목명	HS분류		수출금액	점유율	최혜국 ³⁾ 대우세율	증치세 ³⁾	종합 세율 ³⁾
	중국(8단위) ²⁾	한국(10단위) ²⁾					
합계			44,344,967	100%			
소계			38,891,587	87.70%			
오징어(냉동)	03074900	0307491020	16,081,940	36.27%	15.3	13	28.3
기타어류(냉동) ¹⁾	03037990	0303799099	4,253,927	9.59%	14	13	23
명태(냉동) ¹⁾	03037990	0303791000	4,183,432	9.43%	14	13	23
기타연체동물 (냉동)	03079990	0307991190	4,049,134	9.13%	20	13	33
갑오징어(냉동)	03074900	0307491010	3,149,991	7.10%	15.3	13	28.3
대구(냉동) ¹⁾	03036000	0303600000	2,820,926	6.36%	14	13	23
새꼬리민태 (냉동) ¹⁾	03037990	0303799080	2,228,745	5.03%	14	13	23
입연수어(냉동) ¹⁾	03037990	0303799060	890,640	2.01%	14	13	23
피조개(산것/신 선,냉장)	03079199	0307911500	630,578	1.42%	20.4	13	33.4
기타넙치류 (냉동) ¹⁾	03033900	0303390000	602,274	1.36%	12.5	13	22

주 : 1) 해당 품목은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가 원산지인 품목에 대한 방콕협정세율 품목임.

2) HS Code는 8단위는 중국분류이고, 10단위는 우리나라 분류임.

3) 한국 수산물이 중국으로부터 적용받는 세율은 최혜국 대우세율(MFN)+증치세+방콕협정세율(해당품목에 한함)로, 종합세율은 실행관세를 말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2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2002.

해양수산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2002.

해양수산부, 「2002년도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2003.

HS 4단위 분류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중국수출 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 품목⁴³⁾을 통해 중국의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수출 금액 상위 10개 품목은 모두 03류인데, 금액상으로는 0307류가 약 54%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품목수로는 0306류가 6품목, 0307류가 4품목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국수출 수산물은 금액, 품목 면에서 0303류와 0307류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상위 10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15.35%, 증치세를 포함한 종합관세율은 26%로 중국 수산물 전체 품목의 관세 14.71%(기본관세), 25.69%(실행관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3) 일본의 수산물 관세구조

일본의 관세제도는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의 소위 「관세3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관세율의 종류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특혜세율, 협정세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율의 적용순위는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⁴⁴⁾

기본세율은 관세정율법에 정해진 세율로서 관세행정상 기본이 되는 세율이며, 잠정세율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관세잠정조치법에서 정한 세율이다. 또한 협정세율(GATT 양허세율)은 외국과의 조약을 기본으로 특정한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특혜세율(일반특혜세율과 최빈 38개국에 대한 특혜특별세율)은 개발도상국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서 한 특정 품목으로 일정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다.

이들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특혜세율, 협정세율, 잠정세율, 기본세율의 순서로 우선 적용되며, 특혜세율은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협정세율은 잠정세율이나 기본세율보다 낮을 경우에만 적용된다.⁴⁵⁾ 일본의 관세율 구성을 간단하게 표로 요약하면 <표 5-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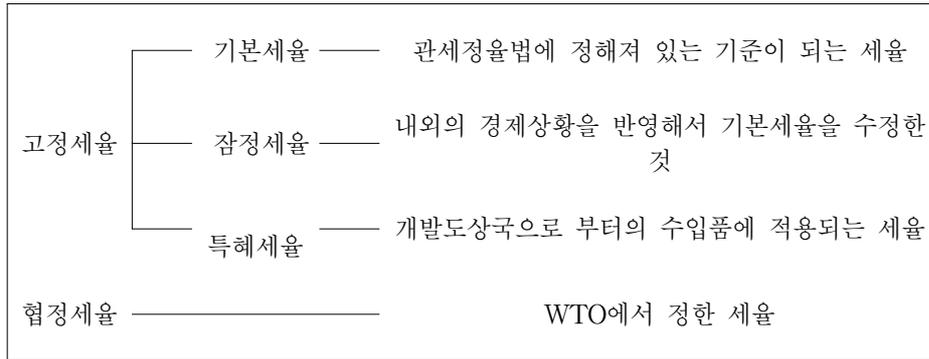
43) 상위 10개 품목의 총 수출금액은 71,264,695달러로 전체 품목의 총 수출금액인 84,081,038달러의 약 85%에 달함.

44) 日本 關稅法, 關稅法施行令, 關稅正率法 참조.

45) 日本貿易振興會, 「貿易投資ハンドブック2000-2001」, JETRO 事業統括部, 2000. 3 참조.

<표 5-6>

일본의 관세율 종류



자료 : 日本輸入食品安全推進協會, 「食品輸入ガイドブック」, 2001. 2.

관세율은 실행관세율표에서 개별 품목에 따라 명기하고 있다. 이 표에는 기본관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잠정세율 등 4개의 관세율이 기재되어 있으며,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관한 통일 시스템에 관련되는 국제조약(HS조약)」에 입각하여 모든 수입품을 부(部), 류(類), 항(項), 호(號)로 순차적으로 세분화하고 번호를 붙여(HS CODE) 분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국제표준인 6자리의 코드에 3자리 통계용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다.⁴⁶⁾

일본의 수산물 관세율은 UR 협상결과에 따라 1988년 무역량을 기준으로 한 평균세율 6.1%(무역가중평균)에서 최종년도인 1999년에 4.1%까지 인하하였다.

2002년도 일본의 수산물 HS 품목은 총 322개 품목(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2개 품목 중에서 03류가 238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6류 49개, 12류 12개로 3개 부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6) 藤本進編, 日本の關稅, 財經詳報社(1997), pp.14~16 및 관세청, 일본의 관세행정(1998) 참조.

1961년 일본은 세율의 분류를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조약에 따르도록 하였고, 동시에 수입자유화에 대응하여 국내산업보호 차원에서 관세율을 조정하였지만 이즈음 종량세율의 채택, 관세할당제도, 선택관세 등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긴급관세가 창설되었음. 그 후 일본은 1988년 1월 1일부로 과거 CCCN에 근거한 관세분류를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로 전환하였다. 관세율표는 「HS조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HS 품목표의 필요사항에 의해 세분화되었고, 수입상품의 분류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여 항목, 번호 및 관세율 표상의 세분을 큰 분류에서 작은 분류로 체계적으로 나누었음.

전체 322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구조⁴⁷⁾는 0%에서 40%까지 17단계로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 비하여 매우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 제외), 전체 수산물의 73.9%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 238개 품목)는 9단계(0%~15%)의 관세율 구조로 가지고 있다. 종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을 제외한 319개 품목의 2002년도 평균 기본관세율은 7.8%이다.

그리고 42개 품목이 국제기준으로 고관세로 분류되는 1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전체 319개 품목 중에서 44%에 해당되는 144개 품목이 5% 미만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124개 품목이 10% 미만, 그리고 47개 품목이 15% 미만의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수산가공식품류인 16류는 총 49개 품목 중에서 26개 품목에 관세율 9.6%를 적용하고 있으며, 관세율 구조는 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홍조류(1212-20-120)는 전체 319개 품목 중에서 최고 세율인 40%를 적용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 톳 등 조제식료품(21류)은 25%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고, 어류 중 28개의 민감 품목은 15%의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전체 약 74%를 차지하는 03류는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활어, 신선 또는 냉장어류, 냉동어류,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류의 분·조분, 갑각류, 연체동물과 수생무척추동물 등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HS 2단위 주요 수산물의 실행평균관세는 0%부터 40%까지 총 27개 관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2단위별 실행관세율을 살펴보면, 03류는 대체로 5% 미만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고 05류, 12류, 15류 또한 다른 2단위 품목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관세율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류는 9%~11%의 관세율 구조를 가지는 품목이 전체 49개 품목 중 34개로 다른 2단위 부류의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이러한 관세구조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실행관세율 구조가 고차 가공으로 갈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나, 전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실행관세율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2001년 일본 수산물 기본관세구조는 19개 관세율을 나타냈으나, 2002년에는 2개가 줄어든 17개로 나타났다.

HS 4단위를 기준으로 한 03류에 대한 실행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 03류의 실행관세범위는 0%~15%까지 총 17단계로 나타났으며, 실행평균관세율은 5.47%로 비교적 고율의 관세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수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물 전체 실행평균관세 5.84%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03류 전체 수산물의 61% 정도가 5% 이하의 실행관세율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HS 4단위별 관세율 구조를 살펴보면(<표 5-8> 참조), 0301부터 0304까지는 대부분의 품목이 3.5% 이하의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0306과 0307는 3.5%~7%의 관세율 구조를 가지는 품목이 각각 57%와 68%로 0303보다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0305는 다른 품목보다 비교적 높은 관세율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일본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도 기준)

관세율(%) \ HS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0.0	2	8	7	3		1			4	25
1.0		8								8
1.7		1	1							2
2.0		9								9
2.5		4								4
2.8		3								3
3.5		94	1	2		2				99
4.0		11								11
4.8							4			4
5.0		8					3			11
5.3						1	3			4
5.6		1								1
6.0		10								10
6.4							3			3
6.7							2			2
7.0		26								26
7.5		1								1
8.4		4								4
9.0							2			2

일본의 수산물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도 기준)(계속)

관세율(%) \ HS	02류	03류	05류	12류	13류	15류	16류	21류	23류	계
9.6							24			24
10.0		34					2			36
10.5		6		4			4			14
11.0							2			2
15.0		10		1						11
17.5								1		1
25.0								1		1
40.0				1						1
총량세				1	1	1				3
계	2	238	9	12	1	5	49	2	4	322

주 : 평균실행관세는 5.84%임.

자료 : www.apectariff.org, Table of Duty in Japan, 2002.

<표 5-8> 일본의 수산물 03류 실행관세율 구조(2002년도 기준)

관세율(%) \ HS 코드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계
0.0	6						2	8
1.0						8		8
1.7	1							1
2.0		2	3	2		2		9
2.5		1	1	2				4
2.8			1	1	1			3
3.5	5	28	34	19	1		7	94
4.0			1			10		11
5.0						4	4	8
5.6		1						1
6.0			6	4				10
7.0						2	24	26
7.5					1			1
8.4					4			4
10.0	1	9	5	4	5	2	8	34
10.5					4		2	6
15.0					6		4	10
계	13	41	51	32	22	28	51	238

주 : 평균실행관세는 5.47%임.

자료 : www.apectariff.org, Table of Duty in Japan, 2002.

<표 5-9>는 일본이 수입한 수산물을 2000년도 기준으로 어종별 수입금액 순으로 38개 품목을 선정하여 실행관세율을 파악한 것이다. 38개 주요 수입어종의 실행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15%까지 매우 다양하게 과세되고 있다. 무세는 진주(우리나라는 수산물 분류가 아님), 어분, 방어·치어 등 3개 품목이며 15%의 관세는 기밀용기 이외 가리비 조제품 1개 품목이다. 38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약 5.7%⁴⁸⁾이다.⁴⁹⁾

<표 5-9> 일본의 어종별 수입현황과 관세율

단위 : 천 달러, %

품 목 ¹⁾	협정관세 ²⁾	1998년	1999년	2000년
총 계		13,337,105	15,332,289	16,086,987
새우(활, 신선, 냉장, 냉동)	1	2,782,650	2,705,939	3,029,669
다랑어, 새치류(신선, 냉장, 냉동)	3.5	1,562,562	2,036,681	2,071,687
연어, 송어류(활, 신선, 냉장, 냉동)	3.5	937,575	1,180,913	1,071,889
게(활, 신선, 냉장, 냉동)	4	738,553	927,683	988,444
뱀장어조제품(기밀 이외)	9.6	643,500	672,325	789,693
명란(신선, 냉장/냉동/건, 훈) IQ	10/4.2/7.5	282,447	486,890	586,320
몽고오징어/몽고 이외 (활, 신선, 냉장, 냉동)	5/3.5	400,551	433,114	432,581
새우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4.8	304,942	310,644	371,777
문어(신선, 냉장, 냉동)	7	349,708	395,524	361,218
진주(진주 또는 진주제품)	무세	266,553	325,816	328,731
명태류(신선, 냉장/냉동) IQ	10/6	274,875	377,104	322,319
성게(활, 신선, 냉장, 냉동, 건, 훈)	7	236,714	256,943	265,912
넙치, 가자미류(생, 냉, 동)	3.5	106,427	191,848	215,148

48) 5.18~5.7%, 1개 어종이 품목별 복수 관세이므로 다르게 나타남.

49) 325개 전 품목(중량세 2개 및 선택세 1개 품목 제외)의 실행관세 평균은 6.0%임. 3.5%를 적용하는 품목이 98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0%가 38개, 7%와 9.6%가 각각 25개이며, 10% 이상의 품목이 전체의 21%를 차지함.

일본의 어종별 수입현황과 관세율(계속)

품 목 ¹⁾	협정관세 ²⁾	1998년	1999년	2000년
계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9.6	105,242	138,701	180,535
어분	무세	245,613	200,791	176,848
고등어(신선, 냉장/냉동)	10/7(잠정)	196,111	200,200	163,271
명란조제품(기밀용기 이외)	9	104,449	122,420	158,845
청어어란 (신선, 냉장/냉동/건, 훈)	5.6/4/8.4	125,145	129,048	145,279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동)	3.5	116,578	144,437	136,960
은대구(동)	3.5	113,759	123,967	131,211
뱀장어(활)	3.5	167,222	159,892	109,573
메누케(동)	3.5	100,846	101,536	103,848
오징어조제품(기밀 이외)	5/3.5	49,065	65,423	102,575
모시조개(활, 신선, 냉장, 냉동)	7	82,682	80,729	97,033
굴(활, 신선, 냉장, 냉동)	7	49,473	74,655	94,028
이또요리(돔: 신선, 냉장/냉동)	2	56,750	84,220	86,228
삼치(신선, 냉장, 냉동)	3.5	103,164	97,164	68,163
청어(신선, 냉장/동), IQ	10/6	59,644	79,530	64,150
방어치어(양식용, 활)	무세	37,170	33,621	67,946
미역	10.5	65,436	79,497	66,793
열빙어(동)	2.8	52,330	59,619	56,280
연어, 송어어란(훈, 건)	3.5	52,256	66,404	63,645
전갱이(신선, 냉장/냉동)	3.5/6	57,116	62,762	60,467
참치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9.6	64,718	60,528	59,651
가다랭이류(생, 냉, 동)	3.5	58,006	54,015	42,099
피조개(활)	7	41,567	39,610	38,923
멸치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9.6	57,487	45,739	33,559
가리비 조제품(기밀용기 이외)	15	34,177	42,772	27,734

주 : 1) 2000년도 기준 어종별 수입금액 순으로 38개 품목을 선정한 것임.

2) 2001년도 기준임.

자료 : 財務省, 「貿易統計」, 各年道, 日本貿易振興會, 「アグロトレード 핸드ブック 2001」, 2001.

日本水産物貿易協會, 「水産物貿易統計年報」, 2002.

그리고 <표 5-10>는 최근 3년간(1999년~2001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한 수산물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관세와 협정관세를 정리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14개 주요 품목은 3.5%에서 10.5%사이의 관세를 적용 받고 있으며 실행관세율의 평균은 5.7%이다. 이에 비하여 14개 품목의 기본관세율 평균은 8.3%로 실행관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표 5-10> 일본의 대한국 주요 수입수산물 관세율

HS CODE	수출금액순 위	품명	관세율(%)	
			기본관세	협정관세
0303-49-020	1	눈다랑어(냉동)	5	3.5
1604-30-090	2	캐비아대용물	6.4	6.4
0303-42-000	3	황다랑어(냉동)	5	3.5
0307-10-100	4	굴(활, 신냉)	10	7
0307-91-499	5	피조개(활, 신냉)	10	7
0301-99-290	6	넙치(활어)	10	3.5
0304-10-199	7	붕장어피레트(신선·냉장)	5	3.5
0303-80	8	명란(냉동)	10	4.2
0304-20	9	기타어류피레트(냉동)	5	3.5
1212-23-010	10	투스(건조)	15	10.5
0307-10-100	11	굴(냉동)	10	7
1604-20	1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어류	9.6	9.6
0301-99	13	붕장어(활어)	5	3.5
0307-91-1800	14	바지락(활, 신냉)	10	7

주 : 최근 3년간(1999년, 2000년, 2001년) 대일 수출금액 순위별 품목을 선정한 것임.

2. 한중일의 수산물 비관세장벽 분석

1) 수산물 비관세 조치의 분석개요

비관세장벽이란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이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의 선별적 규제로 정의된다. 이같은 비관세장벽은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

용에 있어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여 관세장벽에 비해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다. 비관세장벽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WTO(세계무역기구) 기준, UNCTAD(UN무역개발회의) 기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WTO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부관여, 수입절차, 제품기준, 수입에 관한 특정 제한, 가격에 의한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한중일의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우는 문헌조사를 위주로 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중국과 일본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한 비관세장벽의 유형은 아래의 <표 5-11>처럼 WTO가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분류해 서술하였다.

<표 5-11> WTO의 비관세장벽 분류

구 분	내 역
정부관여	국영무역, 정부 조달 등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반덤핑 관세, 자의적 관세 분류, 구비서류 요구, 원산지 증명 등
제품기준	보건 및 안전 기준, 용기 규정, 제조기준, 가공 규정 등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	수량 제한, 수입금지, 수입허가, 관세할당 등
가격에 의한 규제	수입담보금, 영사수수료 등
기타 규제	광고 및 운송 규제, 제한적 상관행 등

한중일의 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수산물을 1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9월 1부터 9월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였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122개사와 일본으로 수출하는 270개사 등 총 392개 업체의 설문 회수율은 20%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90%는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같은 비관세장벽이 직·간접적으로 수출 업무에 차질을 주며 결과적으로 자국 내 수입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관세장벽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서 WTO가 분류하는 비관세 장벽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다.

<표 5-12> 한중일의 주요 비관세 조치 유형

구분	국가	상세 내용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한국	○ 관세분류와 관세율의 자의적 변경
		○ 행정상의 이유로 통관 지연
		○ 새로운 수입물품의 통관기간 10~18일로 다른 국가들보다 장기간 소요
	중국	○ 생산자 조합의 수입서류 요구로 해외 수출업자의 영업비밀 누설 가능
		○ 지역별 통관처리 기준 상이
		○ 통관 관련규정의 사전 예고 없는 변경
		○ 통관에 필요한 서류 과다 요구
	일본	○ 세관의 짧은 근무시간
		○ 원산지 증명 서류 까다롭게 요구
	제품기준	한국
○ 수산물 포장 및 용기별 검사 규격 지정		
일본		○ 수산물 가공업자의 생산시설 HACCP에 부합해야 수출 가능
		○ 지정 해역 선정의 수질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
		○ 양식수산물의 항생제 검사 엄격
중국		○ 위생증명서 엄격요구
		○ 수입 수산물의 중금속 함유량 기준 적용
	○ 중국 이외 다른 국가의 검사결과 인정하지 않는 비유통적 관행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	일본	○ 한국산 어패류에 9종에 대한 쿼터량
기타	한국	○ 품질인증제도
	일본	○ 활어 운송 차량 및 운송지역 제한

2) 한중일의 세관 및 행정상 수산물 수입절차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세관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는 모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3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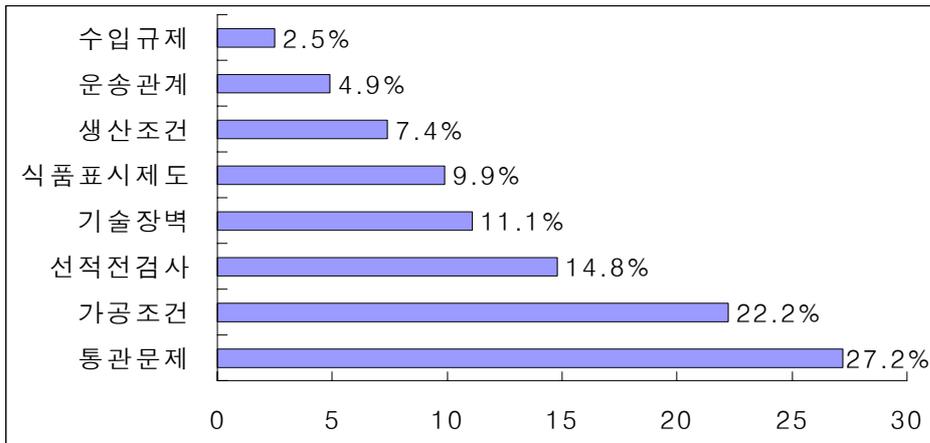
한국의 관세청은 특정제품의 관세 분류와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갑자기 변경시키거나 인쇄오류, 활자 크기, 지운 자국 등의 사소한 행정적 이유로 통관신청서를 거부하면서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입통관이 34일 이내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 새로운 제품의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0~18일 정도 걸리는 등 수입 통관기간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과도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내의 경쟁업체들로 구성되는 생산자 조합에서 수입서류를 공인, 허가 받을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관행 또한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자조합의 수수료 수입을 보장하면서 해외 수출업체의 영업 비밀에 접근하여 공정 경쟁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통관절차는 수입 운송수단의 책임자, 물품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 물품의 소유자가 해관에 수입 수속을 신청하고 해관에 제출된 증명서와 수입 통관을 신청한 물품을 조사, 심의, 관세부과 등 4가지 기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이같은 통관절차가 지역과 세관 직원에 따라 처리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통관 관련 규정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업체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관련선적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와 수입허가증(쿼터증명서 등), 상품검사, 검역 증명서 등의 특수 서류 외에 추가로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 원산지 증명, 수입업체의 영업허가증, 기타 관련 서류 등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대중 수산물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5-1> 대중 수출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실제 경험 사례



이같은 통관절차의 복잡성 외에도 중국의 통관은 세간 근무시간 외에 공휴일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아 신속한 통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일 통간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매일 15시 30분에 컴퓨터 작업을 중단한다. 또 주 5일 근무로 금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보지 않는 등 세관의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경우, 대일 수산물 수출업자의 12.3%가 통관문제를 주요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지 통관시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을 저해하고 수출업무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수산물 통관제도는 세계 99개국과 한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2분류로 나누고, 한국산 패류에 대해서는 통관 전 패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6년 12월 19일부터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을 첨부할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홍합의 경우는 5회 수입마다 1회, 굴의 경우는 시즌 시작 전 1회 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패독이 검출되는 시기는 3~5월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모든 조개류를 연중 검사하는 관행은 통관 시간을 지연시켜서 상품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거나 부패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1회 패독 검사료가 17,000~38,000엔 정도의 고가여서 수출업자에게 큰 비용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중일의 수산물 제품 기준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나라 나름대로의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 판정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상이한 표준화제도는 국가 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수출국은 수입국의 기술명세에 부합하도록 변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비용이 발생해 수출국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반면 수입국은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의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제품기준에 의한 비관세장벽은 한중일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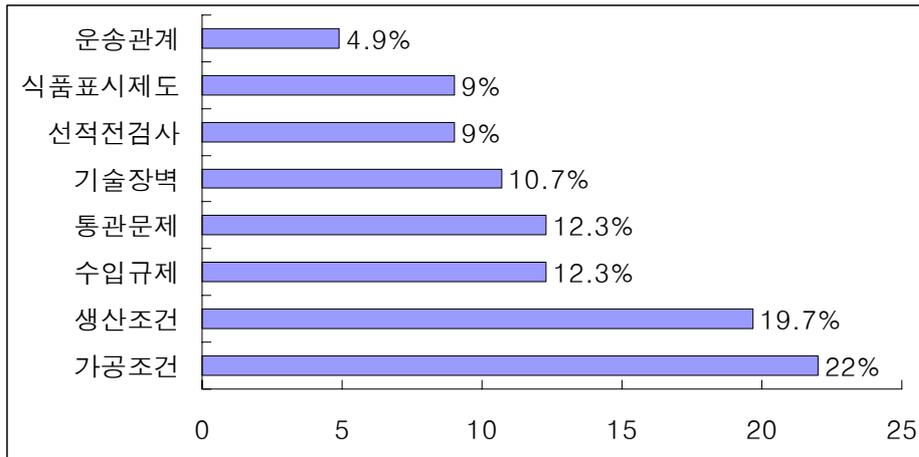
한국은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 검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부 규격 및 검사 결과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의 고시에 따르고 있다. 그 대상은 어상자, 굴, 홍합, 우렁쉥이의 용기 및 바지락의 포장으로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에 한해 적용하며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별 검사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굴, 홍합 및 우렁쉥이의 용기는 합성수지, 스티로폼 및 합석통이고 바지락은 면포대와 합성수지로 구분하여 용기규격을 정하고 있다. 규격 표준화를 인증 받은 자가 규격 부적합이나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등의 위반 행위를 행할 시 개선명령, 표시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의 의무표시사항을 누락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일본은 제품 기준 가운데에서도 제조 기준 특히, 가공과 생산 기준이 까다롭다. 최근 일본 정부가 식품 안전성 강화에 더욱 주력함에 따라 국내에서 수출되는 가공 수산물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산물 가공 공장은 수출국 검사기관에 등록되어야 수출이 허용되고, 그 공장의 가공 시설 및 위생 기준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수출 조건은 국내 가공수산물 수출업자들이 위생시설에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고, 시설 투자가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수출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특정 물질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업계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응답도 많았다.

또한 대일본 수출의 생산 기준이 엄격하여 국내 수출업자들이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수출시 지정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만 수출이 가능하고 지역해역 선정시 수질은 국제규격보

다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조사되었다. 양식 수산물의 경우에는, 항생제 잔류검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실시하여 수산물 수출업자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일 수산물 수출품목 중 4위를 차지하는(금액기준) 넙치(활어)를 수출할 경우 일본인들은 체장이 크고, 큰 타원형의 넙치를 선호하는 반면, 아가미가 벌어진 넙치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선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림 5-2> 대일 비관세장벽 유형별 수출업자의 의견



중국의 경우에는 가공 조건과 관련하여 수입 수산물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며, 수출 수산물의 가공 시설 및 공장의 위생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제도에 부합할 때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위생증명서 등의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산물 수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27.8%였다. 중국의 위생 표준은 식품 중 농약잔류 허용 기준과 중금속 함유량 및 주요 품목별 위생표준으로 나뉜다. 수산물과 관련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특정 물질에 대한 검사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 비용을 가중시킨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자국 소재 검사기관 외 한국을 비롯한 타국의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는 등 융통성 없는 검사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국내 수출업자들이 어려움

을 느낀다는 견해도 설문조사 결과 44.4%를 차지했다. 또한 검사기준이 자주 변경되거나 혹은 변경에 따른 사전 공시기간이 짧아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수입을 규제하려는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3> 중국의 수입 수산물 중금속 함유량 기준

종류	허용치, mg/kg
카드뮴(cd)	0.1 이하
철(Fe)(통조림의 경우)	70 이하
수은(Hg)	0.3 이하
구리(Cu)	50 이하

4) 한중일의 수산물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

수산물 수입에 관한 특정제한은 한국,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수산물 수입에 관한 수량규제를 두고 있다.

일본은 통산성고시 제170호(1996. 4. 30)에 근거하여 1966년부터 한국산과 기타 106개국 등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한국산 빙어,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꽂치, 가리비, 패주, 마른 멸치 등 9개 어패류에 대하여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106개국산에 대해서는 82년 4,250만 달러에서 2001년 약 6억 달러로 쿼터를 꾸준히 증액하였고 고등어, 전갱이(97년), 정어리(98년), 가리비(99년), 대구(2000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액쿼터를 수량쿼터로 전환하여 수입어종의 단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국산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금액 쿼터를 고수하고 있고 1983년 이후 19년 동안 연간 4,000만 달러로 동결하고 있어 한국산 수산물 수출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수입규제가 비관세장벽으로서 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196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쿼터의 범위 내에서 수출을 하는 소수의 업체들은 수입쿼터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응답업체의 10%가 수입쿼터를 비관세장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

는 오랜 기간 수입쿼터의 범위 내에서만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확대하려는 노력 없이 현실에 적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4> 일본의 어패류 9종에 대한 수입할당 추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산	금액할당 (만 달러)	4,5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106개 국산 (’03년 부터 106개국)	금액할당 (만 달러) (a)	30,200	17,300	18,000	2,400	40,900	2,550	2,600
	수량할당 (천 톤) 금액환산 (만 달러) (b)	276 (31,801)	319 (39,583)	345 (41,780)	430 (57,097)	440 (58,425)	445 (59,098)	476 (63,190)
	(a)+(b) (만 달러)	62,001	56,883	59,780	59,497	63,325	61,639	65,790

주 : 수산물 9개 품목은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정이 있어, ’03년도부터 할당 대상국가가 101개국에서 106개국으로 증가하였음.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이러한 수량제한 이외에 수입제한 방법으로서 일본의 운송제한을 들 수 있다. 일본은 활어 차량 등의 일본 내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한국의 수출업자의 수출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의 승용차 및 활어운반차, 냉장, 냉동차 등 특수차량에 대해 한국 내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1999년 5월부터 한국 측이 특수차량의 일본 내 운행 허용을 요구하자 일본 대장성은 한국 특수차량의 일시 수출입 관련 면세 및 세관통관절차를 확정 시행하여 통관상의 장벽은 제거하였지만, 국토교통성은 ‘도로운송차량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 내륙으로의 보세 운송 제한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고 창고료 등의 운송비용을 증가(34%)시키며, 특정 물품별로 수입 항구를 별도로 지정하기 때문에 통관 시간이 지연(34%)된 경험 사례가 각 각 지적되었다.

<표 5-15> 대일본 수출 수산물의 쿼터량 제한 변동추이

구 분	1998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김 (만 속)	58	69	120	150	180	210
염장 다시마(톤)	500	500	500	500	500	500
명태 (톤)	1,027,000	1,027,000	1,027,000	1,027,000	1,027,000	1,027,000
명란 (톤)	73,000	78,000	82,000	83,000	83,000	83,000
청어 (톤)	119,000	126,000	131,000	131,000	131,000	161,000
오징어(톤)	60,100	60,100	60,950	62,950	62,950	62,950
마른 다시마(톤)	2,260	2,260	2,260	2,260	2,260	2,960

주 : 1속 = 100매입.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국의 비관세 현황」, 2004.

3. 한중일 3국 간 수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의 특징 비교

각 국은 WTO·DDA 협상 및 FTA 협상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시장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개방화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 크게 관세조치와 비관세 조치이다.

이들 조치는 시장개방화 과정에 있어서 수출국에게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수입국에게는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산물 기본관세율 수준은 일본이 가장 낮은 7.9%의 관세수준을 나타냈으며, 중국이 12.8%, 우리나라가 17.5%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꾸준히 관세 인하를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관세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행관세율은 일본이 5.8%, 우리나라가 18.6% 중국이 25.7%로 나타나 수산물의 실질 관세수준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낮은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한중일의 수산물 관세 및 비관세 조치 비교

구 분	한국	중국	일본
수산물관세율 구조	중가세 위주의 관세 및 관세율 단순	협정세율 적용 및 한국에 최혜국우대세율 적용 (13%, 17%)	중가세와 종량세 병행한 혼합세 일부 품목 적용
	조정관세 부과(12개 민감품목)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의 방콕협정세율 적용	한중일 3국중 가장 낮은 관세구조
HS 품목 구성*	품목코드 : 10단위	품목코드 : 9단위	품목코드 : 8단위
	품목수: 403	품목수: 188	품목수: 322
실행관세율 구조	전체 : 12단계	전체 : 39단계	전체 : 28단계
	03류 : 9단계	03류 : 27단계	03류 : 17단계
HS 4단위 기본 (실행)관세율	기본 : 17.5%	기본 : 12.8%	기본 : 7.9%
	실행 : 18.6%	실행 : 25.7%	실행 : 5.8%
관세율 특징	한중일 3국중 가장 단순한 관세구조(03류기본관세구조)	소비세의 일종인 최혜국우대세율이 관세와 같은 실행관세율 구조	낮은 관세율구조 속에, 12류의 경우 40%의 고율관세부과, 12, 13, 16, 21류 등 상대적 고관세율
수산물 비관세특징	원산지 및 위생관리 중점	통관복잡, 가공조건 강화, 행정적 처리지연	가공 및 생산조건, 강화, 수입쿼터(IQ)적용

주 : 2002년 기준임.

또한 수산물 HS품목(2002년 기준)은 우리나라가 총 40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총 321개 품목, 중국은 총 188개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수의 차이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다양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6-2> 참조).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기본관세율보다 실행관세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본은 실행관세가 기본관세보다 낮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관세조치는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 지자체, 업계 등이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을 차별하는 직·간접의 선별적 규제로 정의되는데, 이같은 비관세조치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운용에 있어 자의적인 요소가 강하여 관세장벽에 비해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세 조치를 비제도적인 사항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한중일의 수산물 비관세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392개(대일 122 대중 277)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로 통관문제, 가공조건, 생산조건, 수입규제 등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국의 비관세조치로 통관문제와 가공조건을 약 50%의 응답자가 지적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가공조건 22%, 생산조건 20%로 일반적으로 주요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하였고 수입규제(수입할당)는 12%로 나타났다.

제 6 장 우리 수산업의 과제와 시장개방 대응방안

세계화와 지역주의라는 두 축에 의해 세계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자국의 이익과 연계시키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개방화 협상(WTO·DDA 협상 및 FTA 협상)에서 우리 수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취약산업인 수산업을 지원,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해 온 수산보조금에 대한 제한은 물론 수입관리수단으로 활용해 온 관세·비관세 조치도 완화 또는 철폐를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한중일은 수산물 생산 측면에서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수출 면에서도 한·중은 일본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이며, 중국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도 한·일은 최대의 경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 중·일은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시장개방화시대에 이러한 한중일 3자 간 수산물 수출입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국내의 수산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되는 한중일의 수산업 생산, 소비, 수산기술, 어업별 어종별 생산성, 수산업 잠재력, 수출입 구조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하지만, 비교대상이 되는 자료의 수준 및 단위가 상이하여 한중일 3국의 경쟁관계를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상에서 검토한 한중일 3국의 수산물 시장개방정책과 수산물 국제경쟁력 분석, 그리고 3국의 수산물 수요와 공급, 수출입 추이 및 요인 분석과 수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교를 통하여 우리 수산업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이렇게 하여 도출된 과제를 바탕으로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수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1. 수산물 시장개방과 우리 수산업의 과제

WTO나 FTA가 추구하고 있는 무역자유화는 소비자들에게 값싸고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여 상품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실질 잉여를 증가시키고 생산자는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특화·생산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생산자 잉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무역자유화가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 또는 모든 계층에 반드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산업·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축소 경향에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WTO나 FTA에서의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던 수산업 보호장치의 제거 또는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도 완화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여건도 개선될 여지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미의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11월 말에는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하였는데, 이들 국가 이외에 우리 정부가 FTA 체결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 EFTA 회원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수산물 생산대국이자 수출대국으로서 우리 수산업에 위협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시장은 1989년 GATT·BOP 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미 단계별로 수입자유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수산물 전 품목이 1997년 7월 1일자로 '수입자동화 승인품목화'하여 개방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며,⁵⁰⁾ 이렇게 높은 관세율을 통해 수입관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시장개방화는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시점에서 수산물 수입은 내수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상품의 종류면에서도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산물과 차별화되지 않은 중국산 수산물은 대부분 내수용으로 사용되고

50) 기본관세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세율 평균은 중국보다 높게 나타남(<표 5-16> 참조).

있으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산물도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대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수산물 시장의 수급과 가격은 수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라 국제수산물시장의 가격 변동과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국내 수산업 정책도 각종 보조금의 감축의무와 더불어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에 합치시켜 나가야 하며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다.

더욱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및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상실과 출어포기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신어장개척, 해외개발 수입, 연근해 자원조성사업, 그리고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등을 통하여 수산물의 국내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이다.

우리와는 달리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연근해 자원의 감소와 과잉어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자원이용, 양식산업의 발전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정책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생산 증대정책에 맞추어 수산물 수출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과 함께 의무적으로 완화할 수밖에 없는 관세 및 비관세 양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 등을 수산물 수출시장으로 하는 적극적인 수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은 한 때(1974년) 국내생산량이 12,000천 톤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일본 정부는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자원유지 측면에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산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일본의 수산물 시장개방화정책은 자원보호와 잠정수역의 문제를 매우 강하게 의식하고 진행시켜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무역관세율의 문제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수산물 시장개방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기회와 우려 그리고 강점 및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국내내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수산업 기반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수산물 소비국인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동시에 수산물 소비 기호

도 유사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수산물 수입시장의 급성장은 우리 수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 부문의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와 자원고갈에 따른 수산물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우리 수산업에 약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에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수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표 6-1> 우리나라 수산업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수산물 최대 소비국인 일본과 인접 -국내 수산물 소비 증가 -수산물 소비형태의 다양성 -어업기술 및 가공기술 강점	-수산자원의 고갈 -생산 대비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 -어업인구의 고령화 -수산물 국제경쟁력 약화 추세	-일본 및 중국의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급증(최근 3년간 20% 이상 증가) -중국의 수입수산물 다양화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및 관세인하 협상 -중국과의 FTA 체결 -중국의 어업 및 수산가공 기술 발전 -중국의 수산물 수출 강화 -저비용 수산물 생산구조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업이 대비하여야 할 주요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DDA 시장개방화 협상 및 FTA 협상에 대비하여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 생산정책 중심의 정책 기조로서는 WTO 및 FTA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시장개방화에 조화롭게 대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둘째, 수산업의 특성 및 우리나라 수산업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협상전략이 도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오랫동안 대외적으로는 수출산업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품(식량)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3,000여개의 도서와 연안을 중심으로 한 어촌지역의 지역발전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산업의 영세성과 신한일 어업협정 및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어장 상실 등 국

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수산업의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는 어업인의 피해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를 변화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쟁상대인 중국 수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수산물의 수요가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수산물 자급률의 하락은 수산물 수입 증대를 촉진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생산량만으로 수요(수출수요를 포함)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시각에 입각한 수산물 수입억제방안이나 열위품목의 수입확대 우려론 만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곤란할 것이다. 물론 수입 수산물의 급격한 증대는 국내 수산업에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개방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방어는 동물성 단백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산업으로서 대내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품목에 따라 선택적인 수입 확대와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관리 강화정책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 불균형 및 고관세 구조를 고려할 때, WTO 체제의 확대, 강화 및 FTA 확산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출을 약간 증가시키는 반면 수입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의한 국내 수산업의 침체는 수산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어촌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산물 시장개방협상에 병행하여 국내 수산업의 적정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적정세력, 특히 연근해 생산 부문의 적정세력은 원양어업 생산량 및 양식어업 생산량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근해 어장의 자원상태와 자원회복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시장개방화는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수산업의 특성상 경영환경이 열악하고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적이고 갑작스런 수산물 시장개방화가 국내 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2. 우리 수산업의 시장개방 대응방안

1) WTO·DDA 협상과 우리 수산업의 대응방안

지금까지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수산업이 겪어야 할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WTO·DDA 협상을 고려하여 우리 수산업이 대처해야 몇 가지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①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 방향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은 주요 쟁점 및 협상 대상국에 따라 다양한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산물 협상의 목표와 비전, 협상한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수산물 시장개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첫째, WTO·DDA 협상과 협상 이후 예상되는 국내 수산정책의 전환을 연계시킨 전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도하개발아젠다가 채택될 무렵과는 상황이 많이 변화되었으며 협상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시장개방 협상결과를 국내정책에 반영하는 속도가 매우 둔감하다. 예를 들면, 수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수산정책사업 대부분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서구 선진국들과 같이 수산정책예산을 일반 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산물의 개방속도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물의 상품적 특성 즉, 식품으로서의 수산물, 수산물의 안전성, 유한자원으로서 수산자원, 품목별·지역적·해역별 수산업(수산물)의 다양성이 고려될 수 있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세중심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협상에 비관세장벽을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은 재생성(再生性)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자원으로, 적절한 자원관리에 따라서는 자원의 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종별·해역별로 구별하여 협상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산물 시장개방정책 및 수산정책 기조의 전환

이상과 같은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수산물 시장개방정책의 발빠른 전환이 요청되어 왔다. 우선 국내대책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산정책으로의 비중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산물 협상전략과 동시에 국내 수산정책의 발빠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립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은 다원화사회일수록 정부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정부가 선두에서 주체적으로 모든 협상(통상, 어업협상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전략으로서 수산자원과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고, 자원량의 측정 및 세계 각국의 자원량 Data Base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안하고, 이 Data Base를 바탕으로 어종별 자원량에 따른 해역별·품목별 무역자유화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관세 인하방식 중,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WTO 설립 취지는 물론 시장개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자유경쟁의 조건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해야 할 것이다.

WTO·DDA 협상 타결 이후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조화로운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생존 가능한 수산업은 과연 무엇일까. 이 과제의 해답이 향후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어업인 및 정책결정자의 점증적인 사고 또는 점감적인 사고로서는 변화를 선도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수산정책과정의 agend-setting 단계에서부터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의 수산물 시장개방 협상테이블에서 끊임없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뉴

질랜드, 노르웨이와 같은 수산국가의 수산업(생산, 유통, 무역, 소비형태, 어업 규모, 어업인구 등)현상을 보면 일종의 해답이 떠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 및 노르웨이의 경우, 총인구 대비 수산업 인구비율이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거의 없으며, 산업으로서의 수산업(수출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소비량 및 소비형태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시대에 경쟁력 있는 우리 수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첫째, 영세 수산업의 규모화(산업인구 및 어선의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수산물에 대한 소비형태(활어 중심에서 선어, 가공품 중심으로)의 변화를 통한 소비량을 조절하고, 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요리방법의 다양화를 통하여 감모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셋째, 고부가 가치상품의 개발 및 적극적인 수출을 통하여 무역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수산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수산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총수산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이 1980년 1.9%에서 1990년 9.6%, 1996년 25.0%, 1999년 29.2%, 2000년 31.2%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국내소비가 국내생산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수산물 무역정책도 생산자 보호라는 수입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산정책 차원에서 수급안정이라는 정책적 연계를 통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 놓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가공비율이 73.9%(1997년 기준)로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제 수산물 원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관세부담 또한 비례적으로 상승하여, 수산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의 하락은 물론 국내물가의 상승압력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진출하고 있지 않은 신어장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수산물 수급안정은 물론이며, 수출원자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중일 FTA와 우리 수산업의 대응방안

한중일 FTA 체결에 있어서 수산업 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규모 면에서 축소과정에 있는 산업이며 수출에 있어서는 대일본 의존형, 수입에 있어서는 대중국 의존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상되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및 어업경영의 체질개선을 고려하여 FTA 체결 협상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일본의 IQ제도의 철폐에 대한 반대를 협상과정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IQ 수량제한을 관세화하여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과 중국은 자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한중, 한일 양자 간 또는 아세안 등 주변국가와의 FTA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중일 양국의 향후 소비패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입수요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일 수산물 수출에 지나친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인 반면,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관세 인하효과가 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비 증대 및 어류 생산 위축으로 일종의 수산물 수출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중일 FTA 체결은 수산물 수입국가인 한일의 경제통합이므로 장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수출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의 수산물이 한중일 역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산업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급증에 의한 역내 공급 부족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역외산 수산물의 역내 수입 증가는 필연적일 것이며, 그 결과 자원량 및 적정수요에 따른 수산업의 적정규모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기조, 생산자 보호라는 수입억제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수급안정)이라는 정책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중일 간 FTA 체결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업생산 분야(동일어장에서 연근해 어업 경쟁, 공해에서의 원양어업 경쟁)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한중일 수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수산업 협력을 통한 단기적인 경제효과보다는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한 선진기술의 공유 및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호혜적 협력모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장개방 대비 수산물의 합리적 수입관리 및 수출확대방안

마지막으로 시장개방시대에 예상되는 급격한 수산물 수입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산물 수출에 대하여 양적 증대 및 질적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수산물의 합리적 수입관리

수산물 수입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관세제도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 시장개방화가 관세율의 완전철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세정책의 기본 방향을 감안하여 저관세율 시대에서도 관세가 수입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물 관세율 수준의 다단계화, 가공도별 관세 누진화, 기본관세와 실행관세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수입된 수산물이 국내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국내 유통시장이 효율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 국내산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인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소기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통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의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질이 가격에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는 수산물 산지실명제 및 이력추적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하여 수입산 수산물과 국산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산의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는 양이 증가할수록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위해할 가능성은 그만큼 증가한다. 그러므로 현재 각 국에서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동등성 원칙에 따라 국내 수산식품에 대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및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 수산물의 수입 후 국내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수산물의 생산, 유통, 무역 전 과정을 대상으로 새로운 식

품안전관리방식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수입단계에서 수입업자의 난립에 의한 중복수입이나 과잉수입을 방지하여, 중복수입이나 과잉수입에 의하여 외화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 국내의 수입업자 간 수입국 현지에서 과당경쟁에 의해 수입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업자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입업자들 간의 자율적 상설협의체를 통하여 국내 수산물 수급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설명, 수입 수산물에 대한 품목선정이나 수입 상대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수입 상대국의 무역관행조사, 회원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수입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입 수산물 유통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량의 물량은 종합상사가, 소량의 물량은 전문수입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많은 도·소매업자들은 수입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경로를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가 수입물량을 유사도매시장이나 신유통업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산하고, 잔품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상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입통관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유통시스템이라든가,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수입업자 직판체제 등을 고려하는 등 유통경로를 투명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대책

완전개방을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무역체계의 개편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비교우위의 확보와 지속적인 수출 증대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리가 필요하다. 특히,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 수산물 자급율의 하락은 수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2001년 이후 늘어나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완전 개방화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방어적 관점에서 공격적인 관점으로 수출산업으로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수

산물 수출의 시장구조는 대일 의존적 시장 편중현상이 심하여 일본의 국내여건 변화 특히, 엔화환율의 변동, 일본의 재고량과 생산량, 기타 외생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출시장의 다변화는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해외소비자의 기호,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 수출경쟁관계 등의 시장조사와 정보수집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업의 수출전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석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조사·분석된 결과를 국별 전략상품 개발에 적용 가능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⁵¹⁾

둘째, 국제경쟁력의 유지·확보를 위해 수출상품의 품질비교우위 확보, 수출상품의 지속적 창출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수산물 수출구조를 고도화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의 질적 소비성향은 영양공급원으로서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1차적 단계에서 안전성, 먹는 즐거움에 대한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추구하는 제2차적 단계를 거쳐,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소비가 식생활의 외식화, 국제화, 레저화로 인한 식품의 생체방어기능 및 조절기능을 강조하는 고급지향형, 건강·장수지향형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주도상품은 고차가공기술의 개발을 통한 연제품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통조림 및 수산물의 기능성분을 이용한 건강식품이 될 것이다.

새로운 수출주도품목 또는 중점육성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비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수출 공급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품목의 소량생산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형태로 중소 수산가공산업 육성이 바람직하다. 수산가공 중소기업은 전문화된 상품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업설립자금의 지원과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의 지역 내 편익분산을 위한 사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공급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수출공급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연근해 어업관리의 합리화에 부가하여 신어장 개척을 통한 유통·가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제3국으로의 수출전략도 동시에 이

51) 일본의 수산물 소비패턴은 간편화, 소량화, 편리성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수산물 소비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근해 어업은 적정자원관리체제의 구축, 상품성 제고를 위한 어업생산 및 처리기술 개선, 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대한 어민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식어업은 전략적 품목분류 및 선별적 육성, 특화양식품목의 지역별 조정 및 단지화, 어장이용의 적정화와 우량어장 확보, 생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의 고급화가 요구된다. 신어장 개척은 종래의 생산만이 강조된 차원이 아닌 수산물 가공 및 유통·제3국 무역이라는 차원으로 확대하여 접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기술과 자본, 낮은 임금의 노동력 등이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⁵²⁾

넷째, 연근해 생산어류는 대부분 활선어, 냉장·냉동의 원형상태로 수출되기 때문에 어체의 손상은 상품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체의 손상은 부패 및 변질을 촉진함으로써 선도를 급격히 저하시켜 가공원료로서의 가치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대일 수출 봉장어의 경우 일본의 하역항인 시모노세키항(下關港)까지 활어상태로 수송하여 양육과 동시에 가공하는데, 이는 냉장 혹은 냉동상태로 수송할 경우의 육질 경화와 성분 변화에 따른 맛의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수산상품의 고상품성 유지를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의 어획물 채포 및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어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구어법을 개량하고 선상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수산물 수출의 핵심은 신상품 개발 또는 상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혜의 어항과 함께 수산관련 대학, 연구소, 자치단체, 민간유통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산·학·연·관 협동연구가 매우 용이한 곳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수산가공 부문에 관해 원활한 산·학·연·관 협동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 등이 지역 수산가공업에 대한 기술개발 의지와 동참의식이 부족했던 데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52) 수산업 협력범위를 생산에서 유통·가공·무역으로 확대하고 향후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산물을 다차산업(1, 2, 3차산업) 시야에 넣고, 생산전진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다차산업 네트워크의 중핵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감안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가공관련 연구기관과 업체를 상호 연관시키는 가교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기업의 근대적 생산기술을 지방 중소기업에 접목시키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지역의 특정 수산자원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저차 가공품을 수입하여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하는 등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최대시장일 수밖에 없는 일본, 중국, EU, 미국의 소비자 선호도, 수산물 생산기술, 유통체계, 수입제도 등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수산물 수출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수산업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적 한계 및 관련자료 입수의 곤란 등으로 종합적인 결론 도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관세청, 「중국의 통관제도」, 1999.
- 권영철,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로서의 경쟁우위지수 : 개념정립과 예비적 검증」, 한국무역협회 정기학술회, 영남대학교, 1993.
- 김남두 외, 「동아시아 무역·투자의 구조변화와 향후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중국수출입상품 검사규정에 대한 설명」, 1998.
-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 박승록, 「동북아 경제중심 기초여건: 무역거래, 수출경쟁력, 경합보완관계 측면에서」, 한국경제연구원, 2003.
- 어명근,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 농산물 교역구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오용석, 「중국의 신무역관리제도와 구조변화」 대한상의 한중민간경제협의회, 1997.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이춘삼, 「무역관계법(제2전정판)」, 법문사, 1996.
- 주문배, “제4차 WTO 각료회의와 수산분야 시장개방화 대책”, 「21세기 해양시대의 개막과 한국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해양대학교, 2001.
- _____, “한국의 수산물 무역자유화 과정과 정책적 변용”, 「APEC 수산물 무역세미나 발표논문집」, 2001.
- _____, 「한·일 FTA 추진과 수산업 부문의 정책적 시사점」, 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2-4호, 2002. 10.
- _____, 「WTO-DDA 수산물 관세분야 논의동향과 주요쟁점」, KIEP 대외경제전문가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2002. 9.
- _____, 「WTO체제하의 수산식품 관세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주문배 외, 「WTO 뉴라운드 수산부문 대응전략」, 해양수산부, 1999.
- 주문배·고종환, “다자 간 관세인하방식별 수산물 관세율 인하효과에 관한 연구”, 「해양정책연구」, 2001년 여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
- 주문배·고종환 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부문 대응방안」, 해양수산부, 2003.
- 최낙균, 고준성, 「뉴라운드 논의의 산업별 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산업연구원, 1999.
-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 「일본의 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0.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 관세관련 동향자료」, 2001.
-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비관세장벽현황」, 2002.
- _____, 「중국관세율 및 수출입 요령」, 각 연도.
- 해양수산부, 「2002년도 해양수산백서」, 2002.
- _____, 「수산업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각 연도.
- _____,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수산물)」, 각 연도.
- _____,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각 연도.
- 해양수산부·농수산물유통공사, 「중국수산물시장동향」, 1999.

<외국문헌>

- 國家統計局, 「中國農業統計資料」, 1998~2001.
- _____, 「中國統計年鑑」, 1996~2000.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水産統計」, 2002.
- 譚向 등, 「中國主要農産品市場分析」, 2001.
- 藤本進編, 「日本の關稅, 財經詳報社」, 1997.
- 日本農林水産省, 「日本農林水産統計」, 2001.
- 日本農林統計協會, 「2001年度 水産白書」, 2002.
- 日本貿易振興會, 「貿易投資ハンドブック」 2000~2001, JETRO事業統括部, 2000.
- 日本水産物貿易協會, 「2000年度水産物輸入統計年報」, 2001.

- _____,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出編」, 2002.
- _____, 「2001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入編」, 2002.
- _____, 「2002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入編, 輸出編」, 2003.
- _____, 「2002年度水産物貿易統計年報 輸出編, 輸出編」, 2003.
- 日本水産物振興會, 「アグロトレード ハンドブック2001」, 2001.
- 日本輸入食品安全推進協會, 「食品輸入ガイドブック」, 2001.
- 日本水産廳, 「水産基本計劃」, 2002.
- _____, 「平成10年度漁業の動向に関する年次報告」, 1999.
- 朱國興 외 主編, 中國對外經濟貿易體制改革全書,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1995.
- 中國農業部, 「中國農業年鑑」, 1989~2000.
- _____, 「中國漁業統計彙編 1989~1993」, 1994.
-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 「中國農業統計資料」, 2001.
- 中華人民共和國海關總署編, 「中華人民共和國海關統計年鑑」, 2002, 2003.
- 「中華人民共和國 對外貿易法」.
- http://www.kati.net/m_country/t21-6.htm.
- <http://www.apectariff.org>, Table of Duty in Japan(2002).
- ITC(<http://www.intracen.org/>)

한중일 수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시장개방 대응방안

2004年 12月 27日 印刷

2004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發行處
李 廷 旭
韓 國 海 洋 水 產 開 發 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수암빌딩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組版·印刷/영진인쇄사 ☎(02)734-371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